

博 物 館 紀 要

20

2005. 12.

檀國大學校 石宙善紀念博物館



❖ 기초강연

三國 鼎立期 漢江流域 占有의 意義 정영호 5

❖ 논 문

高句麗의 南進와 國原城(忠州) 신형식 7

5~6세기 百濟의 北界 梁起錫 23

5~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과 경영 서영일 53

❖ 휘 보

❖ 구입 및 기증 받은 도서 목록

三國 鼎立期 漢江流域 占有의 意義

정 영 호★

漢江을 차지하는 나라가 한반도의 霸權을 장악할 수 있다는 말은 일찍부터 力說해오는 歷史的인 말이다. 그러므로 5세기에 이르면서 三國은 서로 漢江流域을 차지하려고 전력을 기울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8백리 漢江 주변을 일찍부터 차지하고 있었던 나라는 百濟이다. 그러므로 충청북도 丹陽郡의 赤城內에서 百濟의 토기가 발견 조사되었고 忠州 塔坪里 7層石塔 주변에서도 百濟의 기와편이 발견 조사된 바 있다. 그러나 백제는 蓋鹵王 21年(475)을 기하여 漢江流域을 高句麗에게 빼앗기고 충청남도 熊津쪽으로 도읍을 옮겨 錦江流域에서 세력을 정비하게 되었다.

한편 高句麗는 長壽王 15年(427) 平壤으로 遷都한 뒤, 본격적인 남하정책을 취하여 王 42年(454)에 신라 북변을 침공하였으며 王 63年(475)에는 百濟의 도읍지인 漢城을 함락, 漢江下流를 장악하였다. 이후 高句麗는 漢江以南으로 세력을 확장하여 경기도 利川에 南川縣을 두고 丹陽에는 赤城縣을 두었으니 당시의 『三國史記』 관계기록과 특히 유적·유물의 발견조사, 예컨대 利川의 雪峰山城, 丹陽의 赤城碑와 加隱巖山城, 陰城의 望夷山城, 忠州의 中原高句麗碑와 國原城 治址 등을 들 수 있겠다.

新羅는 6세기에 들면서 북방경략에 힘을 쏟아 竹嶺과 烏嶺을 넘어 漢江流域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니 『三國史記』의 관계기록과 丹陽의 赤城碑 등이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高句麗의 남하정책은 漢江流域에서 그치지 않고 漢江 일대를 점유한 여세로 錦江에까

★ 단국대

지 이르렀던 것으로 당시의 문헌기록과 여러 유적·유물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예컨대 충주의 鳳凰里 磨崖半跏像 佛·菩薩像群과 老隱面 出土 『建興五年丙辰』銘 金銅光背와 淸原 飛中里의 石佛坐像, 燕岐郡 全義縣 高麗山城과 淸原 芙江의 蓋蘇文城과 주변의 山城, 그리고 이곳에서 출토되고 있는 高句麗 유물들 『三國史記』의 관계기록을 들 수 있다.

특히 陽原王 10年(554) 겨울에 百濟의 熊川城(지금의 공주)을 공격하였으며 이때에 錦江이 「無水」이었다는 기록과 『燕岐誌』에 “蓋蘇文城 在芙蓉山上 高句麗泉蓋蘇文 築城于此習騎射云 至今有形址”라는 기록은 그대로 넘길 수 있는 일이 아닌 것으로 현재도 당시의 山城이 잘 남아 있다.

百濟는 475년에 熊津으로 도읍을 옮긴 뒤 聖王 16년(538)때에 이르러 다시 泗水城으로 遷都하여 錦江下流만을 장악하고 있었으니 漢江流域의 패권다툼은 新羅와 高句麗의 문제였다. 新羅는 일찍이 2세기에 鳥嶺과 竹嶺을 開道하였다고 하나 6세기 중엽에 竹嶺을 넘어 高句麗의 赤城을 점령할 때 까지 주목할 만한 北方經略과 漢江流域에로의 進出은 밝혀진 바가 없다.

그러나 이후 곧 眞興王 14年(553)에 한강일대를 차지하여 新州를 설치하고 金武力장군을 軍主로 임명하였으며 王15年(554)에는 百濟의 聖王을 생포, 살해함으로써 錦江中流의 패권을 잡게 되었다. 그러나 이후 당분간은 高句麗와 新羅의 대립이 각축이 계속되었던 바 新羅가 眞平王 51年(629)에 淸原 北二面 釜淵里의 高句麗 娘臂城을 함락함으로써 高句麗는 퇴각하였으며 이후 新羅는 漢江流域의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에 이르게 된다.

이상 5~6세기를 중심한 三國間의 패권다툼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았는데 더욱 상세하고 중요한 내용들은 앞으로 발표할 여러 석학들에게 기대해야 할 것이다. 주옥같은 玉稿를 정리하여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할 여러 학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는 바이다.

高句麗의 南進와 國原城(忠州)

신 형 식★

목차

1.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고구려의 위상
2. 고구려의 남진과 國原城
3. 결어 -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

1. 동북아시아에 있어서 고구려의 위상

고구려는 우리 역사상 ‘가장 힘있던’ 나라로 수·당과 맞서 한반도를 지켜준 나라였고, 만주와 연해주지역까지 지배한 당당한 제국이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을지문덕(乙支文德)과 연개소문(淵蓋蘇文)의 자랑스런 용맹을 기억하고 있다. 당 태종은 645년(보장왕 4년)에 내린 교서(敎書)에서

지금 천하가 다 평정되었으나, 오직 요동(高句麗)만 복종하지 않고 있다. 그의 후손들이 군사의 강성함을 믿고 신하들과 모의하여 싸움을 유도하므로(導以征討) 전쟁은 바야흐로 시작되었다. 그러므로 짐이 친히 그를 쟁취하여 후세의 걱정을 없애려 한다 ([신당서] 권 220, 열전 145동이 <고려>).

★ 이화여대 명예교수, 상명대 교수

라고하여 고구려가 그들에게 얼마나 ‘괴로운 나라’였음을 실토했다. 이때 양국간의 쟁처(爭處)가 된곳은 요동(遼東)이었다. 요동은 고구려가 서진할 때 먼저 장악한 곳이며, 중국이 동진할때 거쳐야 하는 요충(要衝)이었다.

요동은 원래 중국 땅인데 수(隋)나라가 4번이나 군대를 출동하였으나 취하지 못하였다. 내가 지금 정벌하려는 것은 중국(唐)을 위해서는 원수를 갚는 것이며(수의 패배에 대한 복수)고구려를 위해서는 부군(父君)의 치욕(영류왕 피살)을 씻게 할뿐이다. 지금 4방을 전부 평정했는데 고구려만 정벌치 못했으므로 내가 늙기 전에 사대부의 힘을 빌어 이(요동)을 취하려 한다 (『삼국사기』 권 21, 보장왕 3년조).

에서도 당의 입장을 알수가 있다. 그러나 이곳을 고구려가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쉽사리 차지할 수가 없었다. 그러므로 당의 고관(蔚州刺史)인 이군구(李君球)가

고구려와 같은 작은 나라에게 무엇 때문에 힘을 기울여(大軍派遣) 정벌하려고 하는가? 설령 그 나라를 정벌한다면 그 곳에 군대를 파견해서 지켜야 할텐데 군대를 적게 보내면 위엄이 서지 않고, 군대를 많이 파견하면 사람들이 모두 불안해할 것이다. 그러면 천하(唐)가 군비 지출로 피폐해진다.(상동)

라고 하여 고구려를 치는 것은 치지 않는 것만 못하고, 고구려를 멸하는 것은 멸하지 않는 것만 같이 못하다고 하여 고구려 정벌을 반대하기까지 하였다.

중국은 소위 그들의 천하관(天下觀)으로 사방은 곧 자신의 속방으로서 천하이며, 변방으로서 만국(萬國)은 ‘중국의 은혜로 편안해진다’(詩經)는 허망된 망상을 자랑으로 여긴다. 따라서 중국과 그 주변은 ‘태양과 뭇별과의 관계’로 설명하면서 중국과 그 주변나라(고구려를 포함하여)는 격(位相)이 다르다고 하였다. 그렇다면 자신의 지방정권(屬國)인 고구려가 그 상전(唐)이 보는 앞에서 요하(遼河)를 따라 방어선인 천리장성을 쌓는데 방관하고 있어야 했는가.¹⁾ 또한 자기의 지방정권을 정벌하기 위해 당 태종은 장안(長安:서안)뿐 아니라 전국각지에서 군사를 징발하였을까하는 의구심과 함께 거란·선비·말갈족까지 동원하고 있었으니 고구려는 당의 지방정권이 아니라 당당한 경쟁국이었다.

1) 천리장성은 영류왕 14년(631)에 시작하여 16년간에 걸쳐 완성한 부여성(북 : 農安)으로부터 비사성(남 : 大連)까지의 장성이다. 이 성에는 회덕·개원·심양·해성·영구까지 하변로(河邊路)가 있어 생활필수품(농산물·해산물)의 운반 역할도 하였으며, 주요 거점으로 신성(심양)·백암성(등탑)·요동성(요양)·안시성(해성)·견안성(영구)·비사성(대련) 등이 있다.

고구려는 이와 같이 당나라와 맞선 동방의 강국이었다. 비록 고대의 외교 형태인 조공(朝貢)을 통해 중국과 교섭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러한 조공관계 속에서 국가의 정체성(正體性)과 독립성(獨立性)은 결코 상실된 일이 없었다. 당나라는 수나라의 고구려 정벌실패로 고구려에 붙들려 있는 포로와 전쟁에서 희생된 유골의 송환 및 경관(京觀: 수나라 전사자를 거두어 만든 큰 무덤)의 철거를 공식으로 요구하였으며, 이때 교환된 국서(國書)에

다만 수나라 말기에 병난이 연달아 일어나... 오랜 세월이 지나면서 원한은 깊어진 채 풀지 못하였다. 이제 **두나라**가 서로 통화하여 간격이나 차이를 둘 이유가 없다.(但隋氏季年 連丙構難 ... 多歷年歲 怨曠不申 今二國通和 義無阻理 『구당서』권 199 상 열전 149 상 동이<고려>)

라하고 있음을 보아 두 나라는 상하관계가 아니었다. 따라서 일찍이 동천왕 7년(233 : 吳의 嘉和 2년)에 손권(孫權)은 사굉(謝宏)을 고구려에 보내어 왕을 선우(單于 : 흉노의 왕)로 봉한 사실은²⁾ 고구려가 중국을 괴롭힌 흉노족과 같이 공포의 대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때 중국(吳)은 고구려에 막대한 예물(衣物珍寶)을 바치기까지 하였다.³⁾

이와 같이 고구려는 중국의 동진(東進)을 막고 한반도의 생활권을 보호함으로써 백제·신라가 성장할 수 있는 터전을 마련하였으며, 한반도의 안전에도 기여하였다. 동시에 고구려가 동방의 강자로 군림하였음으로 북방의 몽골·말갈족이나 서방의 돌궐·위궤, 남방의 토욕혼(吐谷渾)·토번(吐蕃) 등 변방세력이 성장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강국이 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일까? 고구려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었다. 산악지방으로 농토가 거의 없었음으로 ‘부지런히 농사를 지어도 식량이 부족함’(雖力佃作 不足以實口腹 : 『삼국지』 권 30)나라였음으로 습속에 절약정신이 투철하였다. 더구나 주변(중국·부여·옥저·동예)에 여러나라가 있어 항상 국가적 시련이 있었음으로 고구려는 일찍부터 상무정신(尙武精神)과 국민적 단결이 요구되었다. 이러한 고구려의 성격에 대해서 장도빈(張道斌 : 산운, 1888~1963)은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다.

엄격한 법률, 무예(武藝), 기마사궁(騎馬射弓), 용검투창(用劍投槍)의 교육, 국민의 단

2) 신형식·최규성 편, 『고구려는 중국사인가』 (백산자료원, 2004) p. 183

3) 『삼국지』 권 47 吳主傳 2.

결심, 기사수렵(騎射狩獵)의 풍속, 정의·근면의 국민성, 강건한 애국심, 그리고 남녀의 상무정신(『대고구려사』 국사원, p. 102)

등으로 설명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고구려를 제하면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고구려는 출발부터 여러 부족의 연합으로 이룩된 나라였으므로 부족간의 융합과 타협이 요구되었다. 일찍부터 고구려는 부족장회의(諸加會議)에서 왕을 선출하고 범법자(犯法者)를 합의 처리하는 전통이 바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었으며, 국민적 단합을 위한 ‘정월보름의 패수물놀이’(가)와 ‘3월3일의 사냥대회’(나)가 이를 보여준다.

(가) 해마다 정월초(보름)에 패수에서 물놀이를 하는데 왕이 가마를 타고 화려한 옷을 갖추고 이를 구경한다. 놀이가 끝나면 왕은 옷을 물속에 던지는데 놀이꾼들이 두 패로 나뉘어 그것에다 돌과 물을 던지면서 떠들고 쫓아 다니기를 두세번 되풀이하고 끝낸다.(『수서』 권 30, 동이전<고구려>)

(나) 고구려는 매년 3월 3일에 낙랑언덕에서 사냥을 한다. 이날 잡은 산돼지·사슴 등으로 하늘과 산천신에 제사를 지낸다. 이 때 왕은 신하와 5부 병사들과 사냥을 나갔다.(『삼국사기』 권 45, 온달전)

이러한 기록에서 볼 때, 고구려왕은 고관과 5부족 병사들과 함께 사냥을 하면서 하늘과 산천에 제사하고 단합을 꾀하였음을 알 수 있다. 군민(君民)이 함께 즐기는 축제인 동시에 중국과 같이 ‘하늘의 자손’⁴⁾으로서 당당한 천손민족의 긍지와 멋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것이 고구려인의 천하관(天下觀)이었다.⁵⁾

그러므로 고구려는 일찍부터 중국과 다른 전통과 의식을 갖고 있었다. 국동대혈(國東大穴)을 통한 천신의 제사는 물론 개국신화에 나타난 ‘영웅 전승적 의미’는 고구려인의 긍지로 나타날 수 있었다.⁶⁾ 고구려는 끝까지 중국의 정치제도(3성 6부)를 수용하지 않았으며, 어려운 여건(빈번한 전쟁과 긴 겨울)을 이겨내면서, 노래와 유희를 즐기는 여유를 잃지 않았다. 중국인들과 달리 고구려인들은 특히 청결한 것을 좋아했으며

4) 고구려인들의 천손민족 의식은 『삼국사기』에 주몽(朱蒙)이 해모수(天帝)의 아들의 아들이라고 하였고, 『삼국유사』(王曆)에도 단군의 아들로 표시하고 있다. 광개토왕 비문에도 天帝之子로 되어 있다.

5)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 (『한국사론』 17, 1979), pp.25~27.

양기석, 「4~5세기 고구려왕자의 천하관」, (『호서사학』 11, 1983) pp. 50~70.

6) 김두진, 「고구려 개국 신화의 영웅 전승적 성격」, (『국사관논총』 62, 1995)참조.

서영대, 「고구려왕실 시조신화의 유형」, (『이충희선생화갑논총』 1997)참조.

- ㉔ 윗사람에게는 무릎을 꿇고 절한다.(『남사』 권 79)
- ㉕ 부모와 남편의 상(喪)에는 3년, 형제상에는 3개월의 복을 입는다.(『북사』 권 94)
- ㉖ 혼례시에는 남자의 집에서는 돼지고기와 술을 보낼 뿐 재물을 보내지 않는다. 만약 재물을 보내는 사람은 수치로 여긴다.(『수서』 권 81)

와 같이 예의범절이 깎뚝하였다. 부모에 대한 효심은 호동(好童:대무신왕의 아들)이 자신을 미워했던 왕의 원비(元妃)의 모함에도 불구하고 부친을 위한 효심에서 자살한 사실에도 역력하였다. 특히 결혼시에 혼납금(婚納金)이 없던 미풍양속은 중국과 근본적으로 달랐다. 그리고 현실에서 내세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진혼의식(鎮魂意識)으로 씨름을 통해 승천하는 길은 종교의식을 잊지 않았다.⁷⁾

- (가) 그 나라 사람들은 노래하고 춤추기를 좋아한다. 모든 촌락에서는 밤만되면 남녀들이 한곳에 모여 서로 노래를 즐겼다. 성격이 깨끗하고 밝으며 자기집에서 술을 빚어 먹기를 좋아한다.(『삼국지』 권 30, 위서 동이전<고구려>)
- (나) 당태종은 추위나 동상(凍傷)에 시달리다 회군(班師)을 명하였다. 이때 성안에서는 소리를 죽이고 깃발을 높였으며, 성주(城主)는 성위에 올라가 손을 모아 절을 하여 하직하였다 (『구당서』 권 199 <上> 열전 145 <上> 동이)

와 같이 빈번한 전쟁의 참화와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낙천적인 여유와 멋을 잊지 않았으며, 자신을 60여일이나 괴롭힌 안시성전투(安市城戰鬪)에서 패퇴하는 당군에게 ‘손을 흔들며 고이 보내준’ 아량에서 엿볼 수 있다.

2. 고구려의 남진과 國原城

고구려의 영토확장은 국초부터 주변 소국(小國)의 병합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따라서 서쪽으로는 요동(遼東)을 확보하여 중국의 동진(東進)을 막고, 북쪽으로는 중국세력과 연

7) 전호태, 『고구려백화연구』(사계절, 1999) p. 105.
신형식, 『고구려사』(이대출판부, 2003) p. 266.

결된 부여(만주지역)를 합방하는 일이 필요하였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고조선의 전통을 이어온 대동강유역(平壤)을 차지하는 동시에 한반도의 허리 역할을 하는 한강유역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였다.⁸⁾

그러나 고구려 발전과정에서 우선 전제되어야 할 것은 중국과의 투쟁에서 나타나는 서방과 북방문제였다. 그 중에서도 ‘요동문제’였다. 대표적인 철 생산지인 이곳은 한·중간의 쟁처(爭處)로서 관구검(卞丘儉)의 침입(244)이후 국난을 맞았으나 미천왕 12년(311)의 서안평(西安平)진출로 요동을 확보함으로써 남방진출의 단초를 마련할수 있었다. 따라서 미천왕 14년(313)의 낙랑축출(樂浪逐出)이 가능하였으나 전연(前燕:慕容氏)의 침입과 전진(前秦)과의 연합등 복잡한 양상이 계속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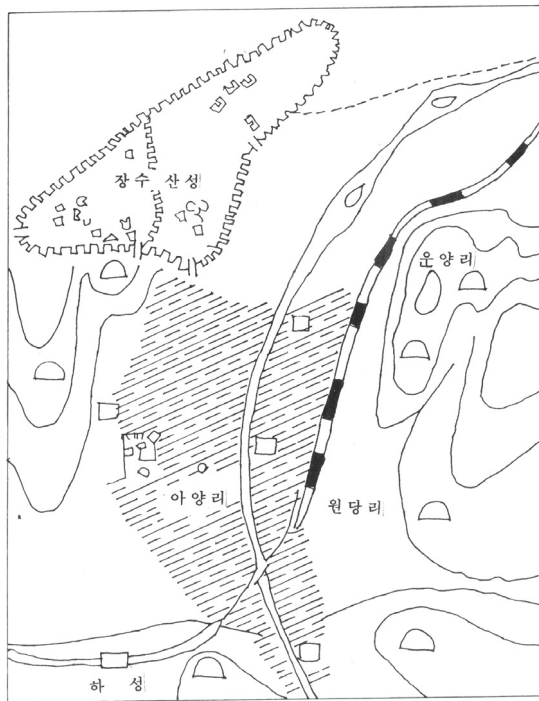


[지도 1] 한반도북부(북한)의 고구려산성

8) 공석구,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서경문화사, 1998).
 노태돈, 『고구려사연구』(사계절, 1999).
 이인철, 『고구려 대외정복연구』(백산자료원, 2000).
 신형식, 『고구려사』(이대출판부, 2003).
 이성제, 『고구려의 서방정책 연구』(국학자료원, 2005).

위의 [지도 1]에서 보듯이 고구려는 남방진출을 국가적 방향으로 정하고 내륙·해양 두방면으로 진출을 꾀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성곽배치는 평양천도 이후에 이룩된 것이지만, 결국 평양천도를 위한 사전준비는 이러한 성곽배치로 결실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광개토왕(廣開土 : 391~413)의 정복사업이 추진되었다. 그러나 그의 7방향(비문)에 나타난 정복지도 결국은 북방보다 남방진출에 초점이 두어져⁹⁾ 광개토왕의 남방진출의 최종목표를 짐작케 한다. 이러한 사실은 백제 근초고왕 (近肖古王 : 346~375)의 도전에 대한 반발이며, 고국원왕(333~371)의 패사에 대한 보복으로도 짐작이 간다.



[지도 2] 장수산성 일대의 고구려 유적

이러한 백제의 북진은 어디까지나 고국원왕의 남진으로 이룩된 남평양(황해도 신원군

9) 박성봉, 광개토호태왕기 고구려 남진의 성격(『한국사 연구』 17, 1979) pp. 25~27

서영수, 광개토왕릉비문의 정복기사재검토(上)(『역사학보』 96, 1982) p.17

서영수, 광개토왕릉비문의 연구사적검토(『고구려 연구』, 1995) p.173

윤명철, 광개토왕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중해 질서재편(『군사』 30, 1995) 참조

아양리 : 장수산성)의 설치가 문제였다.¹⁰⁾ 이미 고국원왕은 전연과의 심각한 투쟁을 막기 위한 배후세력(군량미 확보, 병력의 수요충족)을 마련하려는 일련의 조치로 황해도 의곡창지를 주목한 것이다. 대중항쟁의 경제적 배경을 마련하기 위해 재령(載寧)·은율(殷栗)·수안(隧安) 등지의 철광과 농산물 확보가 급선무였다. 특히 재령강·서흥강·남대천 등의 곡창지의 지배와 개발은 고구려 발전의 큰 몫을 할 수 있었으므로 고국원왕은 바로 이곳에 남평양을 두고 남진의 전진기지로 삼는 동시에 평양천도(平壤遷都)의 가능성을 타진한 것이다.

남평양은 황해도(남) 신원군 아양리와 재령강 건너편의 월당리 일대로 장수산(745m)의 남쪽으로 10km(둘레)의 도시(포곡산성)이다. 따라서 백제의 근초고왕이 이곳에서 고국원왕을 패사시킨 사실을 주목할만 하다.

장수산성은 남북통로의 길목인 황주-봉산-해주로 연결되는 교통요지로서 아양리를 보호하는 곳이다. 따라서 남평양은 내륙과 해양방어를 함께 할 수 있어 고구려 남진의 전초기지가 되었다. 이곳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물(와당)과 장수산성 남쪽의 아양리와 월당의 도시유적(건물지와 무더페)은 남평양의 도시유적으로 이해하고 있다.¹¹⁾

이러한 제·려간의 갈등은 광개토왕의 남정으로 일단락되었다. 광개토왕은 북방으로 비려(裨麗 : 395), 숙신(肅愼 : 398), 후연(後燕 : 407), 그리고 동부여(410)를 정복하는 동시에 백제(398), 가야(400), 그리고 대방(404) 등 남방진출에 힘을 기울이기 시작하였다. 이와 같은 남방진출은 한강유역(하류)을 확보하여 대제·라전의 주도권을 잡는 동시에 바다로의 진출을 통해 서해를 장악하려는 정책인 것이다.¹²⁾ 이것은 중국의 동아질서(東亞秩序)에 대한 과감한 도전으로서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을 위한 첫 시도인 것이다.¹³⁾

한강유역(하류)에로의 진출은 남평양설치를 계기로 적극화되었다. 고국양왕 8년(391)에 신라의 실성(實聖)을 인질로 삼아 신라로부터의 위협을 제거한 광개토왕은 즉위하자마자 한강하류의 요충인 관미성(關彌城)을 함락시켰다. 백제는 이미 진사왕(辰斯王) 2년(386)에 그 북방에 관방(關防)을 설치하면서 고구려의 남하에 대비하였으나 우세한 수군

10) 손영중,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 종합출판사, 1990) pp.83~188

11) 채희국·전제현, 신원장수산성을 찾아서(『고고민속』 1966-1).

안병찬, 장수산일대의 고구려 유적·유물에 대하여(『조선고고연구』 1990-2).

서일범, 북한의 고구려산성(신형식(외)편, 『고구려산성과 해양방어체제연구』 백산자료원, 2000) p.177

12) 윤명철, 광개토왕의 대외정책과 동아시아 중해 질서재편(『군사』 30, 1995)

윤명철, 고구려 발전기의 해양활동능력에 대한 검토(이인철 교수 정년논총, 1995)

13) 노대돈, 금석문에 보이는 고구려인의 천하관(『한국사론』 17, 1979)

양기석, 고구려 왕자의 천하관(『호서사학』 11, 1983)

을 동원한 고구려는 서해의 관문을 장악한 것이다. 이러한 해안지역의 확보는 내륙방향의 방어체계가 마련됨으로서 백제세력을 양분한데서 가능해졌다. 특히 연천군 일대 (임진강 유역)의 은대리성(隱垓里城), 당포성(堂浦城), 호로고루(瓠蘆古壘), 칠중성(七重城)등과 양주군 일대의 천보상·소래산 보루군, 그리고 한강하류의 아차산·용마산 보루군 등은 하천과 교통로를 연결하는 관방체제(關防体制)를 이루어 한강·임진강 유역을 확보한 것이다.¹⁴⁾

따라서 『삼국사기』(본기)에는 391년-394년간에 고구려와 백제사이의 치열한 전쟁기록을 보이고 있다. 이것은 패수(溟水: 예성강)를 중심으로 한 양국간의 대결을 나타낸 것으로 결국 396년(영락6)의 백제 (아신왕)의 정벌이다.

以六年丙申 王躬率水軍討伐殘國……王威赫怒渡阿利水 遣刺迫城……獻出男女生口一千人 細布千匹 跪王自誓從今以後 永爲奴客

이것이 광개토왕비문의 내용이다.¹⁵⁾ 그러나 광개토왕은 이곳을 고구려 영토로 삼은 것이 아니라 ‘將殘主弟并大臣十人 旋師還都’하여 무력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어 398년(영락8)의 帛愼土谷 정벌이 연해주지방이 아니라 강원도북부(溟)일대라면,¹⁶⁾ 결국 고구려의 남진을 보다 공고히 한다는 뜻이 될 것이다. 이어 영락9년의 다음 기사 즉

百殘違誓与倭和通 王巡下平壤 而新羅遣使白王云 倭人滿其國境 潰破城地 以奴客爲民歸 王請命太王恩慈矜其忠誠 先遣使還告以密計

14) 경기도 박물관 『임진강』 경기3대 하천 유역 종합학술조사 1. (2000)

단국대 매장문화재연구소, 『연천 은대리성 지표 및 시·발굴조사 보고서』(2004)

육군사관학교 육군박물관, 『경기도 연천군 군사유적지표조사보고서』(1995)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군의 역사와 문화유적』(1998)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연천호로고로』(2001)

한양대 박물관, 『과주시의 역사와 문화유적』(1999).

백종오·신영문, 『고구려 유적의 보고 경기도』(경기도박물관, 2005).

15) 광개토왕의 백제정벌기사가 고구려 본기에는 광개토왕 41년(394)에 실려 있으나, 백제본기에는 아신왕 4년(395)에 나타나 있다.

16) 濱田耕策, 高句麗廣開土大王碑文 研究 (『고대조선과 일본』 1974) 참조.

王健群, 『好太王碑研究』(1984) p.170.

이도학, 광개토왕릉비문에 보이는 전쟁기사의 분석(『광개토호대왕릉비연구 100년』 1996) p.758.

에서 볼 때 이는 보다 적극적인 남진(征服)을 위한 의지의 표현으로서 국경지대의 시찰로 곧 있을 영락 10년(400)의 대규모 출병(신라구원)의 전단계인 것이다.¹⁷⁾ 신라는 奴客(고구려 표현)으로서 충성을 약속한 것은 이미 392(내물왕37)에 실성(實聖)을, 412년(실성왕11)에는 복호(人好)를 인질로 파견한데서 예견된 사실이다. 그러나 신라는 이러한 고구려의 군사적 통제(경주에 고구려군 주둔)에 대해 내심 반발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한 고구려의 압력을 벗어나려는 자립운동이 나제동맹(羅濟同盟 : 433~554)이다.¹⁸⁾ 이를 계기로 고구려군의 축출에 따른 고구려의 반발은 결국 소지왕(昭知王)의 암살기도로 나타났으며,¹⁹⁾ 지증왕의 개혁이 그 결실을 맺게 된다.

영락 10년(400)의 대규모 병력(步騎五萬)에 의한 낙동강 유역으로의 출병은 단순한 신라구원의 차원을 넘어 고구려·신라로 이어진 남북진영과 백제·가야·왜로 연결된 동서진영과의 국제전으로서²⁰⁾ 한반도 주도권 확보를 위한 전략이라 하겠다. 이것은 한강 유역(하류)을 차지함으로서 가능한 조치인 것이다.

우리민족이 남북으로 대립·투쟁하고 있을때 한강유역은 반드시 그들 사이의 다투는 한 보배와 구슬같이 되었다. 이리하여 이를 장중(掌中)에 오래 지닌 자는 성하고 강하며 내지는 통일의 패업을 이루었으며, 반대로 이를 잃는 쪽은 쇠약과 패멸을 면치 못하였다. 한강유역의 득실은 국가의 흥망성쇠와 지대한 관계를 가졌던 것이다.²¹⁾

라는 이병도(李丙燾)의 지적과 같이 잠곡위주의 경제구조를 지닌 고구려는 풍부한 벼농사지역인 이곳을 차지하려하였고, 백제는 이 지역을 지키는 동시에 비옥한 충적평야의 개발에 국력을 집중시키지 않을수 없었다.²²⁾ 신라역시 『단양적성비』에서 보듯이 조령로(鳥嶺路 : 중추-문경)를 피하고 죽령로(竹嶺路 : 단양-풍기)를 통한 한강상류지역부터 확보하면서 북진을 꾀했을 것이다.²³⁾

17) 서영수, 辛卯年記事의 변상과 원상 (『광개토호태왕릉비연구 100년』) p.406.

18) 신형식, 신라왕위계승고 (『유홍열박사회갑논총』 1971) p.74.

19) 주보돈, 영일 냉수리비에 대한 기초적 검토 (『신라문화』 6, 2002) 참조.

정창은, 신라눌지왕대 고구려 세력의 축출과 그 배경 (『한국고대사연구』 33, 2004) 참조.

정창은, 신라소지왕대 대고구려 관계와 정치변동 (『사학연구』 78, 2005) 참조.

20) 이도학, 앞의 글 p.759.

21) 이병도, 『두계잡필』(1956) p.52.

22) 신형식, 한국고대에 있어서 한강유역의 정치, 군사적 성격(『향토시물』 41, 1983).

신형식, 『한국고대사의 신연구』(일조각, 1984) pp.271~275.

23) 신형식, 신라의 발전과 한강 (『한국사연구』 77, 1972) p.51.

그러나 6세기 중엽 이후 약 100년간 고구려의 남경(南境)이 일정하게 확보된 것이 아니라 진출(점령)과 후퇴(철수)가 반복되면서 그 변화가 계속되었음을 주목할 수 있다.²⁴⁾ 이러한 사실은 한강이북의 신라산성들이 그 수축연대가 7세기 전반을 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더구나 한강이북의 고구려 보루가 고구려세력의 전진이나 후퇴와 일정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²⁵⁾ 임진강일대의 보루는 대부분 고구려가 계속 운영하였다고 보인다.

이러한 고구려의 남진 과정에서 그 전초기지로서 국원성(國原城)이 부각된다. 그러나 그 설치시기에 대해서 뚜렷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설치연대의 확인에 어려움이 있다. 다만 영락 6년(396)의 백제정벌시에 포함된 58성 가운데 아단성(阿旦城)·고모루성(古牟婁城)등 남한강 상류지역 (新來韓穢)이 포함되었음으로 이 지역에 별도(別都)의 필요성을 주목할 수 있다.²⁶⁾ 다만 당시는 ‘군대를 돌려 귀환’(旅師還都)했음으로 고구려 군사(수군)의 위력은 물론 그 한계를 보여줄 수 있었다. 그러므로 국원성 설치의 영락6년(396)으로 보기보다는 영락10년(400)의 낙동강 유역 출병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때 군사적 통로였던 죽령로의 의미는 내려간의 쟁치가 될 수 있었을 것이다.²⁷⁾

〈표 1〉 忠州 서남 지방의 고구려 지명

高句麗	新羅	高麗	朝鮮	現
仍忽	陰城縣	陰城縣	陰城縣	陰城
仍斤內郡	槐壤郡	槐州	槐山郡	槐山
道西縣	道西縣	道安縣	清安縣	清安
今勿奴郡	黑壤郡	鎭州	鎭州縣	鎭川
上芑縣		長延縣	延豐縣	延豐

4세기 후반 고국원왕때 신원군(아양리)에 남평양을 설치한 고구려는 백제의 도전을 극복하고 그 수도를 유린한 후 그 여세를 국원성을 충주에 설치하는 한편 한반도 지배권을 위한 남진정책에 박차를 가하게 되었다.²⁸⁾ 제 2의 국내성을 이곳에 둔 고구려는 수도 형태에 가까운 여러 가지 시설을 갖추었을 것이다. 이곳에 남아있는 어림(御林), 이궁지

24) 서영일, 6~7세기 고구려 南境考察(『고구려연구』 11, 2001) p.32.

25) 최종택, 경기북부지역의 고구려관방체계(『고구려연구』 8, 1999)참조.

26) 이도학, 위의 글 p.105.

27) 양기석, 고구려의 충주지역진출과 경영 (『중원문화논총』 6, 2002) p.65.

28) 장준식, 고구려 국원성치지에 관한 연구 (『단국대석사논문』 1982) 참조.

(離宮址), 그리고 하림궁(河臨宮)등의 명칭이 갖는 의미는 고대 동방사회 (Oriental despotism)에서 보여지는 방어시설 (Defense Structure) · 도로망 (Net-work of Highways) · 화려한 궁궐과 사원, 그리고 거대한 분묘시설(墳墓施設)등과 비교된다.²⁹⁾

고구려가 한강상류 및 경상도(북부)일대까지 그 세력을 확장한 사실은 <표 1>에서 보듯이 음성(陰城) · 괴산(槐山)일대에서 고구려 지역이 확인되었고, 제천(堤川) · 청풍(淸風)일대에도 고구려 지명이 보이고 있다.³⁰⁾ 더구나 순흥(順興) 어숙묘(於宿墓)의 고구려 벽화 발견이나 경북일대의 고구려지명 <표 2>의 내용에서도 고구려의 남경(南境)을 짐작할 수 있다.³¹⁾

<표 2> 慶北 일대의 고구려 지명

高句麗	新羅	高麗	朝鮮	現
及伐山郡	岾山郡	興州	順興都護府	順興
古斯馬縣	玉馬縣	奉化縣	奉化縣	奉化
奈己郡	奈靈郡	順安縣	榮川郡	榮州
買谷縣	善谷縣	禮安縣	禮安縣	禮安
助攬縣	眞安縣	甫城府	眞寶縣	眞寶
靑己縣	積善縣	靑鳥縣	靑松縣	靑松
伊火兮縣	綠武縣	安德縣	安德縣	安德
屈火縣	曲城郡	臨河縣	臨河縣	臨河

이러한 고구려의 한강상류지역 확보는 『중원고구려비』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³²⁾ 고구려의 위상을 엿보게 된다. 다만 이 비석의 건립시기에 대해서 408~481년까지 다양한 견해가 보이고 있지만,³³⁾ 이 비문을 통해 고구려는 국원성을 남진경영의 거점으로 하는 한편,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 정치적 주인이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400년의 낙동강유역

29) Karl WittFagel, Oriental despotism (Yale Univ. pres, 1957) pp. 34~42

30) 제천은 奈吐郡, 청풍은 沙熱伊縣, 영월은 奈生郡이었다(신형식, 『한국사의 전개과정과 영토』, 『한국사론』 34, 2002, p.61).

31) 김정배, 고구려와 신라의 영역문제(『한국사연구』 61 · 62, 1988) p.17.

정운용, 5세기 고구려세력의 남하(『사총』 35, 1989) pp.5~8.

32) 단국대 사학회, 『사학지』 13 (1979).

33) 고구려연구회(편), 『고구려연구』 10 〈중원고구려비 연구〉 (2000).

출병으로 100여년간 고구려군의 경주주둔이 시작되었고, 464년(자비왕7, 장수왕 52)에 철군(축출)된 후,³⁴⁾ 일부 주력은 국원성에 주둔한 것으로 보인다.

이곳 충주는 남북간의 요충으로 묵호자(墨胡子)의 불교전래통로였고 광개토왕의 낙동강출병시 거쳐간 길목이었다. 그러므로 남북간의 ‘목구멍에 해당하는 곳’(咽喉之地)이며 산수와 천지의 기상이 합쳐진 곳으로 남북간의 쟁처(爭處)가 된 곳이다.³⁵⁾ 따라서 임진난 때 이곳을 빼앗겨서 서울이 위태해졌던 사실은 신립(申砮)의 패전에서 알 수가 있었다. 특히 충주는 조령(鳥嶺)을 넘어 문경(聞慶)·점촌(店村)·상주(尙州)·선산(善山)으로 이어지는 영남로의 거점이 되기 때문에 이곳에 중원비를 세워 신라에 대한 정치적 우위권(상하관계)을 유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신라는 영남로를 피해 의성(義城)·안동(安東)·영주(榮州)·풍기(豊基)를 거쳐 죽령(竹嶺)을 넘어 단양을 장악함으로써, 충주를 서쪽에서 압박하여 551년 충주를 확보하게 된다.³⁶⁾ 결국 6세기 중엽 국원성(忠州)을 상실한 고구려는 신라의 북진을 저지 못하고 한강하류일대를 빼앗기게 된다. 이제 삼국의 판도는 이를 계기로 신라에게 주도권을 넘기게 되었으며, 555년 진흥왕(眞興王)은 거칠부(居柒夫)와 무력(武力)등을 대동하고 북한산(비봉)에서 이 지역의 확보를 하늘에 고하고 천은(天恩)에 보답하는 제사를 올린 것이다.³⁷⁾ 이와같이 한강유역은 한반도 주도권의 향배를 결정짓는 관건(關鍵)이 된다.

그러나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상실한 것은 당연히 신라의 북진에 따른 군사적 패배만은 아니다. 당시 북방의 돌궐(突厥)의 위협과 계속된 귀족의 내분에 따른 정치적 시련도 간과할 수가 없다.³⁸⁾ 다만, 장수왕대의 고구려 남경(南境)은 금강유역(조치원, 연기)에 까지 이르렀고³⁹⁾ 내륙으로 소백산맥을 넘어 경상도 중북부지방까지 확대되었다.⁴⁰⁾ 즉, 충북의 음성, 괴산, 진천, 제천, 청풍, 단양 뿐 아니라, 경북의 순흥, 봉화, 영주, 예안, 청송, 영덕일대까지 그 세력이 미치고 있었다.⁴¹⁾ 이러한 사실은 『중원고구려비』의 신라에 대

34) 『일본서기』 권 14, 雄略天皇 8년조.

35) 『신증동국여지승람』 권 14, 〈충주목〉 형습 및 누정.

36) 신헌식, 신라의 발전과 한강(『한국사연구』 77, 1992) p.41.

37) 김태식, 봉선대전, 그기년물로서의 진흥왕순수비(『백산학보』 88, 2003) pp.75~90.

38) 노태돈, 고구려의 한강유역상실의 원인에 대하여(『한국사연구』 13, 1976) pp.31~54.

39) 정영호, 전의고구려산성소고(『천관우환력논총』 1985) 참조.

정영호, 고구려의 금강유역진출에 대한 소고(『신문사학』 3, 1989) 참조.

40) 정운용, 5세기 고구려 세력권의 남한(『사총』 35, 1989) 참조.

서영일, 5~6세기의 고구려 동남경고찰(『사학지』 24, 1991) 참조.

공석구, 『고구려 영역확장사 연구』 (서경문화사, 1998).

이인철, 광개토왕비를 통해본 고구려의 남방경영(『고구려 연구』 2, 1996).

한 정치적 상하관계뿐 아니라 대외적으로 중국의 동아세계질서에 맞선 ‘고구려 중심의 세계관’에서 나타나 있다.⁴²⁾

3. 결어 - 고구려의 남진과 한강

고구려는 만주대륙에서 성장, 발전한 나라이다. 혼하(渾河 : 압록강지류)와 압록강유역에서 중국과 투쟁하면서 자란 나라였다. 따라서 그 국가의 서쪽 방어선이 요하(遼河)였음으로 여기부터 수도에 이르는 지역에 2중, 3중의 방어벽을 축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광개토왕(391~413)의 대정복이후 국가의 정복사업이 남방에 주력하게 되었으며, 특히 장수왕대(413~491)는 북위(北魏 : 439~534)와의 세력균형 속에서⁴³⁾ 남방으로의 농경지 확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그것은 ‘잡곡위주에서 벼농사위주’로의 사회발전을 뜻하기 때문에 자연히 한강유역의 곡창지에 대한 영토적 야욕으로 정책방향을 돌리게 되었다.

5세기 이후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정복욕은 결국 백제의 정벌로 나타났으며, 신라의 북진과 충돌을 면치 못하게 되었다. 백제정벌로 남진의 주도권을 장악한 고구려는 한강을 따라 그 세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이미 4세기 후엽에 남평양을 두어 남진의 기지로 삼는 동시에 평양천도의 단초를 열게 되었다. 그러나 평양천도(427)는 결과적으로는 만주의 광대한 영토를 상실하게 되는 과오를 범하게 되었다.⁴⁴⁾

5세기초에 이르러 백제에 대한 압박은 결국 한강하류지역을 확보하려는 것이었다. 따라서 광개토왕의 낙동강유역 진출을 계기로 국원성(忠州)을 설치하여 한강상류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가짐으로서 3국간의 쟁패전이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광개·장수왕의 지나친 외정(外征)과 한강유역의 확보(군사주둔과 정치적보호)에 출혈이 강요되어

41) 신형식, 고구려의 성장과 그 영역 (『한국사론』 34, 2002) 참조.

42) 노태돈, 5세기 금석문에 보이는 천하관 (『한국사론』 17, 1979) 참조.

양기석, 4~5세기 고구려왕자의 천하관에 대하여(『호서사학』 11, 1983) 참조.

43) 노태돈, 5~6세기 동아시아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 (『고구려사연구』 사계절, 1999) p.342.

44) 신형식, 『고구려사』(이대출판부, 2003) p.61.

국력이 분산됨으로서 신라에 주도권을 양도하게 된다. 결국 고구려는 한강유역의 확보와 유지에 어려움을 받게 됨으로서 한국사에 있어서 남북의 완충지는 신라에게 넘어가 역사의 주도권은 6세기에 이르러 바뀌게 되었다.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주인공’을 위한 역사적 임무를 맡은 나라에 그 소유권을 부여한다. 결국 고구려는 한강유역을 한때 차지하였으나 그 유지와 개발에 어려움을 느껴 신라에 빼앗김으로서 한반도에서의 우위권을 신라에 양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한강유역은 언제나 ‘승리자의 편’에서 그 역사적 임무를 띄게 된다.

참고문헌

1. 단국대 사학과, 『사학지』 13(1979)
2. 서길수, 『고구려성』(KBS, 1994)
3. 박성봉(편), 『고구려 남진 경영사연구』(백산자료원, 1995)
4. 이형구(외), 『고구려의 고고문화』(정신문화연구원, 1996)
5. 공석구, 『고구려 영역확장사연구』(서경문화사, 1998)
6. 장준식, 『신라 중원경 연구』(학연문화사, 1998)
7. 여호규, 『고구려성1·2』(국방사연구회, 1998, 99)
8. 길경택, 『사료를 통해 본 충주』1, 2, 3(예성문화연구원, 1999)
9. 전호태, 『고구려고분벽화연구』(사계절, 1999)
10. 노태돈, 『고구려사연구』(사계절, 1999)
11. 고구려연구회, 『중원고구려비연구』(학연문화사, 2000)
12. 이인철, 『고구려의 대외정복연구』(백산자료원, 2000)
13. 신형식, 『고구려사』(이대출판부, 2003)
14. 충주문화원, 『충주의 향토사』(우리기획, 1998)
15. _____, 『중원문화』 16(2003)
16. 임기환, 『고구려정치사연구』(한나래, 2004)

5~6세기 百濟의 北界

- 475~551년 百濟의 漢江流域 領有問題를 중심으로 -

양 기 석

목
차

- | | |
|----------------------|-------------------|
| I. 머 리 말 | 2. 武寧王代の 漢城 回復 |
| II. 漢城 關聯 記錄의 檢討 | 3. 聖王代の 漢城 喪失과 回復 |
| III. 漢江流域 領有權의 變化 | IV. 맺음말 |
| 1. 475年 高句麗의 漢江流域 支配 | |

I. 머 리 말

한강유역은 한반도의 한복판을 관통하는 오늘날의 수도 서울의 젖줄이고, 남북의 육로교통과 동서의 수운교통을 연결하는 정치·경제·문화적 중심지로 역할하여 왔기 때문에 고대 이래 각국이 패권을 다투는 각축전 양상이 치열하게 전개되던 곳이다.

삼국시대에 이르러 한강유역을 가장 먼저 차지한 나라는 백제이다. 백제는 고구려계 이주민인 온조집단이 한강유역에 정착하여 나라를 세운 뒤 475년 고구려의 침공으로 왕

★ 忠北大 教授

* 이 논문은 2005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grant of th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in 2005).

도 한성을 빼앗긴 후 熊津으로 천도할 때까지 한강유역을 500년 가까이 국가 발전의 발판을 삼았던 곳이다. 한강유역은 475년 이후 고구려의 영유기를 거쳐 551년 聖王때의 북진을 통해 잠시 백제에 의해 재탈환되었으나 553년 신라의 영유가 됨으로써 신라는 삼국 통일의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5~6세기 한강유역의 영유를 둘러싼 삼국간의 항쟁과정에서 논란이 크게 일고 있는 부분이 475년~551년까지 백제의 한강유역에 대한 영유 문제일 것이다. 지금까지 475년 고구려의 백제 한성 침공 이후 백제는 한강유역을 상실하고 아산만 일대를 경계로 하여 고구려와 한동안 대치하다가 551년 성왕때의 북진으로 실지회복을 하였다고 보는 견해¹⁾가 지배적이다. 그 근거로 『삼국사기』 지리지에 수록되어 있는 漢州(漢山州), 朔州(牛首州), 溟州(何瑟羅州)가 한때 고구려의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점,²⁾ 그리고 백제 성왕이 신라와 가야군과 함께 고구려를 정벌하여 한강유역의 백제 고토를 수복했다는 『日本書紀』 기사³⁾를 들고 있다. 1994년 이후에는 서울 아차산 일대에 대한 지표조사를 시작으로 하여 임진강유역으로 연결되는 중간 지점에 위치한 양주군 일대에 이르는 지역에서 상당수의 고구려의 보루유적이 확인되면서⁴⁾ 이 유적이 5세기 중반에서 6세기 중반에 걸쳐 고구려가 한강유역을 지배했던 사실을 고고학적으로 입증해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와는 달리 『삼국사기』 백제본기 東城王代 이후부터는 漢城·漢山城 등 한강유역과 관련한 지명들이 자주 등장하고 있어서 마치 웅진시대 후기에 백제가 다시 고구려로부터 빼앗긴 한강유역을 재탈환한 것처럼 기술해 놓고 있어 위의 통설과는 다른 면

1) 小田省吾, 『朝鮮史大系』(上世史), 朝鮮史學會, 1928, 90쪽.

津田左右吉, 『長壽王征服地域考』, 『津田左右吉全集』11, 岩波書店, 1964, 69쪽.

이병도, 『한국사』(고대편), 진단학회, 1959, 428·440쪽 ; 『국역 삼국사기』(하), 을유문화사, 1977, 57쪽.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지역 병탄과 그 지배양태」, 『서울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 2005 서울역사학술대회 발표요지, 2005, 29~41쪽.

2) 『삼국사기』 권 35, 잡지4, 지리2 및 권 37, 잡지6, 지리4 고구려에 의하면 당시 고구려의 남쪽 국경은 아산만에서 죽령·조령과 흥해를 포함한 경상북도 일원에 이르는 지역이 고구려 영역인 것으로 기술해 놓고 있다.

3) 『일본서기』 권 19, 흠명기 12년.

4) 이에 관한 고고학적 조사는 다음과 같다.

심광주·윤우준, 『아차산의 역사와 문화유산』, 구리문화원, 1994.

토지박물관, 『양주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8.

임효재·최종택 외, 『아차산 제4보루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서울대박물관, 2000.

서울대 발굴조사단, 『시루봉 보루유적 발굴조사 약보고』, 1999.

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해석을 놓고 지금까지 대략 부정론과 긍정론의 두가지 측면에서 여러 견해가 제시되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먼저 백제가 5세기말 이후 한강유역에 진출한 것처럼 기록한 『삼국사기』백제본기 관련 기록 자체가 신빙성이 없다는 전제하에서 한성 관련 명칭이 충남 일원으로 옮겨진 것으로 보는 지명이동설⁵⁾과, 사비 시대에 와서 무령왕계의 왕실이 왕실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작하였다는 무령왕계 왕실의 조작설⁶⁾이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견해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고구려 영유기사와 『일본서기』 흠명기 관련 기사를 사료 비판 없이 그대로 인정하고 있는 점, 한성을 제외하고 水谷城 등과 같은 지명을 한성과 같이 모두 한강 이남 지역으로 이동시킨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그리고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 백제와 고구려간에 벌어진 전쟁 기록을 모두 백제측 자료에 의거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 등에서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반면 백제의 한강유역 관련 지명 기록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551년 성왕의 한성고토 회복작전을 재검토하는 측면에서 한성 이북으로 보는 견해⁷⁾와, 동성·무령왕대의 왕권강화책에 힘입어 일시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는 한강유역 일시 회복설⁸⁾ 등이 있다. 그러나 이 견해는 특정한 사건에 따른 지명들에게만 국한하여 보았던 점, 백제의 고토회복 시기가 명시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최근 발견된 서울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 보루유적과 청원 남성골유적 등에서 5~6세기의 고구려 유물과 유적이 확인된 점 등에서 보다 세밀히 검토해야 할 여지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⁹⁾ 이의 실체를 밝혀줄 수 있는 결정적인 자료의 출현 없이는 앞으로 어느 쪽의 견해이든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이와 같이 475년과 551년 사이의 한강유역을 둘러싼 백제, 고구려, 신라간의 항쟁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역사적 실상이 아직 해명되지 못한 부분이 여전히 문제점으로 남아있

5) 今西龍, 『百濟史研究』, 國書刊行會, 1934, 126쪽.

이기백, 「웅진시대 백제의 귀족세력」, 『백제연구』 9, 1978, 6~7쪽.

6) 이도학, 「한성말 웅진시대 백제왕계의 검토」, 『한국사연구』 45, 1984, 23~25쪽.

7) 丁若鏞은 성왕대 이후 漢城 및 漢北州郡이 고구려에 의해 일시 점령된 것으로 보았고(『여유당전서』 6, 「강역고」 3, 한성고 및 팔도연혁총서 상·하), 韓鎭書는 고구려가 한강이북지역을 점령한 것으로 이해하였다(『海東繹史續』 권 8, 지리고8, 백제강역총론). 이 후 김영관은 551년 기사를 529년에 고구려에게 상실한 高峰縣을 포함한 한강유역의 6군의 땅으로 보았고(『백제의 웅진천도의 배경과 한성 경영』, 『충북사학』 11·12합집, 2000, 75~91쪽), 임범식은 한성을 지금의 재령지역으로 보고 근초고왕대에 일시 차지하였던 고구려의 재령지역을 회복한 것으로 이해하였다(『5~6세기 한강유역사 재고 : 식민사학의 병폐와 관련하여』, 『한성사학』 15, 2002, 23~35쪽).

8) 양기석, 「웅진시대의 백제지배층연구」, 『사학지』 14, 1980, 22~23쪽.

박찬규, 「백제 웅진초기 복경문제」, 『사학지』 24, 1991.

9) 노중국, 「『삼국사기』의 백제 지리관련 기사 검토」, 『삼국사기의 원전 검토』,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5, 146~147쪽 및 임범식, 앞의 글, 5~23쪽 참조.

음을 살펴보았다. 당시 한강유역이 삼국이 교쟁하는 전략적 요충이고 삼국 문화가 융합되는 접이지대인 점을 감안해 보면 한강유역을 무대로 한 삼국항쟁과정의 실제 파악과 그 역사적 의미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한강유역 관련 지명에 대한 실제 파악은 물론 당시 백제와 고구려의 두나라가 처해진 대내외적 상황을 함께 검토해 보면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 실상도 함께 파악될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따라서 이 글은 필자가 이미 제시한 한강유역 일시 회복설을 보완하는 입장에서 보다 면밀한 문헌자료의 검토와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475년에서 551년까지 백제의 북방 영토의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성·한산성 등 한강유역과 관련한 지명 기사를 새롭게 접근해 보고, 다음으로 475년 고구려의 함성 침공으로부터 비롯된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과정을 대내외적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어 무령왕대부터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서 한강유역을 회복하는 과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끝으로 성왕 7년(529)에 고구려의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다시 상실한 후 551년에 다시 재탈환하는 과정을 살펴 볼 예정이다. 다만 관련 기록이 절대 부족하고 또한 같은 지명이라도 시기에 따라 다른 곳으로 비정될 수 있기 때문에 추론의 범위를 넘기기 어려운 점에 대하여 후일에 보완을 약속하는 바이다.

Ⅱ. 漢城 關聯 記錄의 檢討

백제가 475년~551년까지 한강유역을 과연 지배하고 있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먼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漢城과 관련한 지명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A-① 봄 정월에 도읍을 옮겼다.

가을 7월 한강 서북에 축성하고 漢城民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 (온조왕 14년)

② 아신왕은 枕流王의 元子로 처음에 漢城別宮에서 출생하였다. (아신왕 즉위년)

③ 가을 9월에 고구려왕 巨璉이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와서 서울 漢城을 포위하였다. (개로왕 21년)

④ 개로가 재위한지 21년에 고구려가 쳐들어와서 漢城을 에워쌌다. (문주왕 즉위년)

- ⑤ 여름 5월에 高木城의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웠고, 또 長嶺城을 축조하여 말갈에 대비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高老가 말갈과 더불어 漢城을 공격하고자 하여 橫岳 아래에 진군하여 주둔하였다. [무령]왕은 군사를 보내 싸워 이를 물리쳤다.(무령왕 7년)
- ⑥ 봄 2월에 [무령]왕이 漢城으로 행차하여 佐平 因友와 達率 沙烏 등에게 명령을 내려 漢北의 주군의 백성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雙峴城을 쌓게 하였다. 3월에 漢城으로부터 돌아왔다.(무령왕 23년)

위의 기사에서 보이는 漢城은(A-①~④) 백제 한성시대의 왕도를 의미하는 용어임에는 틀림이 없다. 여기서 漢城은 『삼국사기』 온조왕 즉위년의 ‘慰禮城’으로, 『日本書紀』 雄略紀 20년에 인용된 『百濟記』에는 ‘尉禮’로도 표기되어 있는데 책계왕 즉위년(286)에 수리한 바 있는 지금의 풍납토성이나 몽촌토성을 지칭한다. 475년 고구려에게 공격을 받아 빼앗긴 백제의 왕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웅진시대에 들어와서 무령왕대에 국한하여 한성이란 지명이 다시 등장하고 있어서(A-⑤, ⑥) 그 진위 여부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그런데 무령왕대에 백제가 고구려와 말갈과 전투한 지점이 高木城·長嶺城·橫岳·雙峴城 등인데 이 전투 지점의 현재 위치를 살펴보면 무령왕대의 한강유역 확보 여부가 밝혀질 수 있을 것이다. 高木城은 온조왕 22년 8월에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여 牛頭城과 함께 축조된 성인데 고구려의 功木達縣으로 지금의 경기도 연천군 연천읍에 비정된다.¹⁰⁾ 長嶺城은 고목성과 함께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여 쌓은 것으로 보아 고목성 남쪽 방면 어느 지점으로 보인다. 당시 말갈의 침입로가 馬首柵¹¹⁾에서 고목성을 거쳐 횡악으로 침입하는 루트이었는데 多婁王代의 말갈 침입루트와 동일하였음을 알 수 있다.¹²⁾ 이를 근거로 하여 무령왕대의 영역이 한성시대의 영역관을 투영한 것이라 하여 부정하는 견해가 있으나,¹³⁾ 이 루트가 말갈의 상시적인 주요 백제 공격로이었음을 감안해 보면 같은 맥락의 기사라 하여 이를 부정할 근거가 될 수는 없다. 다음 橫岳은 『大東地志』 한성부 산수조에 의거해 볼 때 서울 삼각산에 비정된다. 이곳은 負兒嶽으로 칭하기도 하였는데 백제 왕이 자주 전렵행사를 하고 기우제를 지내는 것으로 보아¹⁴⁾ 백제 한성시대 神

10) 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 1976 봄, 120쪽.

11) 무령왕 3년(503)에는 말갈이 마수책을 불태우고 고목성에 침공한 바 있다(『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 3년 9월).

12) 말갈의 마수성 침입기사는 다루왕 3년과 7년이었고 고목성에 침입한 기사는 다루왕 3년이었다.

13) 이도환, 앞의 글(1984), 23~25쪽.

14) 한성시대에 횡악에서 전렵이나 기우제를 지낸 기사는 『삼국사기』 백제본기 다루왕 4년 9월, 진사왕 7년 8월, 아신왕 11년 여름에 보이고 있다.

聖之所의 하나였을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 雙峴城의 위치는 현재 알 수 없지만 아신왕 7년(398) 3월에 축조 기사가 처음 나오고 개로왕 15년(469) 10월에 수리한 기사가 참고된다. 이때에는 쌍현성 수축 기사와 함께 靑木嶺에 큰 목책을 설치하여 북한산성의 군사를 나누어 지키게 한 것으로 보아 북한산성 이북 청목령인 개성 부근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비명 비정과는 달리 웅진으로 천도한 이후에 지명이동설에 따라 한성 주민들은 현재 천안시 직산의 사산성 일대로 사민되었을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¹⁵⁾ 이를 따르는 어렵다고 본다. 475년 고구려군에 의해 한성이 함락되었을 때 한성 주민 8천명이 고구려에 끌려갔기 때문에 한성에 남아 있었던 주민들은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 문주왕 2년(476)에 한성 부근에 거주하고 있던 주민들을 소개시켜 차령산맥 이남의 대두산성으로 사민시켰던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으로 보면 『삼국사기』에 보이는 한성은 백제의 왕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무령왕대에 고구려 및 말갈과 전투한 지점이 한강유역의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백제가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무령왕대의 한성은 『삼국사기』에 의거해 볼 때 지명이동설에 따라 한강 이남 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음으로 漢山城은 어느 곳에 비정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로 하자. 위의 기사에 의하면 한산성 관련 기사는 웅진시대에 동성왕대에 국한해서 나타나고 있어 한성 관련 기사가 집중적으로 나오는 무령왕대와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존의 견해는 한산성과 한성을 같은 곳으로 이해하여 지금의 서울을 지칭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다.¹⁶⁾ 그런데 한산성은 한성과는 달리 시기에 따라 다른 곳으로 비정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삼국사기』 백제본기 동성왕대 이전의 한산(성) 관련 기사와 비교하여 한산성의 위치를 살펴보기로 하자.

B-① [그들은] 드디어 漢山에 이르러 負兒嶽에 올라가 살만한 곳을 바라보았다.(백제 시조 온조왕)

② 가을 7월에 漢山 아래로 나아가 목책을 세우고 慰禮城의 민가들을 옮겼다.(온조

15) 『삼국유사』 권 1, 왕력1 백제, “都慰禮城 一云 蛇川 今稷山.” 직산의 위례성은 웅진 천도 이후 옮겨진 한성으로 보고 진씨의 세력 기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이기백, 앞의 글, 15쪽).

16) 필자도 이러한 인식하에서 논지를 전개해 왔으나(앞의 글(1980), 22~23쪽), 한성과 한산은 서로 다른 지역인 것으로 수정한다. 따라서 동성왕과 무령왕대의 한성 회복 사실은 무령왕과 성왕대 초기대에 국한시켜 이해하고자 한다.

왕 13년)

- ③ 여름 4월에 두 성 [圓山城과 錦峴城]이 항복하자 그 백성들을 漢山 북쪽으로 옮기니 마한은 드디어 멸망하였다.(온조왕 27년)
- ④ 가을 10월에 남옥저의 仇頗解 등 20여 가가 斧壤에 귀순하니 왕이 이들을 받아 들여 漢山 서쪽에 안치하였다.(온조왕 43년)
- ⑤ 왕이 漢山에서 사냥을 하다가 신비로운 사슴을 잡았다.(기루왕 27년)
- ⑥ 여름 4월에 왕이 漢山에서 사냥을 하였다.(개루왕 4년)
- ⑦ 봄 2월에 北漢山城을 쌓았다.(개루왕 5년)
- ⑧ 9월 內臣佐平 優福이 北漢城을 근거로 하여 반란을 일으키자 왕이 군사를 발동하여 토벌하였다.(비류왕 24년)
- ⑨ 서울을 漢山으로 옮겼다.(근초고왕 26년)
- ⑩ 봄 2월에 漢山에 절을 세우고 10인이 승려가 되는 것을 허가하였다.(침류왕 2년)
- ⑪ 가을 11월에 왕은 湍水の 싸움을 보복하려고 친히 군사 7천 명을 거느리고 漢水를 건너 靑木嶺 밑에서 머물렀다. 큰 눈을 만나 병사들이 많이 얼어죽자 군을 돌려 漢山城에 이르러 군사들을 위로하였다.(아신왕 4년)
- ⑫ 3월에 雙峴城을 쌓았다. 가을 8월에 왕이 장차 고구려를 치려고 군사를 내서 漢山 북쪽의 목책에 이르렀다.(아신왕 7년)
- ⑬ 봄 3월에 왕이 漢山에서 사냥을 하였다.(비유왕 29년)

위의 기사에서 보면 A-①의 漢山은 백제가 하남위례성으로 천도를 단행한 온조왕 14년 정월 이전의 기사로서, 서울의 삼각산 일대로 비정되는 負兒嶽(A-①)을 포함하는 북한산지역임을 알 수 있다. 이곳 한산은 백제초기부터 왕도 위례성의 주민들이나, 항복해 온 마한의 圓山城과 錦峴城의 주민들과 南沃沮의 仇頗解 주민들을 사민시켜 조성한 지역으로 [A-②,③,④] 왕도인 하남위례성 즉 한성과는 구별되는 다른 지역인 것으로 볼 수 있다. A-⑤,⑥,⑬의 한산은 황악과 함께 한성시대 백제 왕들의 주요 전렵지이었으며, 이곳 북쪽에 북한산성을 축조하여 [A-⑦,⑧]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한산과 왕도 한성의 북쪽지역을 방어하는 관방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A-⑨의 한산으로 도읍을 옮긴 것은 근초고왕 26년(371) 평양성 전투에서 고구려의 故國原王을 전사시킬 정도로 전승을 거둔 직후에 이루어진 일이다. 이에 대해 근초고왕이 고구려의 내침에 대비하여 연접한 인근 산성으로 대피한 일시적인 조치로 이해하고 있는데,¹⁷⁾ 이 견해를 따르면 한산은 위와 같이 강북 북한성(산) 일대가 아니라 강남 광주 춘궁리 일대로 비정되고 있다. 그런데

17) 이병도, 『국역 삼국사기』, 을유문화사, 1977, 375쪽.

이와는 달리 『三國遺事』에서는 북한(산)성으로 도움을 옮긴 것으로 되어 있다.¹⁸⁾ 이처럼 국초에 한산이 북한산 일대에 있었던 점을 감안해 보면 백제 근초고왕은 371년 전투의 승리로 인하여 고구려의 남평양을 확보함에 따라 북방 경영에 보다 유리한 한강 이북 북한성으로 일시적이거나 도움을 옮긴 것이 아닐까 한다. B-⑩에서는 침류왕 원년에 불교가 수용된 이래 침류왕 2년(385) 한산에 절을 창건하여 불사를 국가적 차원에서 장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한산이 백제의 初傳佛敎의 중심지였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A-⑪, ⑫는 阿莘王代에 고구려 광개토왕대의 적극적인 남진 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한산이 군사상 주요 거점지역으로서 기능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상으로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한산(성)은 한성시대에 왕도 한성과는 구별되는 지역으로 한성과 연결해 있는 왕도권역에 해당하는 지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면 웅진시대에 들어와서 한산(성)은 어느 곳에 해당하는지 『삼국사기』 백제본기를 통해 검토해 보자.

- C-① 가을 9월에 말갈이 漢山城을 습격하여 깨뜨리고 300여 집을 사로잡아 돌아갔다.(동성왕 4년)
- ② 봄에 [동성]왕이 사냥을 나가 漢山城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을 위문하고 10일만에 돌아왔다.(동성왕 5년)
- ③ 漢山 사람으로 고구려로 도망해 들어간 자가 2천 명이었다.(동성왕 21년)

위 기사에 의하면 웅진시대에 한산(성)에 관한 기사는 거의 동성왕대에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동성왕대의 한산(성)은 말갈이 침공해 오는 루트상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C-①], 동성왕이 사냥하는 전렵지로서 일정한 군사가 주둔 [C-②]하고 있었던 지역이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한재로 인하여 굶주린 한산 사람 2천 호가 고구려로 집단 유망해 간 것을 보면 [D-③] 한산은 고구려와 접경지역에 있었음이 짐작된다. 그러면 웅진시대 한산(성)의 위치를 알아보기 위해 동성왕대 당시 축성 지점과 고구려 및 말갈과의 전투를 벌인 지점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동성왕대에 고구려의 침입에 대비하여 축성한 지점은 牛頭城(486), 沙峴城과 耳山城(490), 沙井城(498), 加林城·炭峴(501)이다. 이들 지명은 다소 견해차가 있지만, 그 중 우두성은 『대동지지』 권 5 한산 성지조에 의하면 충남 한산의 乾芝山城에 비정된다. 무령

18) 『삼국유사』 권 2, 기이편, 남부여·전백제 및 왕력편 第十三 근초고왕.

왕이 牛頭城에 이르러 杆率 解明에게 명하여 동성왕을 시해한 昔加 일과를 토벌케 한 일이 참고 된다. 沙峴城은 충남 공주시 정안면 廣停里山城에 비정되는데¹⁹⁾ 이곳은 차령을 넘어 공주지역에 진입하는데 요충지이다. 耳山城은 충북 괴산군 도안면 尼聖山城으로,²⁰⁾ 沙井城은 대전 중구 사정동으로,²¹⁾ 加林城은 충남 부여 임천면의 성흥산성으로,²²⁾ 炭峴은 충남 금산군 진산면 교촌리 숲고개로²³⁾ 각각 비정된다. 이처럼 동성왕대 축성 지점을 살펴보면 충남 한산·공주·부여·금산, 대전, 충북 괴산으로 거의 차령산맥 이남 지역에 걸쳐 분포한 것으로 드러난다.

다음으로 동성왕대에 고구려와 전투를 벌린 지점은 한산성 [C-①, 482], 薩水和 犬牙城(494), 雉壤城(495)으로 나타난다. 484년에는 신라의 북변으로 표기된 母山城 아래에서 신라가 백제의 도움을 받아 고구려를 격퇴한 일이 있었다.²⁴⁾ 그러면 한산성을 제외하고 나제동맹군이 고구려와 전투를 벌린 지점을 살펴보자. 薩水는 『삼국사기』 권 34, 잡지 지리1에 의하면 신라 상주 삼년산군에 속한 薩買縣으로 충북 괴산 청천면이나 청원 미원일대로 비정되며, 犬牙城은 경북 문경 부근으로 보는 설²⁵⁾이 있으나 당시 고구려와 나제동맹군이 충북 청원 미원 - 보은선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보은 일대로 추정된다.²⁶⁾ 母山城은 충북 진천의 대모산성으로, 雉壤城은 근초고왕 24년(369)조에 의거해 볼 때 황해도 白川 지역과 동일한 곳으로 볼 수도 있으나 당시의 전황을 고려해 볼 때 충청도 일대의 어느 지점으로 추정되지만 지명은 미상이다. 이처럼 동성왕대에 나제동맹군이 고구려와 전투를 벌린 지점은 거의 진천-증평-청원 미원-보은선인 중부 내륙지방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정세 여하에 따라 이 교통로를 따라 일진일퇴의 공방전이 벌어지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동성왕대에 고구려의 남진에 대비하기 위해 축조된 산성이나 나제동맹군과 고구려간의 전투 지점이 주로 차령산맥 이남 지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던 점을 고려해 보

19) 井上秀雄, 『朝鮮城郭一覽』 『朝鮮學報』 104, 1982, 150쪽.

20) 민덕식,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1983.

21) 성주탁, 『대전지역 고대산성고』 『백제연구』 5, 1974, 116쪽.

22) 이병도, 앞의 책(1977), 401쪽.

23) 성주탁, 『백제 탄현 소고 -김유신장군의 백제 공격로를 중심으로-』 『백제논총』 2,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0.

24) 『삼국사기』 신라본기 소지마립간 6년 가을 7월.

25) 이병도, 앞의 책(1977), 400쪽.

26) 당시 신라와 고구려간의 전투가 보은 삼년산성을 모기지로 하여 보은-청원-진천선에서 벌어진 점을 고려하면 견아성은 보은 창리의 주성산성이나 산성리의 함림산성에 비정될 수 있다(양기석, 『신라의 청주지역 진출』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 2001, 35쪽).

면 한산(성)은 한성시대와는 달리 충청도 지역에 소재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 기사가 주목된다.

D-① 2월에 大豆山城을 수리하고 漢北의 민호를 이주시켰다.(문주왕 2년)

② 봄에 좌평 解仇가 恩率 燕信과 함께 무리를 모아 大豆城을 근거로 하여 반란을 일으켰다. … (중략)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자 그 처자를 잡아다가 웅진 저자에서 목을 베었다.(삼근왕 2년)

③ 가을 9월에 大豆城을 斗谷으로 옮겼다.(삼근왕 3년)

위의 기사에서 백제가 고구려의 침공으로 어쩔 수 없이 웅진으로 천도함에 따라 한강 이북에 거주하던 민호들을 새로 수리한 대두산성에 옮겨 살게 하였음을 알 수 있다(D-①). 475년 당시 고구려는 주로 한성에 거주하던 주민 8천 명을 데리고 철군한 상태였기 때문에 한성은 거의 폐허화된 상태나 다름이 없었을 것이다. 이에 따라 웅진으로 천도한 문주왕은 왕도 주변의 한산에 살고 있었던 주민들을 대거 대두산성으로 옮겨 새 삶의 터전을 마련토록 조치를 취한 것이다. 三斤王때 대두성에서 兵官佐平 解仇가 恩率 燕信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것으로 보아(D-②) 대두성이 해씨세력의 근거지였을 가능성이 높다. 해씨세력은 진씨세력과 함께 한성시대에 북부에 속하였다. 해씨 세력의 기반이 된 한산의 주민들이 웅진 천도때에 대두성에 함께 사민되었음이 쉽게 짐작된다. D-③에 의하면 해구의 난이 평정된 후에는 대두성의 주민들은 해구의 난에 연루되어 豆谷으로 강제 사민된 것으로 나타난다. 여기서 斗谷은 C-③의 경우처럼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차령산맥 이남의 어느 지점일 것 같으나 분명치 않다.²⁷⁾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대두성이나 두곡은 웅진시대에 사민으로 인하여 그 고유한 명칭 이외에 한산(성)으로도 불리워졌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대두성의 위치가 동성왕대에 한산성의 위치를 비정하는데 관건이 될 수 있는데 이에 관해서는 다음의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록이 참고된다.

E-① 7월에 大豆山城을 축조하였다.(온조왕 27년)

② 가을 7월에 蕩井城을 쌓고 大豆城의 민가들을 나누어 살게 하였다.(온조왕 36년)

27) 두곡을 지금의 공주 두곡역이나 서천의 두곡역으로 보기도 하지만(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 『한국학보』 3, 1976 봄, 130쪽),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임을 감안할 때 이 견해를 받아들이기 어렵다.

위 기사에서 대두산성이 축조된 후에 충남 온양으로 비정²⁸⁾되는 蕩井城이 축성되고 이곳에다 대두성의 민호들을 사민시켜 거주케 한 것으로 보아 두 성은 교통로상 근접한 지역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점을 고려할 때 대두산성은 현재 아산일대로 추정된다.²⁹⁾ 해구의 난 진압된 이후에 대두성의 주민들은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인 두곡으로 강제 사민된 것이다. 따라서 동성왕대의 한산(성)에 관련한 기사들은 무령왕대와는 달리 한강 북쪽 지역이 아니라 차령산맥 이남의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인 한산(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한성과 한산(성)의 용례를 검토한 결과 한성과 한산(성)은 구별하여 사용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한성은 백제의 왕도를 나타낸 것으로 위치상의 변화없이 한강유역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무령왕대의 한성 관련 기사는 그 역사성을 인정해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한산(성)은 한성시대에는 한강 북쪽의 북한산(성) 일대를 의미하다가 웅진 천도 이후 한산의 민호들이 대두산성과 두곡에 사민된 연유로 해서 차령산맥 이남의 고구려와의 접경지역을 한산으로 지칭하였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Ⅲ. 漢江流域 領有權의 變化

1. 475年 高句麗의 漢江流域 支配

475년 장수왕이 이끄는 고구려 3만 대군은 백제의 왕도 한성을 공략하여 왕성을 함락시킨 후 개로왕을 사로잡아 죽이고 8천여 명의 포로를 이끌고 철수하였다. 이로써 백제는 개로왕 뿐 아니라 태후·왕자들이 고구려군에게 몰살당하였고, 왕도 한성을 포함한

28) 탕정성은 현재 아산시 읍내동산성으로 비정된다(유원재, 『백제 탕정성 연구』 『백제논총』 3, 백제문화개발연구원, 1992).

29) 대두산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① 燕岐說(천관우, 『삼한의 국가형성(하)』 『한국학보』 3, 일지사, 1976, 132쪽, ② 牙山 水漢山城說(이기백, 앞의 글, 12쪽), ③ 아산 靈仁山城說(유원재, 앞의 글, 참조) 등이 있다.

한강유역 일대를 모두 고구려에게 상실당하게 되었다. 이에 관한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F-개로가 즉위한지 21년에 고구려가 쳐들어 와서 한성을 에워쌌다. 개로는 성문을 닫고 스스로 굳게 지키면서 文周로 하여금 신라에 구원을 요청하게 하였다. [문주]가 군사 1만 명을 얻어 돌아오니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지만 성은 파괴되고 왕은 죽었으므로 드디어 왕위에 올랐다. … (중략) 겨울 10월에 서울을 熊津으로 옮겼다.(문주왕 즉위년)

위 기사에 의하면 백제가 고구려군의 공격을 받고 한성을 상실한 후 文周가 왕위에 즉위한 후 웅진으로 천도한 내용의 기사가 실려져 있다. 이 기사대로라면 장수왕이 이끄는 3만의 고구려군이 한성을 불시에 공격하여 함락시키고 개로왕을 살해한 다음에 백제 주민 8천 명을 포로로 삼고 곧바로 철수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어 문주가 신라 구원병 1만 명을 데리고 도착하였을 때에는 고구려군이 이미 철수한 뒤였고 왕성 또한 파괴된 상태였다. 문주가 신라 구원병을 데리고 도착하여 왕위에 오른 곳은 한성이었으며 10월에는 웅진으로 천도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어쨌든 475년 고구려의 백제 공격으로 인하여 이후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은 일단 고구려의 지배하로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나아가 『삼국사기』 지리지에 고구려 영역으로 표기되어 있는 기록에 의거하여 이때 고구려는 아산만과 경북 영일만 일대까지 영역을 확대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런데 이러한 견해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백제가 한강유역을 계속 영유하고 있었다는 견해가 있다.³⁰⁾ 그 근거로 고구려군이 한성 공함 직후에 포로 8천 명을 데리고 바로 철수한 점, 한성을 통치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 장치가 없었다는 점, 한성지역이 대부분 초토화되어 고구려가 영토로 삼을 이유가 없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들고 있다.

그러나 475년 고구려군이 한성 함락이라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 최소한의 병력을 남긴 채 대부분의 주력부대는 곧바로 철수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과 중서부지역의 고구려유적이 둘레 200m이하의 것이 전체의 65%를 차지하고 있는 점³¹⁾이 참고 된다. 고구려군이 한성지역을 지키기 위해 주둔한 곳은 몽촌토성과 아차산

30)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백제가 계속 한강유역을 영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견해는 박찬규, 앞의 글, 51~52쪽 및 임범식, 앞의 글, 28쪽을 참조할 것.

31) 심광주,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고구려의 유적과 유물』(고구려연구회 편, 『고구려연구』 12), 학

일대의 보루성인 것 같다. 475년 한성 공함 당시 풍납토성은 사료 F의 ‘성은 파괴되었다’란 기사에서 보듯이 고구려의 공격으로 폐허화된 상태였고 대신 고구려의 군대가 온존 상태가 비교적 양호한 몽촌토성에 일정 기간 동안 주둔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때 몽촌토성에 주둔한 고구려군은 한강 이북의 전략 거점지역과 연결하기 위하여 처음에는 아차산과 용마산, 그리고 양주일대에 걸쳐 극히 일부 지역에 소수의 보루성을 설치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의 보루성유적에서 출토한 고구려토기가 대략 5세기 후엽에서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기 때문이다.³²⁾ 고구려군은 남천한 백제를 공격하기 위해 파죽지세로 금강유역인 청원과 대전지역에까지 남하하여 한동안 금강 對岸의 백제 왕도 웅진을 공제하기 위해 고구려 최전방 기지를 건설한 것으로 보인다.³³⁾ 그러나 남성골유적의 규모가 대략 270~360m 정도에 불과한 것을 미루어 보면 소규모 병력이 주요 교통로를 따라 전략적 요충에 주둔하고 있을 정도의 거점 지배형태를 갖춘 것으로 추정된다. 보루성유적에서 출토된 고구려토기가 양식상 변화양상이 뚜렷하지 않고 거의 6세기 중반대에 집중되어 있는 점이나, 보루성유적 유구의 개축 흔적이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고구려군이 장기간에 주둔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³⁴⁾

그러면 고구려군의 주력부대가 한성 공함 직후에 바로 철수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는 대외적인 요인인 北魏 및 勿吉과의 일련의 긴장 관계에 연유한 것으로 보인다.³⁵⁾ 당시 북위 문명태후는 헌문제의 후궁 청혼 문제를 둘러싸고 고구려 장수왕과 갈등을 야기하고 있었는데 이 와중에서 북위 사신 程駿을 구속하는 사건³⁶⁾에까지 비화되었다. 그리고 당시 송화강 유역의 亞城 일대에서 발흥한 勿吉이 북위에 조공관계를 맺고 여러 차례 고구려와 분쟁을 일으킨 일이 있었다. 延興 연간(471~476)에는 물길의 수로를 통해 백제와

연, 2001, 485쪽.

32) 이 보루성 유적에 대하여 5세기 중반~6세기 중반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최종택,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1998, 140~158쪽), 반면 그 중심연대를 6세기 중반으로 낮추어 보는 견해도 있다(박순발, 『고구려토기의 형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29, 1999, 14~16쪽).

33) 고구려군의 진출루트는 중간지대에서 고구려유적이 아직 발견되지 않고 있어 분명치는 않으나 대략 세가지 루트가 상정된다. 하나는 천안을 거쳐 청원 남성골에 이르는 루트이고, 또 하나는 <중원고구려비>가 있는 國原城에서 금강 지류인 미호천을 따라 청원에 이르는 루트, 또 다른 것은 이천-장호원-진천-청원에 이르는 루트 등이 예상된다.

34) 심광주, 앞의 글(2001), 487쪽.

35) 475년 고구려의 한성 공략전에 대한 대외적 동향에 대해서는 노태돈, 『고구려의 한성 지역 병탄과 그 지배 양태』, 『서울 한강유역을 둘러싼 삼국의 각축』, 2005 서울역사학술대회 발표요지, 2005, 30~33쪽을 참조.

36) 『魏書』 권 60, 程駿傳 및 권 100, 고구려전.

연결하여 고구려를 협공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북위의 지원을 요청한 바 있었다.³⁷⁾ 이러한 북위와 물길의 심상치 않는 공세에 직면한 고구려는 백제에 대해 장기전을 펴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리고 475년 전투가 신라에까지 확대되기를 원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450년 悉直의 고구려 변장 살해사건을 계기로 하여 고구려와 점차 적대관계로 들어선데다가 백제와 연합할 경우 고구려가 단기간에 백제를 응징하려는 소기의 목적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처럼 고구려가 처한 대외적 일련의 긴장관계로 인하여 475년 백제 한성 공략전은 백제를 멸망시켜 영토지배를 도모하기보다는 단기간의 전격적인 작전을 벌려 백제를 제압하는 효과를 겨냥한 작전으로 볼 수 있다.³⁸⁾ 이 작전은 사전에 치밀하게 준비된 것 같다. 道琳이란 승려를 미리 백제에 보내 개로왕에게 신임을 얻은 뒤 대규모 토목공사를 벌리게 하여 백제의 국력을 낭비케 하려는 反間之計가 활용되었다. 공격 지점은 백제의 다른 지역보다도 백제를 단기간에 타격을 입히는데 효과가 큰 왕도 한성을 목표로 하여 전광석화처럼 전개되었다. 북성인 풍납토성을 화공책을 써서 공략하여 이를 초토화하였고 이어 남성인 몽촌토성을 공격하자 개로왕은 도망치다가 고구려군에게 사로잡혀 阿且城으로 끌려가 살해되었다. 개로왕이 살해된 阿且城에는 고구려 병력이 주둔해 있었는데 아차산 보루성유적이 이때부터 설치되어 있었던 것 같다.

고구려가 475년 이후 한동안 한강유역을 영유하고 있었다는 또하나의 근거가 한강유역의 고고 자료인 서울 몽촌토성 유적·구의동유적·아차산 일대의 보루유적과 청원 남성골유적이다. 한강유역과 중서부지역의 고구려 유적 조사 현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989년 夢村土城³⁹⁾ 6차 조사에서는 3.1×3.7m 가량의 범위에서 ㄱ자형의 온돌 고래와 굴뚝시설이 확인되었는데 이러한 온돌건물터는 集安 東大子遺蹟의 고구려 후기 건축지와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1988~89년 조사를 통해 광구장경사이용을 비롯한

37) 『魏書』 권 100, 물길전.

38) 『일본서기』 권 14, 웅략기 20년 겨울조에는 고구려가 한성을 함락시킨 이후 고구려 장군들이 백제를 추격하여 멸망시킬 것을 요청하였으나 장수왕이 백제와 왜와의 관계를 들어 이를 중지시킨 기사가 있다. 물론 왜의 역할이 사실과 다르게 강조된 측면이 있어 사실로 받아들이기는 어렵지만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장수왕의 백제 멸망에 대한 의도를 엿보는 데에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39) 김원용 외, 『몽촌토성－동북지구발굴보고』, 서울대박물관, 1987 ; 『몽촌토성－동남지구발굴조사보고』, 서울대박물관, 1988 ; 『몽촌토성－서남지구발굴조사보고』, 서울대박물관, 1989.

몽촌토성발굴조사단, 『정비·복원을 위한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서』, 1984 ; 『몽촌토성발굴조사보고서』, 1985.

15개 기종 329개체분의 고구려토기가 출토되었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보아 475년 고구려의 한강유역 진출 이후 몽촌토성이 고구려군에 의해 한동안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 유적은 출토된 고구려토기에 의거해 볼 때 475년 한성 함락 무렵의 것으로 편년된다.⁴⁰⁾

九宜洞遺蹟⁴¹⁾은 직경 14.8m, 둘레 46m 정도의 석축을 쌓고 그 내부에 직경 7.6m의 수혈을 파고 건물을 세운 형태이다. 석축부에는 두 개의 雉가 구축되어 있으며, 수혈 내부에는 벽체를 따라 기둥구멍과 배수시설 및 온돌이 확인되었다. 이 유적에서는 많은 양의 토기류와 철기류가 출토되었다. 철기류는 화살촉 1,300여 점을 포함하여 긴 칼·창·도끼 등과 보습·가래·쇠스랑 등과 같은 농구류가 출토되었으며, 토기류는 광구장경사이용류를 포함한 19개 기종 369점이 출토되었다. 이 유적은 1976년과 77년 조사시에 백제 고분으로 보고되었으나 유적의 입지조건이나 규모, 구조 및 형태로 보아 인근 아차산·용마산 일대의 보루성과 같은 성격으로서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시 기능하였던 군사유적이 판명되었다.

고구려 보루유적은 아차산·용마산 일대와 양주군 일대에서 임진강유역에 이르는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⁴²⁾ 아차산과 용마산 일대의 보루성들은 400~500m 정도의 간격으로 능선 줄기를 따라 2줄로 배치되어 있다. 이 보루성은 봉우리를 중심으로 원형 또는 장타원형의 토루를 만들고 토루 밖으로는 다듬은 할석으로 석축을 쌓아 보강한 형태를 하고 있다. 보루에는 雉가 시설되며, 내부의 건물에는 온돌, 배수로, 집수시설을 갖추고 있다. 이 보루성에는 소규모의 병사들이 주둔하고 있어서 행정적 측면보다는 주요 교통로를 확보하기 위해 단기간의 군사적 거점 기능을 가진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를 통해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의 일면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이 유적은 구의동유적과 함께 5세기 중엽~6세기 중엽으로 보고 중심연대를 5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⁴³⁾와 5세기 후반~6세기 중엽으로 보고 중심연대를 6세기 중엽으로 보는 견해⁴⁴⁾가 있다.

청원 남성골유적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 부강리 남성골의 해발 106m의 야산 정상부와

40) 김원용·임효재·박순발, 『몽촌토성－동남지구발굴조사보고』, 서울대박물관, 1988.

41) 화양지구발굴조사단, 『화양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 1977 : 『화양지구 유적발굴조사보고(제2차)』, 1977.

최종택, 「한강유역 고구려토기 연구」 『한국고고학보』 33, 1995, 34~36쪽 : 「고고학상으로 본 고구려의 한강유역진출과 백제」 『백제연구』 28, 1998, 141~146쪽.

42) 남한지역의 고구려 유적 분포에 대해서는 심광주, 앞의 글(2001), 453~492쪽을 참조.

43) 최종택, 「한강유역 고구려토기 연구」 『한국고고학보』 33, 1995, 69~70쪽.

44) 박순발, 「고구려토기의 형성에 대하여」 『백제연구』 29, 1999, 14~16쪽.

사면에 걸쳐 둘레 270~360m의 산성유적이다. 최근 발굴조사 결과⁴⁵⁾ 유적의 양상은 환호, 목책, 성벽 등이 이중 방어구조로 이루어졌으며, 그 가운데 굴림주건물터와 원뿔대 모양의 저장구덩이, 온돌건물지, 가마터 등의 유구가 확인되었다. 외곽 내부의 구들집터는 고구려식 온돌유적이며 가마터에서는 고구려 토기류가 출토되었다. 토기류는 고배와 개배편의 백제토기가 소수 발견되며, 아울러 甕類, 장동호류, 호류, 시루류, 동이류 등 고구려계 토기류가 함께 출토되었다. 이 토기는 사립이 혼입되어 니질의 태토를 사용한 점, 사이장경호·사이장경옹류와 같은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성에서 출토한 토기와는 차이가 있다. 철기류는 철촉과 주조철부가 대부분을 차지하는데 사두형 철촉은 아차산 4보루유적, 중국 환인의 五女山城과 집안의 丸都山城 등과 관련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 유적은 고구려토기 편년에 따라 아차산보루유적보다 빠른 5세기 후반으로 편년된다.

그밖에 진천 대모산성에서 고구려토기인 흑색마연토기 1점이 출토되었고,⁴⁶⁾ 대전 월평산성에서 직구호와 장동호 등 고구려토기편이 출토되어⁴⁷⁾ 고구려 세력의 南限을 시사해 주고 있으나 청원 남성골유적을 제외하고는 수량이 적어 유적의 성격과 편년을 규명하는 데에는 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이상으로 고구려는 475년 한성 공략전의 승리로 말미암아 동성왕대까지 한동안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을 장악하였고 나아가 아산만 일대까지 세력권을 형성하게 되었다. 『삼국사기』 35권과 37권 지리지에 고구려의 영역으로 표기된 漢州 관할의 군현들은 사실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일시적이거나 고구려 영유기의 사정을 반영한 기록이라 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중서부지역에 있어서 고구려 세력의 南限은 충주(國原城), 괴산(仍斤內郡), 진천(今勿奴郡), 안성(皆次山郡), 직산(蛇山縣), 화성(唐城郡)에 걸쳐 있어 대략 차령산맥을 경계로 하여 남천한 백제와 대치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475년 고구려가 영유한 한강유역과 중서부지역을 어떠한 형태로 지배하였을까? 물론 이를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문헌 기록이나 고고 자료는 거의 없는 편이다. 위의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처럼 군현 설치를 통해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형태의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통치 방식이 영역 지배보다는 母基地에서 교통로를 따라 교두보나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적 거점지배방식을 취한 것으로

45) 차용걸 외, 『청원 남성골 고구려유적』, 충북대박물관 조사보고 제104책, 2004.

46) 차용걸·노병식, 『진천 대모산성 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 호서문화연구소, 1996, 84쪽.

47) 이한상, 「대전 월평산성 출토 고구려토기」, 『학산 김정학박사 송수기념논총 한국고대사와 고고학』, 2000, 605~622쪽.

보이기 때문이다. 즉 소규모 병력으로 거점을 확보하면서 유사시 기마병에 의한 신속한 공격이 가능한 보루 위주의 공격형 관방체제를 구축한 것으로 보인다. 한강유역의 고구려 보루성유적들이 比高 200m 이하인 경우가 68%를 차지하고 있을 정도로 대부분 소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⁴⁸⁾ 이에 비하여 황해도 일대에는 대규모의 고구려성들이 분포하고 있어 대조를 이룬다. 장수산성을 중심으로 수양산성, 비봉산성 등 둘레 2km~10km에 이르는 대규모의 성들이 20~40km 정도의 간격으로 배치되어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성들은 군사적 기능 이외에 행정적 기능을 수행하는 행정 치소로서 기능하였을 것이다. 이곳에는 守事라는 관리가 파견되어 주요 교통로상에 있는 여러 작은 성이나 보루성을 통제하여 해당 관할지역 내의 치안 유지는 물론 백제와 신라지역에서의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守事は <중원고구려비>에 보이는 古牟婁城守事나 <冉牟碑>에 보이는 北扶餘守事와 같이 일정 방면의 교통로를 통해 주변 세력을 통할하는 지방관 겸 군사지휘관의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중원고구려비>에 의하면 고모루성수사는 于伐城-國原城-古牟婁城으로 연결되는 종적인 관방체계를 지휘하는 위치에 있었을 것으로 본 견해가 참고된다.⁴⁹⁾ <광개토왕릉비>에도 고모루성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아 고모루성수사와 같은 대규모 성을 관리하는 지방관이 한성으로 통하는 임진강과 한강유역의 여러 작은 보루성을 관할하는 형태로 한강유역을 통치하였을 것이다. 한강유역과 중서부지역에 군사적인 성격의 청원 남성골유적과 같은 작은 성과 보루성유적을 제외하고 행정적 기능을 반영해 주는 유물 유적이 거의 발견되지 않는 것도 이러한 고구려의 거점지배방식에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한다. 한성의 경우 475년 한성 공략전으로 인해 왕도의 기반시설이 거의 황폐화되었고, 476년 한강 북쪽의 한산 주민들을 대규모로 아산의 대두산성으로 사민시킨 결과 거의 왕도의 기능이 상실된 폐허나 다름없는 상태에 이르렀을 것이다. 고구려가 475년 한성을 영유하고 있었다고 이미 전쟁으로 폐허화된 백제의 옛 도읍지 한성을 지배하기 위해 행정치소를 설치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다만 소규모의 병력을 전략적 거점지역에 주둔시켜 관할지역 내의 치안 유지와 예상되는 백제의 반격에 대해 즉각적인 초동 대처를 도모하려 한 것이 아닐까 한다.

48) 심광주, 앞의 글(2001), 485~487쪽.

49) 서영일, 『중원고구려비에 나타난 고구려 성과 관방체계』 『중원고구려비연구』(고구려연구회 편, 『고구려연구 10』, 학연, 2000, 509~511쪽.

2. 武寧王代의 漢城 回復

무령왕대에 들어와 고구려와 전투를 벌이거나 또는 한성과 관련한 기사를 『삼국사기』 백제본기의 기사에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G-① (즉위년) 겨울 11월에 達率 優永을 보내 군사 5천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水谷城을 습격하였다.
- ② (2년) 겨울 11월에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변경을 쳤다.
- ③ (3년) 가을 9월에 말갈이 馬首柵을 불태우고 高木城으로 나아가 공격하였다. 왕은 군사 5천명을 보내 이를 쳐서 물리쳤다.
- ④ (6년) 가을 7월에 말갈이 쳐들어와서 高木城을 깨뜨리고 6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 ⑤ (7년) 여름 5월에 고목성의 남쪽에 두 개의 목책을 세웠고, 또 長嶺城을 축조하여 말갈에 대비하였다.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高老가 말갈과 함께 漢城을 공격하고자 하여 橫岳 아래에 진군하여 주둔하였다. 왕은 군사를 보내 싸워 이를 물리쳤다.
- ⑥ (12년) 가을 9월에 고구려가 加弗城을 습격하여 빼앗고, 군사를 옮겨 圓山城을 깨뜨렸는데 죽이거나 약탈한 것이 매우 많았다. 왕이 용맹스러운 기병 3천 명을 거느리고 葦川의 북쪽에서 싸웠다. 고구려사람들은 왕의 군사가 적은 것으로 보고 만만히 여겨 陣을 치지 않았다. 왕은 기묘한 계책을 내어 급히 쳐서 이를 크게 격파하였다.
- ⑦ (21년) 이보다 앞서 [백제]는 고구려에게 격파당하여 쇠약해진지가 여러 해였다. 이때에 이르러 表를 올려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비로소 우호를 통하였으며 다시 강국이 되었다.”고 일컬었다.
- ⑧ (23년) 봄 2월에 왕이 漢城으로 행차하여 佐平 因友와 達率 沙烏 등에게 명령을 내려 漢北의 주군의 백성으로 나이 15세 이상을 징발하여 雙峴城을 쌓게 하였다. 3월에 漢城으로부터 돌아왔다.

위의 기사에서 두드러진 현상은 백제가 무령왕대(501~523)에 이르러 종전과는 달리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고 있다는 점이다. 웅진 천도 후 백제는 내부의 정정 불안으로 인하여 고구려에 대해 한동안 수세적 입장에 놓여 있었다. 東城王代(479~501)는 고구려가 세력균형을 위해 신라와 백제를 교대로 침공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494년 고구려가 薩水原-犬牙城에서 신라를 포위 공격을 한 일과 495년 고구려가 백

제의 雉壤城에 침공해 들어온 일이 이러한 사례에 해당한다. 이러한 백제는 고구려의 파상적인 남진 공세에 대하여 신라와 공동으로 대응하면서 기존의 동맹관계를 군사동맹과 결혼관계로 더욱 발전시켜 나갔다. 이로써 동성왕대의 나제 양국은 고구려의 남진을 충북 진천 [모산성]-청원 미원 [살수원]-보은 [견아성]선에서 어느 정도 저지할 수 있었다.

그런데 무령왕대에 들어와서는 삼국 관계는 다소 변화된 양상을 맞게 된다. 신라는 지증왕의 즉위를 계기로 대외 문제보다는 대내적 체제 정비에 몰두하게 되었다. 순장의 금지와 우경의 실시(502), 신라 국호의 제정과 중국식 왕호의 사용(503), 주군제 실시(505) 등 일련의 제도 정비에 박차를 가하던 시기였다. 따라서 신라는 대고구려 관계에서 소극적인 자세로 전환하게 되었다. 반면 백제는 남진 이후 대내적 정정 불안으로 인해 한동안 고구려에 대해 수세적이었던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이제부터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무령왕 2년(502) 11월 달솔 우영(優永)이 거느린 5천의 백제군이 고구려의 水谷城을 선제공격한 것이다[G-①, ②].⁵⁰⁾ 백제의 이러한 자세 변화는 백가의 난을 평정한 이후 전쟁을 통해 귀족세력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의자왕이 즉위초의 정변을 수습한 후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하여 獼猴城 등 40여 성을 빼앗은 사례가 이에 해당된다.⁵¹⁾

이러한 백제의 공세에 대해 고구려는 주된 공격의 목표를 신라에서 백제로 바꿔 대대적인 반격에 나섰다. 고구려는 부용세력인 말갈까지 동원하여 백제의 동·북쪽 변경지대인 마수성과 고목성에 침입하여 백제와 치열한 공방전을 벌였다. 즉 503년 9월에 말갈이 馬首柵을 태우고 高木城에 침공해 오자 백제는 5천의 군사를 보내 이를 격퇴시켰다[G-③]. 그 뒤 506년 7월에 말갈이 다시 고목성에 쳐들어와서 6백여 명의 백성들에 대해 살상을 가하자 이듬해 백제는 고목성 남쪽에 두 개의 성책을 세우고 또한 長嶺城을 축조하여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였다[G-⑤]. 이어 고구려의 장군 高老가 말갈과 함께 漢城을 치려고 橫岳에 주둔하고 있을 때 백제가 이를 격퇴하였다[G-⑤]. 512년 9월에는 고구려가 加弗城과 圓山城을 차례로 공파하여 살육을 자행하고 있을 때 백제가 이를 葦川 북쪽에서 대파시킨 바 있었다[G-⑥]. 이후 고구려의 백제 공격이 한동안 주춤하게 되자 무령

50) 사료 ①은 고구려본기에 문자명왕 12년(503)조에 보이고 있고, 사료 ②는 문자명왕 11년(502)년조에 각각 기재되어 있어 사료 ①이 고구려본기의 기사보다 2년 빠르게 기재되어 있다. 두 기사는 같은 11월에 벌어진 전투였고,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한 면에서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사료 ①과 ②의 기사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사료 ②가 고구려본기와 같은 시기로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 사료 ①은 502년 기사로 수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여겨진다.

51) 『삼국사기』 백제본기 의자왕 2년 가을 7월.

왕은 한성 지역에 대한 경영에 착수하게 되었다. 무령왕 말년인 523년 2월에 무령왕은 한성에 위무적인 성격을 가진 순행을 하면서 좌평 因友와 달솔 沙烏 등에게 명하여 雙峴城을 쌓게 한 다음 왕도로 귀환하였다[G-⑧].

그런데 무령왕대에 들어와서 주목되는 현상은 백제와 고구려군이 한강 유역과 그 북쪽인 임진강과 예성강 일대를 중심으로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점이다. 위 사료 G에 보이는 지명은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다음과 같이 비정할 수 있다. 水谷城은 현재 황해도 신계 지역으로 비정되며, 馬首柵은 고구려의 馬忽郡으로 경기도 포천 일대이며, 高木城과 長嶺城은 연천 일대로, 漢城과 橫岳은 서울지역으로 각각 비정된다. G-⑥에 보이는 加弗城, 圓山城과 葦川은 서로 인접한 지역으로 보이는데⁵²⁾ 어느 곳인지 알 수가 없다. 이처럼 무령왕 5년까지는 백제와 고구려 및 말갈간의 전투가 대략 서울과 그 북쪽 임진강과 예성강 일대에서 벌어지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대의 기사에 대하여 475~551년까지 고구려의 한강유역 지배를 신뢰하는 입장에서 부정하는 견해가 지배적이지만 앞 장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부정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 기사는 고구려본기 문자명왕대의 기사에서도 함께 기재되어 있는데 고구려본기의 대백제전투 기사가 모두 백제본기에 의거한 것이 입증되어야 부정하는 논리가 성립될 수 있다. 그리고 백제본기의 다른 기사는 신뢰하면서도 이 시기의 영역관련 기사만을 부정하는 입장은 엄정한 사료 비판에도 어긋나는 일이다. 그리고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한성은 백제본기의 용례에 의거해 볼 때 백제의 왕도를 지칭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한성이 함락당한 이후 한강유역 일대는 475년의 전쟁으로 파괴되고 민호의 사민으로 거의 도성 기능을 상실한 지역이 되었으며, 이곳에는 고구려군이 주둔하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소규모의 고구려군이 성이나 보루성에 주둔하여 치안 유지와 백제 침입에 대비하는 정도에 불과한 것이었다. 따라서 이곳은 전술적으로 경기병을 동원하여 고구려 및 말갈군과 단기전을 치르는 교쟁지역이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주목되는 현상은 고구려 및 말갈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동북쪽 변경지역의 요충에다 축성 사업을 벌이고 있는 점이다. 무령왕 7년(507)에 말갈의 상시적인 침입로인 고목성에 두 개의 목책을 설치하고 이어 그 부근 장령성에 성곽을 축조한 것이다

52) 가불성의 위치는 ① 경기도 加平說(김종권, 『완역 삼국사기』, 선진문화사, 1963, 432쪽), ② 충북 沃川說(『조선전사』 3 중세편,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1, 157쪽)이 있으며, 원산성은 ① 경북 예천 용궁설(천관우, 앞의 글, 128쪽), ② 충남 금산군 북부면 마전리설(『조선전사』 3, 157쪽)이 있다. 그리고 위천을 서산으로 보는 설도 있다(김종권, 앞의 책, 432쪽). 이 3곳은 인접한 지역이기 때문에 어느 설을 취해도 거리상의 문제가 생긴다.

[G-⑤]. 무령왕 23년(523)에는 국가적인 관심하에서 쌍현성을 대대적으로 축조하는 공역을 벌리고 있다[G-⑧]. 축성 대상지역은 연천과 개성 이남 지역으로 백제의 북쪽과 동북쪽의 변경 지역이었다. 이러한 현상은 507년 이전과는 다른 면을 보여준다. 예성강 유역인 수곡성에서 전투가 벌어졌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백제의 영역으로 간주할 수는 없다. 475년 이후 예성강유역 이남지역에서 차령산맥 이북 지방은 당시 삼국이 정세 여하에 따라 백제와 고구려간에 빈번히 전투를 벌리던 교쟁지역이었다. 그러나 변경 지역에 성곽을 축조하는 일은 영역화 작업에 중요한 요소가 된다. 507년의 축성 사업은 백제가 고목성 일대를 영역화하는 단초적 의미에서 주목된다.⁵³⁾ 백제는 변경 요충에다 축성 사업을 벌려 산성 중심의 지배 거점을 확보하고 이를 군사적 성격을 가진 지방 행정조직으로 개편하는 동시에 이 지역에서 강고하게 잔존해 오던 재지세력의 세력 기반을 해체시키는 의미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507년에 곧바로 고구려 및 이에 부응된 말갈의 침입을 받는 것으로 보아 동북방면의 영역화작업은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다. 512년에도 고구려군과 전투를 치루고 있다. 어쨌든 507년이 계기가 되어 한강 동북쪽의 변경지역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착수하는 단초가 된 것이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523년에는 무령왕 자신이 한성에 행차하여 한강 북쪽의 요충인 쌍현성을 축성함으로써 한강 유역에 대한 안정적인 지배를 관철시킬 수 있게 된 것이다. 한성에 행차한다는 것은 한성이 이제 명실공히 백제의 영역이 되었음을 대내외적으로 천명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백제가 475년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 50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강유역에 진출하여 이에 대한 영역화 작업을 점진적으로 착수하였다가 523년 전후에는 한강유역을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면 무령왕대에 이르러 다시 한성 고토를 회복하게 된 배경은 무엇일까? 대내적으로 무령왕대에는 신진세력의 증대된 권한을 견제하면서 신·구세력간의 세력균형을 유지하는 가운데 왕권의 안정을 추구해 나갔다. 이러한 정치적 배경하에서 왕족을 중용하여 친정체제의 기반을 다지고 지방의 거점지역인 22개의 檐魯에 ‘子弟宗族’으로 지칭되는 왕족들을 파견하여 지방에 대한 중앙 통제력을 강화하였다. 그리고 최고 관등인 좌평제를 개편하여 확대된 신·구귀족세력들을 통제해 나갔다. 또한 무령왕 10년(510)에는 제방의 축조와 정비 및 유민 귀농책을 실시하여 호남평야의 개발과 경제 기반을 확충하고자 하였다. 대외적으로는 512년 이래 중국 남조 梁에 사신을 보내 국교를 강화하여 왕

53) 신현중, 『6세기 전반 백제의 한강유역 진출과 대외관계』, 서울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96, 28쪽.

권의 정통성 확보는 물론 양의 선진문물을 적극 수용하여 대내적 체제 정비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 결과 백제 무령왕은 521년 양으로부터 寧東大將軍의 관작을 받게 되는 등 고구려와 대등한 지위를 인정받았다. 이때 梁에 보낸 국서에서 백제가 천도 후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제 고구려를 공파하여 다시 강국이 되었음을 밝히고 있다[G-⑦]. 이러한 대내외적 안정화 시책을 통해 백제 국력이 어느 정도 회복하게 되었고 이것이 밑바탕이 되어 한강유역을 회복하게 된 배경이 아닐까 한다.

3. 聖王代의 漢城 喪失과 回復

성왕대에는 정세 변화 여하에 따라 한강유역의 영유권에 변화가 생기는데 한강유역이 재탈환되는 551년까지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타난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H-① (즉위년) 가을 8월에 고구려 군사가 溟水에 이르렀다. 왕은 左將 志忠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거느리고 나아가 싸우게 하여 이를 물리쳤다.
- ② (7년) 겨울 10월에 興安 [안장왕]이 몸소 군사를 거느리고 쳐들어와서 북쪽 변경의 穴城을 함락하였다. [왕]은 좌평 燕謨에게 명령하여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五谷의 별관에서 막아 싸웠으나 이기지 못하였는데 죽은 자가 2천여 명이 되었다.
- ③ 王逢縣 또는 皆伯이라 한다. 漢氏 미녀가 安藏王을 만난 곳이므로 王逢이라고 이름하였다.(권 37, 지리4 漢山州)
達乙省縣 미녀가 높은 산마루에서 봉화를 피워 안장왕을 맞이한 곳이므로 후에 高峰이라고 이름하였다.(권 37, 지리4 한산주)
- ④ (18년) 가을 9월에 왕은 장군 燕會에게 명령하여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게 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 ⑤ (26년) 봄 정월에 고구려 왕 平成 [양원왕]이 濊와 모의하여 漢北의 獨山城을 공격하였다. 왕은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하였다. 신라 왕은 장군 朱珍에게 명령하여 갑옷 입은 군사 3천 명을 거느리고 떠나게 하였다. 주진이 밤낮으로 길을 가서 독산성 아래에 이르러 고구려 군사와 한번 싸워 크게 격파하였다.
- ⑥ (28년) 봄 정월 왕은 장군 達己를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 道薩城을 공격하여 빼앗았다. 3월에 고구려 군사가 金峴城을 포위하였다.

위의 기사에서 사료 H-①은 聖王 즉위년에 고구려가 침입해 오자 백제가 溟水에서 고구려군을 물리친 기사인데 이때 백제가 동원한 병력수가 무려 1만 명 정도인 것을 감안해 보면 대규모 전투였음을 알 수 있다. 여기서 고구려와 전투를 벌인 패수는 여러 견해가 있지만 성왕 7년(529)에 고구려와 접전을 벌린 혈성과 오곡이 한강 이북 지역이고 보면 일단 예성강 일대로 비정된다. 다음 H-②의 북쪽 변경으로 표기된 교전지점 穴城은 고구려의 穴口郡으로 현재의 강화군에 비정되며, 五谷은 고구려의 五谷郡으로 현재의 황해도 서흥으로 비정된다. 이 기사는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이는 고구려의 王逢縣과 達乙省縣에 대한 유래를 기록한 사료 H-③와 관련 있어 보인다. 왕봉현은 현재 경기도 고양시 행주 내·외동이고 달을성현은 현재의 고양시 관산동에 비정되는데 고구려 안장왕과 한씨 미녀와의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이 기사는 安藏王때(519~530) 고구려군이 고양시 일대에 군사적으로 진출하는 과정을 모티브로 해서 생성된 설화로 볼 수 있다. 두 기사는 안장왕때의 일로서 시기가 일치하고 또 혈성과 왕봉현이 서로 인접한 지역이라는 점에서 같은 맥락의 기사일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정이 옳다면 529년 사건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즉 성왕 7년(529) 10월에 안장왕이 이끄는 고구려가 대군을 세 방면으로 나누어 백제에 침공하였는데, 본진은 오곡원(서흥) 방면으로 진격해 들어가고, 별동부대는 백제의 혈성(강화)과 왕봉현(고양시 일대)에 각각 진격해 들어가 측면 돌파를 시도하자 이에 좌평 燕謨가 거느린 백제의 3만 대군은 오곡원에서 고구려군에게 대패하여 2천여 명의 사상자를 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529년의 전역에는 3만에 이르는 백제군이 동원되어 2천여 명의 사상자가 난 것으로 보아 고구려와 백제 두 나라 간의 벌어진 대규모 전투였음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백제의 완패로 끝난 것이다. 전투지점이 거의 서울 일원에서 벌어진 만큼 백제는 이 전투로 한강유역 일대를 고구려에게 다시 빼앗겼을 가능성이 다음의 사료에서 엿보인다.

다음 사료 H-④는 사비천도(538) 직후에 벌어진 전투인데 백제가 고구려의 牛山城을 공격하였으나 이기지 못하였다. 여기서 우산성의 ‘우산’이란 명칭은 여러 곳이 있어 위치는 미상이지만 고구려의 牛峯縣으로 보아 현재 황해도 금천면 우봉면에 비정하는 견해⁵⁴⁾가 있다. 그런데 우산성을 황해도 금천으로 볼 경우 다음의 독산성 전투기사와 지리적으로 맞지 않게 된다. 사료 H-⑤ 548년의 獨山城 전투기사는 『일본서기』 권 19 흠명기 9년 4월조의 馬津城 전투에 인용된 註에 “정월辛丑에 고구려가 군대를 이끌고 馬津城

54) 김병남, 「백제 성왕대의 북방 영역 변화」 『한국사연구』 120, 2003, 68쪽.

을 포위하였다.”고 기록한 마진성과 같은 지역으로 볼 수 있다. 백제 멸망 후 당이 설치한 주현명에 “馬津縣本孤山”이라 한 것으로 보면 ‘馬津’은 ‘孤山’ 즉 ‘獨山’과 같은 명칭임을 알 수 있다. 연대가 동일하고 명칭도 같기 때문에 이 기사는 『일본서기』의 마진성 전투기사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독산성은 현재 충남 예산에 비정된다. 다만 H-⑤에서 ‘漢北’으로 표기하고 있어서 한강이북지역으로 이해하기 쉽다. 그러나 성왕 26년 이후 나제동맹군이 고구려군의 침입에 대하여 차령산맥 일대 충청도 일원에서 공동 작전을 수행한 사실을 고려해 보면 독산성은 예산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면 ‘漢北’이란 표기는 한강유역에서 아산으로 移置된 한산의 북쪽지방이란 뜻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이 전투에서 백제는 신라에 구원 요청을 하여 고구려와 이에 부응된 말갈의 침입을 격퇴시키고 있다.

사료 H-⑥의 고구려의 道薩城과 백제의 金峴城에서 러제 양국의 군대가 공방전을 벌이는 기사이다. 이후에 진전된 기사가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1년(550)에 나온다. 이에 의하면 신라는 두나라가 지친 틈을 타서 이찬 異斯夫가 이끄는 신라군이 두 성을 공취하는 것으로 마무리된다. 도살성과 금현성의 위치에 대해서는 많은 이설이 있으나 도살성은 증평의 이성산성으로,⁵⁵⁾ 금현성은 충남 연기군 전동면의 금성산성에⁵⁶⁾ 비정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보듯이 성왕대에 백제와 고구려가 전투한 지점을 살펴보면 패수(예성강), 혈성(강화), 오곡(서흥), 왕봉현과 달을성현(고양시), 우산성(우봉?), 독산성(예산), 도살성(증평), 금현성(연기)로 나타난다. 그런데 540년의 우산성 전투는 그 위치가 불명이지만 529

55) 도살성의 위치에 대하여 ① 음성의 백마령설(신채호, 『조선상고사』 I, 동서문고, 1977, 270~272쪽), ② 천안설(이병도, 앞의 책, 1977, 57쪽), ③ 충북 괴산군 증평의 尼聖山城과 진천군 초평면 영구리의 頭陀山城 일대로 보는 견해(민덕식, 『고구려 도서현성고』 『사학연구』 36, 1983, 9쪽) 등이 있다. 그런데 천안지역은 고려 태조때 비로소 천안도독부가 설치된 곳이었고, 백제 성왕때 한강하류 지역에 진출하는 데 전략적 요지이기 때문에 신라가 이를 공취할 경우 백제의 반발이 크게 예상된다. 또한 신라의 화령로와 추풍령로를 통한 북진이 청주지역을 경유한 점을 고려할 때 증평 이성산성설이 보다 설득력을 가진다. 道薩城은 고구려가 현재 충북 괴산군 증평이나 청안 일대에 설치한 道西縣의 관할이었다.

56) 金峴城의 위치를 ① 충남 연기군 전의의 金城山, 金伊山城說(이병도, 앞의 책, 57쪽), ② 고구려때 今勿奴郡으로 보아 鎭川說(민덕식, 앞의 글, 47쪽) 등이 있으나, 진천은 6세기 중반 당시 고구려의 영역이었기 때문에 적당치 않다. 연기군 전동면의 金城山城은 전의에서 공주로 통하는 길목에 위치한 금성산(424m)에 있는 석축산성으로 백제계 토기편과 기와편이 수습되고 있는데, 증평에서 청원 옥산을 거쳐 금강의 한 지류인 미호천변을 따라 연결되는 통로가 있다. 최근에는 인근 지역인 청원 남성골유적에서 고구려 유물과 유적이 조사되기도 하였다.

년 오곡전투 이전은 모두 한강유역이나 임진강유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548년 이후의 전투는 차령산맥 일대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백제가 무령왕대부터 한강유역을 일시적으로 영유하다가 성왕 7년(529)을 계기로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이후 고구려와 백제간의 전투는 주로 한강 이남지역에서 전개된 것이 아닐까 한다. 이런 면에서 다소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 529년 오곡전투를 계기로 한강유역을 다시 상실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⁵⁷⁾에 주목하고 싶다.

다음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는 551년의 북진기사이다. 이에 관한 사료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I-① (진흥)왕이 居柒夫 등에게 명하여 고구려에 침입케 하였는데, 이긴 기세를 타고 10개 군을 빼앗았다. (『삼국사기』 신라본기 진흥왕 12년)
- ② 12년 신미에 왕이 居柒夫와 대각찬 구진 … (중략) 등 8장군에게 명하여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게 하였다. 백제 사람들이 먼저 평양을 격파하고 거칠부 등은 승리의 기세를 타고 죽령 바깥 高峴 이내의 10군을 취하였다. 이 때 惠亮法師가 자기의 무리를 이끌고 길거리로 나오니 거칠부가 말에서 내려 군례로 인사를 올리고 앞으로 나가 말하기를 …(중략) 법사가 대답하기를,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어지러워 멸망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바라건대 나를 그대 나라로 데려가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동 열전4 거칠부)
- ③ 이해 백제의 聖明王이 친히 자국과 2국 [2국은 신라와 임나를 말한다] 의 군사를 거느리고 고구려를 쳐 漢城을 차지하였다. 또 진군하여 平壤을 토벌하였다. 모두 6군으로 마침내 故地를 회복하였다.(『일본서기』 권 19, 흠명 12년)
- ④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쪽의 변경을 빼앗아 新州를 설치하였다. 겨울 10월에 왕이 딸을 신라에 시집보냈다.(『삼국사기』 백제본기 성왕 31년)
- ⑤ 이해 백제가 漢城과 平壤을 버렸다. 신라가 이로 말미암아 漢城에 들어가 살았다. 현재 신라의 牛頭方·尼彌方이다.[지명은 자세치 않다] (『일본서기』 권 19, 흠명 13년)

위 기사는 551년 나제동맹군의 북진과 552~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에 관한 기록이다. 551~553년에 걸쳐 전개된 한강유역 확보 과정에 관한 기사는 사건 전개 시간이나 지명 등에 대하여 많은 錯綜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⁵⁸⁾ 551년 북진의 주동 역할을

57) 『조선전사』 3, 1991, 158~159쪽 : 김영관, 「백제의 웅진천도 배경과 한성경영」 『충북사학』, 11·12 합집, 2000, 75~91쪽. 한편 『조선전사』에서는 538년 성왕의 사비 천도를 529년 한강유역 상실에 따른 대응조치 일환으로 파악하고 있다(앞 책, 159쪽).

한 백제측 기록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상태지만 『일본서기』 흠명기에 백제측의 입장이 상당 부분 반영되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신라본기에는 거칠부와 해량의 관계나 죽령 바깥 高峴 이내의 10군을 공취한 사실 등 주로 신라측 입장이 반영된 기사로 구성되어 있다. 관련 기사에 대한 사료 비판을 통한 한강유역의 확보과정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

551년 북진때 백제가 주동 역할을 한 것은 일본측 기록과 신라측 사료인 I-②로 미루어 보아 분명한 것 같다. 다만 이때 백제가 공취한 지역이 한성과 평양지역이었음은 I-③, ⑤를 통해서 알 수 있다. I-②에서는 백제가 평양을 먼저 공취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일본서기』에는 이와는 달리 백제가 먼저 한성을 공취하고 난 다음에 평양을 점령한 것으로 되어 있다. 신라인들이 한성을 평양으로 혼용하였거나 아니면 백제의 북진의 최종 단계인 평양 점령 사실을 포괄적으로 기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백제가 평양을 점령하는 과정은 『일본서기』 권 19, 흠명기 14년(553) 10월조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는 것임이 밝혀졌다.⁵⁹⁾ 어쨌든 위의 『일본서기』 기사에 의거해 볼 때 한성과 평양은 확연히 구별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한성은 백제의 舊都임에는 틀림없지만 평양을 어디로 보느냐가 문제가 된다. 『삼국사기』 권 35, 지리2에는 漢陽郡을 고구려의 북한산군으로 비정하고 지금의 楊州 옛터였음을 밝히고 있다. 아울러 지리지 찬자는 고구려의 북한산군이 평양이라는 일설을 소개하고 있다. 이 설을 취할 경우 한성과 평양은 한강유역의 좁은 범위에 국한되며 또한 신라가 한강유역을 다시 공취할 때(I-⑤) 평양이 제외되어 신주의 설치 범위가 한성지역으로 축소되고 만다. 또 하나는 평양을 고구려의 남평양으로 보고 황해도 재령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⁶⁰⁾ 이 견해를 따르면 고토를 회복하였다는 6군의 땅은 『삼국사기』 백제본기 무령왕대부터 성왕 7년(529)까지 나타나는 예성강유역과 관련한 지명에 대한 미스테리를 해결할 수 있는 단서가 찾아진다. 6군의 땅을 남평양 즉 재령설로 이해한다면 경덕왕 21년(762) 溟西지방에 설치한 6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오곡은 서흥, 鵠巖은 봉산, 한성은 재령, 獐塞는 수안, 池城은 해주, 德谷은 곡산에 해당한다.

그런데 I-③의 平壤 즉 남평양이 故地로 인식된 것은 성왕대 백제인들의 영역관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성왕은 근초고왕대의 영역관을 회상시켜 한성고토의 실지회복에

58) 김주성, 『성왕의 한강유역 점령과 상실』 『백제사상의 전쟁』, 서경문화사, 2000, 297~307쪽.

59) 김주성, 앞의 책, 303~304쪽.

60) 손영중, 『고구려사』,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90, 174~187쪽.

대한 염원을 이루려고 하였다. 『일본서기』 권 19, 흠명기 2년 추7월조에 “옛적에 우리 선조 速古王, 貴首王이 당시 旱岐 등과 처음으로 화친을 맺고서 형제가 되었다. 이에 나는 그대를 자제로 알고 그대는 나를 부형으로 알았다 …”고 한 기사에서 근초고왕과 근구수왕대의 일을 회고하는 것에서 성왕의 영역관을 엿볼 수 있다. 6성의 땅은 근초고왕대 백제가 고구려와 싸워 획득한 故地였던 것이다. 이 땅은 무령왕대부터 성왕 7년(529)까지 한때 백제의 세력권으로 확보하였음은 이미 밝힌 바 있다. 따라서 551년 백제가 수복한 고토는 한성과 남평양 즉 신라 경덕왕때의 6군의 땅을 다시 회복한 사실을 의미한다.

성왕대에 다시 한강유역을 상실한 것은 I-④, ⑤에서 보듯이 553년의 일이었다. 이때 신라가 고구려와 밀약을 맺고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유역을 점령한 것이다. I-⑤에 의하면 신라가 한성만 점령한 것으로 표기되어 있다. 평양이 제외된 것은 고구려와의 밀약에 의해 고구려에 양도한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는 남평양지역이 왕도 평양성과 지근한 거리에 있어 백제의 침입을 공제할 수 있는 완충지대가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이때의 한성은 牛頭方·尼彌方에 해당한다고 구체적인 지명을 명기하고 있다. 우두방은 황해도 우봉으로, 니미방은 경기도 파주 임진현이나 임강현으로 비정되기 때문에⁶¹⁾ 신라시대의 북한산주에 해당한다. 이처럼 553년 신라의 한강유역 점령으로 백제는 고토회복의 염원을 실현하지 못한 채 한강 이남지역으로 퇴축되기에 이른다.

IV. 맺 음 말

이 글은 필자가 이미 제시한 한강유역 일시 회복설을 관련 문헌자료의 재검토와 고고학적 연구 성과를 원용하여 475년에서 551년까지 백제의 북방 영토의 변화 과정을 살피기 위해 작성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한성·한산성 등 한강유역과 관련한 지명 기사를 새롭게 접근해 보았고, 다음으로 475년 고구려의 한성 침공에서 비롯된 백제의 한강유역 상실과정을 대내외적 정치 상황과 관련하여 살펴보고, 이어 무령왕대부터 고구려에 대해 적극적인 공세를 펴서 성왕 초반까지 한강유역을 다시 회복한 과정을 검토하였

61) 김현구 외, 『일본서기 한국관계기사 연구(II)』, 일지사, 2003, 257~258쪽.

다. 끝으로 성왕 7년(529)에 고구려의 대대적인 공격으로 한강유역을 다시 상실한 후 551년에 다시 재탈환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백제의 한강유역 세력권 확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 백제본기에 나오는 한성과 한산(성)의 용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한성은 백제의 왕도임에는 틀림이 없으며, 무령왕대에 고구려 및 말갈과 전투한 지점이 한강유역의 이북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당시 백제가 한강유역을 확보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무령왕대의 한성은 지명이동설에 따라 한강 이남지역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동성왕대에 나오는 한산(성)은 한성시대에는 왕도 한성과는 구별하여 왕도 주변 일대를 의미하다가 웅진 천도 이후에는 한산의 민호들이 대두산성에 사민된 연유로 해서 한산으로 지칭하였음을 추정하였다.

다음으로 475년 고구려의 백제 공격으로 인하여 이후 한성을 포함한 한강유역은 일단 고구려의 지배하에 들어간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백제가 한강유역을 계속 영유한 것으로 보는 견해가 있으나 한강유역과 중서부지역에 분포하는 고구려 성과 유물 및 보루성유적 등을 고려해 볼 때 받아들일 수 없음을 밝혔다. 그리고 『삼국사기』 지리지 한주 관할 군현에 대한 기록은 사실 그대로가 아닐지라도 475년 이후 동성왕대까지의 고구려 영유기의 사정을 반영한 기록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의 한강유역에 대한 지배형태는 『삼국사기』 지리지의 기록처럼 군현 설치를 통해 지방관을 파견하여 통치하는 형태의 일사불란한 행정체계는 아니었을 것이다. 고구려의 통치 방식이 영역 지배보다는 母基地에서 교통로를 따라 교두보나 거점을 마련하는 전략적 거점지배방식을 취한 것으로 보았다.

다음으로 무령왕대부터 한성을 다시 지배하게 된 과정을 살펴보았다. 무령왕대에 이르러 백제는 남천 이후 대내적 정정 불안으로 인해 한동안 고구려에 대해 수세적이었던 입장을 견지하였으나 이제부터 공세적인 자세로 전환한 것이다. 그리고 백제가 475년 한강유역을 상실한 이후 507년을 기점으로 하여 한강유역에 진출하기 시작하여 이에 대한 영역화 작업에 착수하였다가 523년 시점에는 한강유역을 다시 안정적으로 회복한 것으로 보았다.

끝으로 성왕대의 한강유역의 상실과 회복하는 과정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 성왕대에 백제와 고구려가 전투한 지점을 살펴보면 529년 오곡전투 이전은 모두 한강유역이나 임진강유역에서 전투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 548년 이후의 전투는 차령산맥 일대에서 전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백제가 무령왕대부터 한강유역에서 한동안 세력권

을 형성하다가 성왕 7년(529)을 계기로 다시 한강유역을 상실하면서 이후 고구려와 백제 간의 전투는 주로 한강 이남지역에서 전개된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551년 성왕의 북진 과정을 살펴볼 때 백제가 공취한 지역은 한성과 평양지역이었으며 평양은 고구려의 남평양 즉 황해도 재령으로 비정하였다. 이에 따를 경우 성왕이 수복한 6군의 땅은 한성과 평양 전체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경덕왕 21년(762) 패서지방에 설치한 6군의 땅이었음을 밝혔다. 또한 평양이 故地로 인식된 것은 성왕대 백제인들의 영역관이 반영된 것이었으며 성왕은 근초고왕대의 영역관을 회상시켜 한성고토의 실지회복의 염원을 이루려고 하였다.

5~6世紀 新羅의 漢江流域 進出과 經營

서 영 일★

목 차	I. 머 리 말	IV. 國原小京의 人的 構成과 經營
	II. 5世紀 後半 嶺西地方 進出	V. 領域支配를 위한 基盤構築
	III. 6世紀 中엽 漢江流域의 狀況	VI. 맺 는 말

I. 머 리 말

신라는 551년~553년에 한강 유역에 진출하여 이후 통일기까지 한강 유역을 영유하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라는 한강 유역을 점유함으로써 고구려와 백제의 협공을 받게 되었지만 당항진을 교역항으로 확보하고 서해 제해권 일부 차지함으로써 독자적으로 對中國外交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그 결과 564년부터 신라는 독자적으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할 수 있었다. 이것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영향을 미쳤던 것도 주지의 사실이다. 사실 신라가 동맹국이었던 백제와의 관계를 단절하면서 한강 하류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기에 있었다.

신라의 한강 유역을 계속 장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지방지배체제의 정비가 신속히 이루어져야 했다. 하지만 한강 유역은 백제에서 고구려로 다시 신라로 통치자가 교체

★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되면서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 아주 복잡한 상태에 놓여 있었다. 재지 세력을 포섭하여 신라의 지배 방식을 받아들이도록 하기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다. 더구나 고구려와 백제는 각각 한강 유역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며 신라를 압박하였고 그 때문에 신라는 양국을 상대로 전쟁을 계속해야 하였다. 따라서 신라의 한강 유역에 대한 지배 체제의 정비는 7세기까지 서서히 추진되었다. 특히 한강 이북 지역에서는 신라의 진출에 대한 고구려의 견제와 압박으로 전진과 후퇴를 거듭하면서 한강 상류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추진되었다.

555년 진흥왕의 순수기록과 『북한산진흥왕순수비』를 고려하면 신라는 555년 경 현재 서울 일대 및 그 이북 지역에 대해서도 안정적으로 점유하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고구려의 반격으로 그리 오래 유지되지 못하였던 것 같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신주-남천정-북한산주-한산주 등으로 6세기 후반에서 7세기 전반까지 卅나 停이 이동한 기록이 보이고 있다. 이것은 한강 유역에서 신라와 고구려 사이 세력 관계가 유동적이었고 그에 따라 신라의 방어 거점이 계속 변화되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아울러 행정적인 지배로 나가지 못하고 군사적 진출과 후퇴만 거듭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이 지역은 일종의 완충지대 남아 있었다. 이는 고고학 조사 결과와도 일치하고 있다.¹⁾

본고는 이 같은 상황 속에서 5-6세기에 신라가 한강 유역을 영역화 하는 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신라의 북진과정을 각 시기별로 나누어 살펴보고 신점령지에 대한 지배체제의 정비 문제를 고찰해보고자 한다. 먼저 북진의 준비 과정으로서 영서 지역 진출문제를 살펴보겠다. 다음으로는 6세기 중반 한강 하류 지역의 사정, 국원소경의 인적구성과 경영문제 등을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고분과 산성을 통하여 신라가 지방세력을 포섭하고 통제했던 사정에 접근하고자 한다.

1) 최근 임진강과 한강 사이에서는 보루라 칭하는 군사유적이 다수 발견되었고 일부지만 발굴조사도 실시된 바 있다. 그 결과 보루가 활용되었던 사정이 점차 밝혀지고 있다. 아직 초기적인 단계이지만 현재까지 조사로는 보루가 군사적 목적에 한정되어 사용되었던 것이 분명한 것 같다. 일반적으로 삼국시대 성곽이 대개 군사와 행정을 총괄하였던 것과 차이가 있다. 더구나 이 지역에는 백제 시대부터 사용되었던 산성들이 있었다. 이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까지 약 1세기 이상 공백기가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그렇지만 7세기 이후에는 신라가 수축하여 사용한 흔적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이 같은 사정을 볼 때, 보루는 영역지배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군사적 요충지만 장악하여 관할하기 위한 군사 유적으로 판단된다.

Ⅱ. 5世紀 後半 嶺西地方 進出

『삼국사기』 신라본기에 의하면 신라는 5세기말경 고구려와의 치열한 전투를 거쳐 영주·순흥지역을 확고히 장악하고²⁾ 이어서 6세기에 접어들면서 지증왕 3년 삼척에 悉直州를 설치하고 異斯夫를 軍主로 파견하였으며³⁾ 이후 강릉 방면으로 북상하여 지증왕 13년경 이전에 何瑟羅州를 설치하였던⁴⁾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영동지방의 경우 신라가 새로운 영토를 개척한 것이 아니었다⁵⁾ 실직주와 하슬라주 설치의 지방 지배 체제의 정비를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런데 신라는 551년 이전에 소백산맥 서쪽에 북진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다. 먼저 단양신라적성비이다. 단양신라적성비는 발견직후 건립연대를 551년 이후로 보아왔던 것이 대세였다. 하지만 『삼국사기』의 551년 10군 공취 기록과 단양신라적성비에 등장하는 인물 중 동일 인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관등에 차이가 있다는 점이 주목되었다. 10군 공취기록의 관등 보다 비석의 관등이 낮기 때문에 비석의 건립연대를 551년 이전으로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대두되었다.⁶⁾ 나아가 적성이 한강유역 진출을 위한 신라의 전초 기지였다는 견해도 있었다.⁷⁾ 하지만 단양신라적성비

2) 『삼국사기』에 5세기 후반 고구려와 신라는 454년(북변), 469년(북변, 실직성), 480년(북변), 481년(북변, 호명 등 7성), 484년(북변, 모산성), 489년(북변, 과현, 호산성), 496·497년(니하, 우산성) 등지에서 전투하였다. 구체적인 지명은 비정이 어려우나 말갈이 주력으로 전투에 동원되었던 사정을 고려하면 대체로 영주, 봉화, 삼척(悉直城) 방면에서 전투가 발생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서영일, 『충북의 고대사회』, 충북학연구소, 2002, 40~47쪽)

3)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지증왕 3년조.

4) 『三國史記』 권 4 신라본기 4 지증왕 13년조.

5) 신라가 영동지방에 진출하게 되었던 것은 파사니사금 23년 삼척에 있었던 실직국을 정벌하였던 것이 계기가 되었던 것 같다. 설화적인 기록으로 신빙성이 의심되기도 하지만 이는 이 사건을 영토 확보와 관련시켜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신라가 동해 해상권 장악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사건으로 보면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서영일, 「사로국의 실직국 병합과 동해해상권 장악」 『신라문화』 21, 2003.) 이후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면 5세기에도 삼척은 물론 강릉 일대까지 신라의 영향권 하에 있었던 것이 확인되고 있다. 『삼국사기』에도 눌지왕 34(450)년에 何瑟羅 城主 三直이 悉直原野(三陟)에서 高句麗 邊將을 살해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다. 삼직은 신라인이거나 신라 영향권에 있었던 지방세력으로 반고구려세력으로 보인다. 이 당시에는 신라의 영역이었으나 4세기 후반부터 고구려 남진의 영향으로 고구려의 세력권에 포함되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6) 邊太燮, 「丹陽 眞興王拓境碑의 建立年代와 性格」 『史學志』 12, 1978, 32~33쪽.

7) 武田幸男, 「眞興王代における新羅の赤城經營」 『朝鮮學報』 93, 朝鮮史研究會, 1979, 30쪽.

의 인물이 『삼국사기』의 551년조에 기록된 인물과 일치하는가 하는 것도 확신할 수 없기에 단순히 관등문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한편, 단양신라적성비의 건립 이유는 신라의 적성공략에 협조한 야이차의 포상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⁸⁾ 신라의 적성 진출이 적성지역에 거주하였던 토착 세력 집단과 연계되어 추진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된다. 죽령로가 개척된 것은 신라 초기에 이루어졌고 이후 신라의 북방 교통로로 사용되었다. 6세기 이전부터 신라는 적성 지역의 토착세력과 연계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적성이 신라 북진의 전초기지라는 견해도 있으므로 5세기 후반 고구려의 침입을 격퇴하면서 신라가 이 지역의 토착세력을 親新羅勢力으로 끌어들이어 활용하였을 가능성은 억측만이 아닐 것 같다.

고고학 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신라가 적성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한 시기가 6세기 전반 이전으로 볼 수 있는 근거를 찾을 수 있다. 바로 단양 하방리고분군이다. 하방리고분군은 적성산성 주변에 위치한 대표적인 신라고분군으로 신라가 진출한 이후 이 지역 지방 세력에 의하여 축조된 무덤으로 추정된다. 대체로 길이가 4m 이상이며 길이와 폭이 4:1정도인 세장방형의 횡구식석곽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구조의 석곽묘는 주로 소백산맥 동쪽의 상주나 안동 등지에서 보이고 있다. 하방리고분군도 영남지방에서 5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유행하는 횡구식 석실(곽)묘의 계통을 이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단투창고배가 출토되고 있어서 주목된다. 이 고배는 한강 유역에서는 출토된 예가 거의 없고 주로 영남지방에서 출토되었던 것이다. 6세기 중반이후 한강유역에서도 보편적으로 출토되고 있는 단각고배 보다는 빠른 시기 것이다. 한강유역에서 가장 빠른 시기의 것인 충주 루암리 고분은 557년 이후 축조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서는 대부장경호와 단각고배부터 부장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하방리고분군은 루암리고분군에 비하여 빠른 시기에 조성되기 시작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6세기 중엽이후 신라 단각고배가 확산되는 시기보다 이른 시기에 유적이라고 하겠다.

한편, 단양지역에서는 이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로 단양 하리에서 출토된 ‘出’자형 銅冠이 있다. 이 유물이 출토된 유적은 어떠한 성격의 유적인지 분명하지 않다. 매장유적이나 제사유적으로 추정되었는데⁹⁾ 동관과 토기가 출토되었다는 점에서 고분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出’자형관은 영남지방에서는 적석목곽분 단계에 해당된다는 점에서 이 유적도 6세기 전반 이전으로 올라갈 수 있어 주목된다. 하지만 공반 출토된

8) 주보돈, 「단양신라적성비의 재검토」 『경북사학』 7, 1984, 13~14쪽.

9) 김홍주, 「단양하리 출토 일괄 유물에 대한 고찰」 『고고학지』, 한국고고미술연구소, 1992.

토기가 일단투창고배와 단각고배인 것으로 보아 상한이 6세기 중엽을 넘기 어려울 것 같다. 유사한 경우를 통해 추암동고분군에서 볼 수 있다. 여기에서도 약식 ‘출’자형동관이 출토된 적이 있는데 공반 출토된 토기와 관련하여 6세기 중엽으로 편년되었다.¹⁰⁾ 이 고분의 피장자는 신라로부터 외위를 받았던 하리 일대 지방 세력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영월, 정선 일대에서도 신라가 축조한 산성과 고분군이 출토되었다. 우선 영월 대야리 산성, 태화산성, 완택산성 등이 있다. 이 중 고구려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되는 산성이 있지만 대부분 6세기 중반 이후 신라가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이 보다 상류에 위치한 정선 지역에는 정선 송계리산성, 고성리산성 등이 있다. 아직 발굴조사가 진행되지 않아서 정확한 축조시기 및 성격을 짐작하기 어렵다. 송계산성은 정선에서 여량을 거쳐서 강릉으로 넘어가는 교통로변에 위치하고 있다. 동해, 강릉, 태백, 정선 등 사방으로 통하는 교통의 요지이다. 주변은 해발 1000m 정도의 고산으로 고립되어 있는데 너그령(정선), 삼당령·버들고개(강릉), 은고개(삼척) 등의 고갯길과 임계천과 그 지류에 의하여 형성된 계곡이 자연적인 교통로의 구실을 한다. 송계산성은 임계천의 南岸에 솟은 해발 654m 미산봉을 중심으로 축조된 포곡식 산성이다. 북쪽에 강을 끼고서 정선에서 삼척이나 태백 방향으로 진출하는 적을 막기 위하여 축조되었다. 북쪽에 강을 둔 山端部를 주 방어선으로 삼아 축조된 것은 남한강 상류의 삼국시대 산성들이 입지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남한강 상류를 따라서 북상하거나 남하하는 세력을 견제하기 위하여 축조되었기 때문이다. 산성의 남서쪽 봉산리에는 200 여기 고분이 분포되어 있는데 석곽묘와 석실분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유물은 대부분 도굴되었으나 일부 신라토기편이 수습되고 있다. 출토된 신라토기는 6세기 전반으로 추정되어 주목된다.¹¹⁾ 468년 하슬라에서 역부를 징발하여 쌓았다는 니하성이나 481년 신라가 고구려군을 격파한 니하가 모두 이곳으로 비정할 수 있다.¹²⁾

10) 신호웅·이상수, 『추암동 B지구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동해북평공단조성지역문화유적발굴조사보고서』, 관동대학교박물관, 1994.

11) 강릉대학교 박물관, 『정선군의 역사와 문화유적』, 1996 ; 차용걸·양기석·노병식, 『정선고성리 산성과 송계리 산성 및 고분군 지표조사보고서』, 충북대학교 호서문화연구소.

12) 泥河에 관한 기록은 『三國史記』에 빈번히 보이는데 祇摩尼師今 14年, 炤知麻立干 3年에 보이고, 『唐書』 渤海傳에 『南與新羅以泥河爲境』이라는 기록도 있다. 『唐書』에 근거하여 니하를 덕원(安鼎福, 『東史綱目』 附錄, 地理考.), 高原이북 咸興이남(池內宏, 『眞興王の戊子巡境碑と 新羅の東北境』, 『古蹟調査報告書』6冊, 朝鮮總督府, 1929. 53쪽) 강릉의 北泥川水(丁若鏞, 《我邦疆域考》 卷5, 渤海考條.) 등을 비정되고 있다. 이것은 모두 『唐書』 渤海傳에 의거해 발해와의 경계라는 점을 고려하여 泥河를 비정했지만 5세기 후반의 니하와 관계가 없는 것 같다. 5세기 후반의 니하는 영서 말갈이 영동 지방으로 진출하는 통로로 보아야 하며 따라서 임계로 보는 것이 타당한 것 같다.

최근 강원문화재연구소에서는 정선 아우라지 유적을 조사하였는데 신라시대의 주거지가 출토되어 주목된다. 주거지 내부에서는 이단투창고배편, 파상문이 시문된 장경호편, 승문이 새겨진 장관형 토기 등이 출토되었다. 이단투창고배로 보아 이 주거지는 5세기 후반까지 올라가는 것으로 편년되고 있다.¹³⁾

이상의 고고학자료를 종합하면 신라는 죽령 방면을 통하여 적성산성에 진출한 후, 이곳에 전초기지를 설치하고 이를 발판으로 남한강 상류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하방리고분군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로 보아 그 시기는 6세기 초반 이전까지 올라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보다 앞서 신라는 정선 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니하에 성을 축조했다는 기록으로 보아 신라는 5세기 후반 일단 임계지역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후 정선 아우라지 유적의 신라주거지에서 출토된 이단투창고배 등 고고학 자료로 보아 5세기 후반 당시 신라는 정선 방면 재지세력에 영향력을 미치고 있거나 직접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이와 관련하여 481년 니하 서쪽에서 고구려 및 말갈을 격파하였던 기록이 주목된다. 이 전투 후 신라군이 고구려군을 추격하여 남한강 지류를 따라 아우라지 일대까지 西進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그 때문에 496년과 497년에는 정선 송계리산성 고성리산성 주변으로 추정되는 니하와 우산성 일대에서 고구려군과 전투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481년 이후 신라가 정선, 영월 방면으로 세력을 확대하는 것을 고구려가 저지하려고 시도하였던 것이다. 정선에서 영월과 단양을 거쳐 충주까지 신라의 산성들이 강 東岸에 분포된 상황도 5세기 후반 6세기 초반 신라군의 진출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신라가 5세기 후반부터 정선 지역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진출하였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6세기 중반 이전 정선, 영월, 평창 일대의 상황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3세기 이전에는 적석묘가 분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예족의 근거지를 형성하였던 곳으로 주목된다. 신라 초기에 침입하였던 말갈이 이 지역에 거주하였던 예족과 관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의 세력 확대로 한 때 백제에 영향권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그 관계를 짐작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한 형편이다. 396년에서 400년 사이에 고구려는 광개토왕이 백제 원정과 신라 및 가야 원정 이후 고구려에 부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5세기후반 고구려의 對新羅 및 對百濟戰爭에도 투입되었다. 450년 실직에서 사냥하다가 피살된 고구려 변장은 ‘변장’이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정선 일대에 파

13) 강원문화재연구소, 『정선 아우라지 유적』, 정선 아우라지 관광단지 조성부지 시굴조사 지도위원회 자료, 2005, 7.

견된 고구려 幢主일 가능성이 있다. 예족 거주 지역에 대한 고구려의 지배는 토착세력을 이용한 간접통치로 보여지며 극소수의 군사만 주둔시켰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입장에서는 영월과 정선 일대의 고구려군의 활동을 억제하기 위하여 이 지역의 토착세력을 끌어들이는 필요가 있었다. 하슬라에서 역부를 징발하여 니하에 성을 축조하였던 것은 고구려와 말갈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었지만 보다 적극적으로 정선, 영월 일대를 견제하려는 의지를 내포한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군이 죽령 방면을 통하여 영남지방으로 진출하는 것을 후방에서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사실은 영월, 평창, 정선, 단양 영춘 등이 모두 溟州(하슬라)에 속해 있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¹⁴⁾ 영서지방에 위치하기 때문에 원주, 춘천 등과 같이 朔州에 속하는 것이 더 자연스러운데도 명주에 속하였다는 것은 언뜻 이해되지 않는다. 명주에 속한 지역은 대부분 태백산맥 동쪽 영동지방이기 때문이다. 신라시대 명주의 평면형태는 ‘1’자형으로 삼척, 정선, 영월, 평창 방면이 서쪽으로 돌출되어 있었다. 그 이유는 뚜렷하게 밝혀진 적이 없다. 필자는 이것이 신라의 진출 과정과 관련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신라의 州는 통일신라에 들어와서 九州로 확정되었다. 九州가 일시에 정해진 것이 아니었다. 중고기부터 영역이 점차 확대되면서 차례로 설치되어 완성을 보게 되었다. 중고기의 州는 停의 이동과 관련이 있고 교통로와도 관련되어 있다. 漢州는 추풍령과 계림령로와 관련되고 삭주는 죽령로와 관련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정선, 영월 일대는 죽령로 보다 삼척, 태백 방면에서 진출한 것으로 보아야 합리적이다.

이상에서 신라는 한강 유역으로 진출하기 이전에 5세기 후반부터 삼척을 근거지로 정선-영월 방면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죽령을 지나 단양 방면으로 진출하여 적성산성 주변 지역을 확보하고 토착세력을 포섭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이 산맥을 등지고 성을 축조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보은 삼년산성에서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6세기 중반 이후 신라의 북진은 이미 5세기 후반부터 전방위에 걸쳐서 북진의 교두보를 확보한 신라의 전략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14) 『三國史記』 권 35 雜志 4 地理 2 溟州.

Ⅲ. 6世紀 중엽 漢江流域의 狀況

신라가 본격적으로 한강 유역을 공략하기 시작한 것은 551년부터였다.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는 왕명을 받은 거칠부가 고구려를 공격하여 十郡을 攻取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었다. 백제본기에는 누락되어 있고 고구려본기에는 신라군이 十城을 취했다는 기록이 있다. 이러한 사료들에는 모두 신라가 단독으로 고구려를 침략하였던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하지만 『삼국사기』 거칠부전에서는 백제와 더불어 고구려를 침공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백제가 먼저 고구려의 평양을 격파하자 신라가 죽령이의 고현이내 十郡을 공취하였다는 것이다.¹⁵⁾ 백제가 먼저 고구려를 공격하였다는 것인데 신라와 공동 작전이었는지 분명하지는 않다. 다만 신라가 백제와 고구려의 전투를 이용하여 복진하였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더 구체적인 기록이 『日本書紀』에 보이고 있다. 즉 551년 백제 聖王이 백제군과 新羅, 任那 등을 親率하여 한성, 평양을 포함하는 6郡을 고구려로부터 공취하여 失地를 회복했다는 기록이다.¹⁶⁾ 이 기록에서는 백제와 신라가 사전에 공동 작전을 숙의하고 가야까지 참전시켜 전반적으로 백제의 주도하에 작전이 수행되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이 기록은 과연 신빙성이 있을까?

일단 『삼국사기』 거칠부전과 『일본서기』의 내용이 서로 중복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신라보다 한 걸음 앞서서 백제가 고구려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다만 『일본서기』 기록 가운데 백제 역시 고구려로부터 6군을 공취하여 실지를 회복했다는 것은 의심스러운 면이 있다. 거칠부전에서도 백제가 고구려의 평양(현재의 서울 강북)을 공격했다는 기록은 있지만 6郡을 攻取했다는 기록은 없다. 더구나 백제는 이미 5세기 후반 다시 한성까지 재진출하였을 가능성을 보여주는 기록도 있다.¹⁷⁾ 다소 의문이 남지만, 漢城 관련 기록은 동성왕부터 무령왕까지 계속 보이고 있고, 특히 武寧王代에는 일시적이거나 예

15) 『三國史記』 권 44 열전 4 거칠부.

16) 『日本書紀』 권 19 欽明天皇 12년조.

17) 『三國史記』 百濟本紀 동성왕 4년(482)조에 靺鞨이 백제 漢山城을 공격했다는 기사가 있고 同王 5년(483)조에는 漢山城 순수 기사도 있다. 이 후 武寧王 말년까지도 漢山城, 漢城 등에 관한 기사가 보이고 있다. 이 기록들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었는데, 기록 자체를 부정하는 부정론, 적극적인 자세로 재검토하자는 긍정론, 웅진시대 漢城이 현재의 서울 지역이 아니라 백제 영역으로 이동한 것으로 파악하는 지명이동론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에 대해서는 朴燦圭氏의 글에 자세하다 (박찬규, 『百濟 熊津初期 北境問題』 『史學志』 24, 단국사학회, 1991, 61~66쪽).

성강 일대까지도 진출하였던 기록도 있다. 이 기록을 간단히 부정하거나 지명이동의 결과로만 설명하기 어렵다.

물론 482년 이전 백제가 무력으로 다시 한강유역을 회복하였다는 기록도 없다. 그런데 475년 고구려군은 일단 철수하였던 것이 분명하다. 그후 언제 다시 한성까지 진주하였는지 역시 알 수 없다. 다만 몽촌토성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으로 보아 5세기 후반 어느 시기에 몽촌토성에 주둔하였던 것으로 파악되기도 한다.¹⁸⁾ 또한 고구려가 475년 한성 함락 이후 여세를 몰아 금강 상류지역까지 진출하였던 것은 문헌이나¹⁹⁾ 고고학자료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더구나 고구려는 금강 상류 지역에 상당 기간 거점을 두고 있었던 것 같다.²⁰⁾ 만 한강 이남에서 발견된 고구려 유적이나 유물은 극히 제한적인 범위에 한정되어 출토되었고 대체로 군사유적과 관련된다. 이는 고구려의 진출이 단지 군사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고 점령지에 대한 영역화 조치가 부족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구려군은 주로 인구가 적은 영서지방을 지나 충주나 진천 지역을 통해서 금강 상류까지 진출하였기 때문에 경기도 일대에서 백제군의 저항을 받을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경기도나 충청남도 일대에 군사 거점을 남길 필요가 적었을 것이다.

이상 고구려의 한강 이남 지배 방식과 고구려군의 이동 경로를 고려하면, 동성왕~무령왕대 백제가 한성에 다시 진출하였을 가능성도 있다. 475년 고구려군은 한성 함락 후 일시적으로 철수하였지만, 한성의 방어체계가 무너진 상태에서 재침을 염려하여 웅진으로 천도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고구려군이 한강 이남지역에 진출하였지만 다시 한강 이북으로 후퇴하여 아차산 보루를 중심으로 방어선을 구축하였던 것으로 짐작된다. 동성왕이 집권하면서 다시 전열을 정비하여 한성에 진출하였고 늦어도 482년 경부터 漢城을 군사적 거점으로 활용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²¹⁾

18) 최종택, 「몽촌토성내 고구려유적 재고」 『한국사학보』 12호, 고려사학회, 2002.

19) 고구려의 충청북도 진출은 「中原高句麗碑」와 「丹陽赤城碑」의 발견으로도 확인되었다. 대체로 청주 부근까지 고구려가 진출했던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 이것은 소지왕대에 청주 부근에서 발생했던 高句麗와 新羅간의 전투가 薩水之原(충북 청천), 犬牙城 등지에서 있었던 것으로도 추정이 가능하다.

20) 충북 청원군 부강면 남성골에서는 고구려 군사유적이 출토되었다. 목책 흔적과 함께 내부에서 다량의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었는데 고구려가 이 지역은 상당 기간 점유하였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이 밖에도 진천 대모산성, 대전 월평동 유적 등에서도 고구려 토기가 출토되어 일시적이거나 금강 상류 지역에 고구려가 진출하였던 흔적이 남아 있다.

21) 482년 한성을 공격한 것은 말갈이지만 이들은 의심할 여지없이 고구려에 부용되어 침입한 것이다. 그 이전 말갈은 주로 신라를 공격하였다. 고구려군이 아니라 말갈을 동원하여 백제를 견제하는 것을 보면 고구려군이 직접 출병하지 못하였을 사정이 있었던 것 같다. 475년 이후 고구려군의 활

이후 고구려와 백제는 한강을 중심으로 대치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상황에서 551년 백제와 신라는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한강을 건너 북진하여 아차산 일대의 고구려군을 격파하자 이틈에 신라는 원주-홍천-춘천 방면으로 진격하여 북한강 유역에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 고구려는 돌궐이 침입하여 신성과 백암성을 공격하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백제와 신라의 연합 공격에 대처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 때문에 신라보다 상대적으로 위협이 큰 백제군에 방어력을 집중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지형적인 여건도 백제군이 신라군 보다 북진하기 어려웠던 요인으로 추정된다. 한강, 임진강, 예성강 등을 토강하면서 움직이는 백제보다 내륙지대를 통과하는 신라군의 움직임이 훨씬 빨랐을 것이다. 지형적인 여건과 고구려의 정세를 고려하면 고구려로서는 먼저 백제군을 방어하는데 주력하였을 것이다. 백제군은 한강을 건넜지만 임진강 이북으로 진출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전투 결과 백제는 얻은 것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 반면에 신라는 영서지방을 거의 차지하게 됨으로서 어느 정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였다. 그러나 영서지방은 한강 유역에 비하면 신라에게 전략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효과가 제한적이었다. 신라 북진의 궁극적 목표는 역시 한강 유역, 특히 하류 지역을 차지하는데 있었다.

백제가 현재 서울 북쪽에서 머뭇거리는 사이에 신라는 553년에 기습적으로 백제의 東北 지방을 취하여 新州를 설치하고 金武力을 軍主로 임명하였다²²⁾ 여기서 말하는 백제 東北 지방을 『日本書紀』에서는 漢城과 平壤으로 기록하였다.²³⁾ 이를 六郡이라 오해한 것은 나중에 신라가 이 지역에 6개의 郡을 설치하였던 것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한다.²⁴⁾ 백제가 고구려로부터 남평양을 탈취하고 곧 바로 다시 신라에게 탈취당한 것은 신라의 기습적인 공격을 예상하지 못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신라는 十郡 공취이전부터 이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미 신라는 550년 고구려와 백제가 금현성과 도살

동 범위는 금강 유역까지 확대되었고 특히 대신라 공격에 집중적으로 투입되었다. 따라서 482년 말갈의 한성 공격은 금강 상류 및 신라 전선에 집중된 고구려군의 동향과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백제가 한성에 진출하였다면, 한강 상류지역으로 진출하여 고구려군의 배후를 차단할 위협이 있었다. 고구려는 말갈을 활용하여 이를 방지하고자 하였던 것이 아닌가 한다.

22) 『삼국사기』 권 4 신라본기 4 진흥왕 14년조 및 同書 권 26 백제본기 4 성왕 31년조.

23)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日本書紀』 권 19 欽明天皇 13년조) 이 기록은 552년에 해당됨으로 『삼국사기』와는 1년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또한 '백제가 한성과 평양을 버려두어 이로 인하여 신라가 한성에 들어왔다'고 하였다. 애써 공취한 곳(흥명천왕 12년조에서 한성, 평양 등 6군을 공취했다고 기록하였음)을 버려두었다는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553년의 사실을 잘못 기록한 것이며 신라의 공격으로 상실하였던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24) 10군도 고구려본기에는 10성으로 기록되었다.

성 전투에서도 비슷한 방법을 사용하였고 한강 유역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였다. 이 때부터 신라군은 고구려와 백제의 군사적 대치를 적절히 활용하고 양쪽이 방심한 틈에 기습전을 전개하는 방식으로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전과를 올리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다.

『일본서기』 흙명천왕 12년조의 기록은 백제가 신라에게 한강 하류 지역을 탈취당한 원인을 백제의 치밀하지 못한 점령지 지배 방식에서 기인되었다고 기록하고 있어 주목된다. 즉, ‘한성과 평양을 버려두어 이로 인하여 신라가 한성에 들어왔다’는 것이다.²⁵⁾ ‘버려두었다’는 의미는 무엇일까? 앞에서 서술하였듯이 일부 군사 요새만 설치하여 군사 지역으로 설정하여 놓았던 상황과 관련된 것 같다.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백제는 한성 함락 직후인 476년 『漢北民戶』를 大豆山城으로 이주시켰다는 기록이 있다.²⁶⁾ 475년 이후 고구려의 한성 경영과 관련하여 매우 주목되는 기록이다. 아마도 백제는 한성 일대를 空地로 만들어 고구려가 영속적으로 이 지역을 차지하는 것을 견제하려고 하였던 것 같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고구려가 475년 한성 함락 직후 바로 한강 하류 경영에 나서지 않았기 때문이다.²⁷⁾ 따라서 다시 백제가 이 지역에 영향력을 확대한다고 하더라도 행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고구려 군사유적이 보루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도 마찬가지이다.

이 때 신라가 백제로부터 탈취한 六郡은 현재 서울 지역과 경기 남부 지역으로 추정된다. 551년 10군은 대부분 강원도 영서지방으로 이곳은 말갈의 거주지로 고구려가 간접적인 지배를 하였던 지역이다. 당시의 고구려 정세를 고려하면 신라의 도전이 고구려를 당황하게 하였겠지만 고구려의 남쪽 방어체계는 견재 하였다. 임진강 유역을 중심으로 신라군의 진출은 격퇴할 수 있었다. 더구나 신라의 진출이 이 지역의 바로 영역화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데도 신라는 왜 동맹국 백제의 반발을 무시하고 작전을 감행하였던 것일까? 이것은 서해로 진출하기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 때문이었다. 신라의 국가적 성장을 위해서는 나제동맹을 유지하는 것 보다 서해로 나갈 수 있는 항구를 확보

25) 是歲 百濟棄漢城與平壤 新羅因此入居漢城 今新羅之牛頭方尼彌方也, 『日本書紀』 권 19 欽明天皇 13년조)

26) 『삼국사기』 권 26 백제본기 4 문주왕 2년조

27) 『삼국사기』 백제본기 문주왕 즉위조에 의하면 문주가 신라의 구원군을 이끌고 돌아왔을 때 한성은 파괴되고 개로왕은 피살되었으며 고구려군은 퇴각한 상태였다. 이후 문주가 왕위에 오르고 웅진으로 수도를 옮긴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따라서 고구려군은 한성을 점령한 후 일단 한성에서 퇴각한 것은 분명한 것 같다.

하는 것이 꼭 필요하였다. 이것은 진흥왕이 친정을 하면서 바로 한강 유역을 공략하였던 근본적인 이유였다.

반면에 백제는 신라가 현재의 경기도 남부 지역을 차지하면서 안성천 일대까지 진출하자 국가적 위기로 인식하였던 것 같다. 신라에 빼앗긴 六郡도 문제였지만, 더 큰 문제는 백제의 서해해상권 장악에 꼭 필요한 아산만 일대가 신라의 수중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따라서 554년 대규모 병력을 동원하여 신라의 한강유역 진출로가 되는 추풍령을 막기 위하여 옥천과 보은 방면으로 출병하였다. 그러나 관산성 전투에서 뜻하지 않게 성왕이 전사함으로써 전세가 기울어져 패한 후, 한강 유역에 대한 주도권을 완전히 신라에 넘겨주게 되었다.

IV. 國原小京의 人的 構成과 經營

백제의 도전이 꺾이던 후 신라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를 재빨리 진행하였다. 555년 진흥왕이 신점령지를 순수하여 정세를 살핀 후 구체적인 조치들이 차례로 등장하였다. 557년에는 新州를 폐하고 北漢山州를 설치하여²⁸⁾ 한강 이북 지역으로 진출하려고 시도하였다.²⁹⁾ 더불어 國原小京을 설치하였고³⁰⁾ 558년에는 國原小京에 六部の 귀족을 徙民하였다.³¹⁾ 신점령지를 지배하는데 필요한 행정도시의 건설이었다. 그런데 국원소경은 이미 551년 이전부터 준비되고 있었다. 551년 진흥왕이 충주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하임궁에서 그 이전에 이미 사민된 우륵을 불렀다. 우륵이 언제 망명했는지 분명하

28)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8년조.

29) 북한산주가 설치된 곳은 현재 서울 강북 일대, 고구려의 平壤으로 불리던 곳으로 추정할 수 있다. 즉, 『三國史記』 지리지 권 35 지 4 지리 2 漢陽郡條에 『본시 高句麗의 北漢山郡인데(平壤이라고도 한다) 진흥왕이 州로 삼고 軍主를 두었다』라고 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의 평양으로 불리던 북한산군에 신라의 북한산주가 설치된 것이다. 진흥왕의 순수와 북한산주의 설치 사실로 보아, 아마도 555년 경 신라는 적어도 서울 강북 일대를 완점하였고, 군사적으로는 임진강 일대까지 진출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군사적인 진출에 불과하였을 것이다.

30)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8년조.

31) 『三國史記』 권 4 新羅本紀 4 진흥왕 19년조.

지 않지만 551년 이전에 충주 지역에 사민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신라가 가야인들을 국원소경에 사민한 목적이 어디에 있었을까? 일단 소경설치 과정에서 신라인과 원주민 사이에 갈등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민한 것으로 보기도 한다.³²⁾ 하지만 국원소경에 신라인과 갈등을 일으킬 정도의 강력한 세력을 가진 원주민이 있었을까 의심된다. 아마 국원소경 설치 이후에 사민되었다면 신라인과 원주민의 갈등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로 이해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신라인에 앞서 가야인들이 가장 먼저 사민되었다던 점은 그러한 견해와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다. 이 문제는 국원소경의 설치 목적이나 경영 문제와 관련되어 해석되어야 할 것이다.

국원소경은 신도시를 건설하는 작업이었다. 그 특성상 인구를 집중시켜야하는 것은 자명하다. 국원소경이 설치되기 이전 고구려의 국원성이 있었다고 한다. 국원성은 그 이름으로 보아 고구려의 별도로 추정되기도 하였다. 고구려의 별도였다면 그에 걸 맞는 유적이나 유물이 존재해야 할 것이다. 중원고구려비가 있었고 남한강수로와 육로가 만나는 교통의 요지였기 때문에 고구려가 충주 지역을 전략적 요충지로 활용하였던 것은 인정된다. 최근 백제나 신라와 관련된 유적과 유물은 속속 발굴되었지만 고구려와 관련된 것은 중원고구려비 이후 발견 소식이 없다. 이러한 점에서 국원성이 도시였다고 보기 어렵게 한다.

이와 같이 신라가 진출하기 직전 국원성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어렵다. 다만 도시가 형성되어 있지 않았던 것은 분명한 것 같다. 이 같은 상태에서 신라가 국원소경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인구를 집중시킬 필요가 있었다. 이것은 사민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사민되는 사람들은 도시의 건설 목적 및 경영과 관련이 있는 계층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기에 다소 정치적 고려도 필요하였을 것이다. 즉 신라가 지배체제를 강화하면서 해체시킨 중앙세력이나 지방세력, 신점령지의 주민 등이다. 국원소경으로 사민된 사람들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하는 인물이나 집단이었을 것이다.

국원소경이 왕경을 모방하여 만든 도시라고 한다면 행정 및 상업도시로서의 성격이 강하였을 것이다. 관리, 상인, 장인, 노동자, 노예 등이 도시를 구성하는 주요 계층이다. 우선 국원소경에 사민된 계층 중 최고위층에 해당되는 인물들은 진흥왕 19(558)년에 사민된 왕경출신들이다. 「貴戚子弟」, 「六部豪民」 등으로 칭해지는 계층이다. 「貴戚子弟」은 귀족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귀족들의 생활 기반이 왕경에 있고 이들의 사민

32) 이인철, 『신라 정치제도사 연구』, 일지사, 1993, 187~188쪽.

은 근거지를 빼앗아 정치적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귀족 가문 전체가 사민된 것은 아닐 것이다. 『貴戚子弟』라는 표현으로 보아 왕경 귀족 중 일부가 분가하여 국원소경으로 안치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은 『귀척』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高位 貴族 즉 진골 귀족을 뜻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국원소경에는 진골 귀족 가문의 자제가 분가하여 안치되었던 것으로 파악된다. 따라서 이들은 왕경의 지배자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소경 경영을 주도하는 세력이 되었을 것이다. 이들이 국원소경에 사민된 것으로 보아 국원소경의 설치와 운영이 국왕과 왕경 지배자 공동체 사이의 합의에 의한 것으로 33) 보아야 할 것이다.

『六部豪民』은 대체로 六部 『干』층의 가신적 성격을 가진 계층으로 왕경지배자공동체의 관리 업무를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왕경에서 자기의 실력을 바탕으로 호민으로 성장한 계층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六部豪民』은 국원소경으로 사민된 귀척자제와 상호 연결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직업적으로는 전문행정요원, 군사요원, 富農, 상인, 冶匠 등을 말한다. 이들은 독립적인 존재로서 사민된 것이 아니라 귀척자제와 관련되어 사민된 가신적인 존재들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귀척자제를 보좌하여 행정 및 군사지원, 징세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중·하급관리의 역할을 수행하고 대외 및 대외 교역 활동을 담당하는 상인, 수공업자 등의 역할도 수행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국원소경을 경영의 핵심계층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 귀척자제와 육부호민의 출신과 사민 목적을 살펴보면 신라는 국원소경에 왕경에서 관할하는 업무를 일부 이관하여 자체적으로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였다고 볼 수 있다. 일종의 왕경지배자 공동체의 분소를 설치한 것과 같다. 그런데 이들만으로 국원소경을 경영하는 것은 어려웠을 것이다. 국원소경의 관할하는 지역은 충청북도, 경기도, 강원도 영서 지방 등 인구와 규모가 신라 구영역에 비견된다. 후일 이곳에는 서원소경과 북원소경 등이 추가로 설치되었다. 육부에서 사민된 호민층만으로 국원소경을 경영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러한 이유로 가야 유민이 주목되었을 것이다. 특히 가야 지배층을 근거지에서 이탈시켜 가야 지역의 지배체제를 정비하고자 하는 정치적 목적도 있었다. 가야인들은 전술한 바와 같이 왕경민에 앞서 사민되었다. 이는 육부귀족의 사민의 왕경 지배자공동체와 협의가 필요한데 반하여 가야 유민의 경우 어차피 근거지를 이탈시켜야 하기 때문에 왕권만으로도 비교적 사민이 쉬웠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

33) 양기석, 신라5소경의 설치와 서원소경, 『신라 서원소경 연구』, 서경문화사, 2001, 84쪽.

는 국가 운영 능력을 살릴 수 있다는 점에서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이다. 따라서 국원소경 설치 계획을 수립하는 단계부터 사민이 시작되었을 것이다. 국원소경 설치 후 이들은 육부호민과 더불어 국원소경 경영의 핵심계층으로 자리잡았던 것 같다.³⁴⁾

국원소경에 사민된 가야인들은 우륵과 강수 같은 특수한 계층으로 문한사무, 예술 등을 담당할 수 있는 계층으로 추정된다. 우륵이 경우 제자들과 함께 사민되었던 것으로 보아 국원에 사민된 가야인들은 집단적으로 사민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사민된 후에도 공동체적인 관계가 그대로 남아있게 되었을 것이다. 이들은 국원성으로 안치된 후 신라로부터 일정한 예우를 받았던 것 같다. 우륵이 신라 출신의 제자를 받아들여 상당기간 교육시켰던 것으로 보아³⁵⁾ 국가로부터 생업활동에 나서지 않아도 될 정도의 보상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강수도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못했지만 넉넉하지는 못했지만, 학문에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을 소유하고 있었던 것 같다. 강수나 우륵이나 558년 사민되는 왕경의 귀척자제에는 미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육부호민」과 대등한 대접을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국원소경에는 상당수의 장인층이 거주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강수의 처는 ‘釜谷의 대장장이 딸’이라고 한다.³⁶⁾ 부곡은 어디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이름으로 보아 국원소경에 주변의 제철단지로 지명으로 보아 야장층이 집단 거주하였던 지역으로 추정된다. 최근 지표조사에서는 충주와 인근 지역에서 야철지들이 발견되고 있어서 이 같은 가능성을 뒷받침하고 있다. 대부분의 철생산 시설이 신라에 의하여 개발되었던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역시 가야계통의 장인이 사민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가야의 철 생산 기술은 이미 삼한시대부터 발달되어 있었다. 강수의 장인도 가야계 장인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신라가 국원의 철산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가야계 철기 기술자들을 이주시켜 철생산을 확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고구려나 국원소경 주변에서 사민된 주민들도 거주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구려계

34) 대표적인 우륵집단의 경우 이미 551년 이전에 국원지역에 사민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우륵의 망명 시기가 분명하지 않지만, 대체로 540년대 후반으로 추정되며 직접 대가야에서 국원으로 안치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륵 집단 이외에도 또 다른 가야계 집단이 국원소경으로 사민되었던 흔적이 보인다. 바로 강수이다. 강수는 자신이 스스로 「본래 任那加良人」이었다고 하였는데, 「중원경 사랑인」이라고도 하였다. 임나가야의 왕족이거나 최고 귀족이었다가 중원지방으로 사민된 인물로 추정된다.(이기백, 『신라육두품연구』, 『신라정치사회사연구』, 일조각, 44쪽.)

35) 『삼국사기』 권 32 잡지 1(樂) 加耶琴條.

36) 『삼국사기』 권 46 열전 6 강수.

주민의 존재는 『삼국사기』 거칠부전을 통해서 짐작하여 볼 수 있다. 즉 거칠부가 10군을 공취하였을 때, 해량법사가 무리를 이끌고 귀순하였다. 해량은 이후 왕경으로 가서 신라의 國統이 된 듯하다. 하지만 그의 무리 중 일부는 국원소경에 안치되었던 것이 아닌가 한다. 이 같은 추정이 가능한 것은 국원성 주변에 『鳳凰里磨崖佛菩薩群』, 『建興五年銘佛光背』 등 고구려계통의 불교유적과 유물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봉황리마애불이 경우 늦어도 6세기 후반은 넘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고³⁷⁾ 건흥오년명불광배 역시 536년 또는 596년 등으로 편년되고 있다.³⁸⁾ 국원소경의 설치시기 보다 약간 빠르거나 약간 느린 시기인데, 대체로 국원소경이 설치되고 정비되는 과정에서 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국 이 유적과 유물들은 고구려 출신 승려집단이나 장인집단이 국원소경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반증이 된다.

이 밖에도 국원소경에는 다양한 생활용품을 생산하고 공급을 담당하는 기술자와 상인들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소경의 역할 가운데 상업적 기능도 상당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국원소경은 7세기 후반 이전에는 대중국 수출입 물자가 거쳐가는 지역으로 주목된다. 따라서 이 와 관련된 임무 담당하였던 관리와 상인층과 국원소경을 중심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하다. 하지만 이와 관련된 사료가 보이지 않아서 더 이상 추론은 불가능하다.

이상 국원소경의 인적구성은 대부분 사민된 사람들로 이루어졌다. 이들은 왕경 귀족, 가야, 고구려인 등은 모두 비생산계층이다. 왕경출신 진골귀족들의 국원소경을 이끌어가는 지휘부를 형성하고 그 아래 육부호민, 가야와 고구려 출신 이주민 등이 행정 및 군사 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요원으로 봉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들 중에는 상인과 장인층, 귀족들의 문화 및 종교 생활과 관련된 예술가와 승려 등도 있었다. 주민구성으로 보아 국원소경은 신라가 한강 유역 일대를 단기간에 영역화 하는데 필요한 신라의 율령과 생활양식을 확산시키는데 필요한 인력을 배치하려는 목적에서 설치되었다고 볼 수 있다.

37) 강우방, 『햇골산 마애불상군과 단석산마애불상군』 『이기백선생고회기념한국사학논총』 상, 일조각, 1994, 454~455쪽.

문명대, 『한국조각사』, 열화당, 1980, 115~116쪽.

정영호, 『중원 봉황리 마애반가상과 불·보살군』 『고고미술』 146·147합집, 한국미술사학회, 1980, 23쪽.

38) 문명대, 『윗책』, 114쪽.

V. 領域支配를 위한 基盤構築

국원소경 건설 및 사민정책은 신라가 한강 유역을 지배하기 위한 준비조치라 할 수 있다. 보다 직접적인 조치는 이 지역의 지방세력을 장악하고 궁극적으로 이들을 해체시켜 영역지배를 완성하는 것이었다. 신라가 한강 유역의 진출에 토착민을 포섭하여 이용하였던 사정은 이미 단양신라적성비에서부터 잘 나타나고 있다. 신라의 진출이나 지배 체제 구축에 협조한 토착세력에게 외위와 포상을 수여하고 출신 지역을 관할 할 수 있는 기득권을 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의 한강 유역 진출은 550년대 비약적인 발전의 결과이다. 더구나 신라가 진출하기 직전 한강 유역 일대를 어느 나라도 영역 지배가 불가능하였다. 짧은 시간에 신라가 이를 관철한다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다. 단 신라는 이미 5세기 경 영남지방에서 지방세력을 해체시키고 직접 지배로 이행시킨 경험이 있다. 그러나 영남지방은 문화적으로 신라와 동일한 집단이지만 한강유역의 토착민들은 신라와 구분된다는 점에서 치밀한 계획이 필요하였을 것이다. 더구나 고구려나 백제의 위협이 상존하는 상태에서 이전에 신라가 한번도 지배하지 못한 세력을 지방지배체제로 편입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는 무력만으로는 이루기 어려웠을 것이다.

신라는 우선 토착 유력세력을 파트너로 삼아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 지역으로 진출하는 전략을 구사하였던 것 같다. 이 때 신라는 외위라는 독특한 제도를 통하여 지방세력의 참여 욕구를 충족시켰다. 이 과정에서 신라의 문물과 지배 이념이 자연스럽게 침투되었다. 그 결과 한강 유역에서는 6세기 후반을 중심으로 신라식 생활문화가 급속히 퍼져나갔다. 고분, 성곽, 주거지에 대한 발굴조사 결과 같은 시기의 신라토기가 거의 모든 유적지에서 반출되고 있다. 가장 보수적인 묘제에 있어서도 신라의 묘제와 장례풍습이 확산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강 유역 지방세력의 분묘는 대부분 신라계 횡구식석곽(실)묘로 대체되었다. 그 내부에서는 여지없이 신라토기가 출토되고 있다. 이는 신라가 율령으로 지방세력의 의식과 생활을 통제했다는 근거가 된다. 하지만 이것이 제한적인 현상이었던 것도 부인하기 어렵다. 아직 백제식 생활문화의 흔적이 남아 있는 것도 많았다. 신라식 석곽묘에 백제식 토기가 부장된 경우도 있고 반대로 신라토기만 부장된 예가 있어 백제식 생활문화가 신라식으로 이행하는 것은 다소 시간이 걸렸던 것으로 파악된다.

신라의 생활문화가 침투하는 과정을 고분을 통해서 살펴보자

6세기 후반 한강 유역에 축조된 신라 고분군 중에서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여 주는 것이 여주 매릉리 고분군이 대표적이다. 매릉리 주변에는 상리고분군이 있고 서쪽을 수 km 떨어진 연라리, 하거리 등지에도 신라고분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까지 루암리 일대를 제외하고는 가장 고분의 집중도가 높은 지역이다. 매릉리를 중심으로 신라고분이 밀집하였던 것은 이 곳의 지리적 중요성에 기인한다. 여주 매릉리 일대는 남한강변에 위치하며 배후에는 넓은 평야와 구릉지대가 이어지고 있다. 수로와 육로를 통한 교역과 평야와 구릉지대의 농업생산력이 교차하는 곳이다. 신라가 남한강수로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꼭 장악해야하는 지역이다. 매릉리 일대이 고분은 일제시대부터 주목되어 발굴이 이루어져 왔다. 현재까지 196기의 고분이 발견되어 보고되었다. 대체로 6세기 중엽 황구식석곽묘로부터 7세기대의 황열식석실분까지 다양한 형태의 묘제가 있다. 황구식석곽묘의 뿌리를 백제와 관련시키는 견해도 있지만³⁹⁾ 신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발굴된 자료로 보아 고군의 전반적인 구조는 루암리 고분군과 크게 차이가 없다.

반면에 고분에서 출토된 토기는 신라 토기와 함께 백제토기 영향이 짙은 토기도 볼 수 있다. 이 지역은 오랫동안 백제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에 신라가 진출하고도 일정기간 백제 토기의 영향도 잔존하였던 것이다. 따라서 고분의 피장자는 토착민이 분명하다. 이전에는 백제 토기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신라의 진출에 의하여 신라 토기를 사용하게 되었던 것이다. 신라 토기가 외부로부터 유입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井』자가 새겨진 신라 토기들이 출토되었는데 이러한 토기는 루암리고분군이나 충주 탑평리 유적에서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신라토기의 확장이 폭발적으로 이루어졌고 백제식 신라토기도 있는 것을 보면 신라로부터 제작 기술이 전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어느 경우든 신라가 이 지역에 신라토기로 대표되는 생활양식을 침투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곳에는 수많은 신라 고분에 비하여 백제고분은 많이 보이지 않는다. 이는 매릉리 세력이 백제시대에는 그리 주목받지 못하던 집단이었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이와 비교되는 것이 원주 법천리고분군이다. 원주 법천리고분군도 남한강변에 위치하고 남한강수로와 관련된 세력들에 의하여 축조되었다는 점에서 매릉리고분의 입지나 축조세력과 비교된다. 법천리고분군은 백제시대에 가장 전성기를 이루다가 오히려 신라시대에 이르게 되면 급격히 쇠퇴하였다. 신라시대에는 이들의 위상에 변화가 있었던 것이다. 신

39) 신용철·강봉원 『주하거리 방기미골 고분』, 경희대학교 박물관, 1999.

라시대에는 국원소경을 중심으로 남한강 수로가 정비되면서 법천리 일대는 교통의 요지로 역할이 축소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반면에 매룡리 일대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위치로 부상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매룡리 세력은 신라가 남한강수로 장악을 위하여 선택하였던 토착집단으로 추정된다. 자연히 여주 일대는 매룡리 집단을 중심으로 신라와 연결되었다. 이 같은 관계는 매룡리고분이 소멸하는 7세기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신라 지배체제를 정비하면서 가장 역점을 두었던 것은 곳곳에 산성을 수축하는 것이었다. 수로와 육로를 따라서 일정거리 마다 산성이 축조되었다. 신라가 산성을 축조하면서 지방지배체제를 정비하고 군사적 진출과 보급로를 개척하였던 것은 영남지역에서부터 시작되어 북진 과정에도 지속되었다. 하지만 한강 유역은 영남지방과는 사정이 다르다. 영남지방에서 산성의 축조는 영남지방 전체에서 인력 동원이 이루어졌는데 이미 그 이전에 지방지배체제나 수취체제가 정비되었기 때문에 가능하였다. 하지만 한강 유역의 경우 지방지배체제나 수취체제가 정비되기 전 또는 거의 동시에 산성의 축조나 수축이 이루어졌다. 지금까지 한강 유역에서 조사된 산성 중 대부분의 산성에서 6세기 후반이후의 신라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가장 빠른 시기의 유물인 단각고배는 6세기 중엽으로 올라가고 있어서 일부 산성은 축조시기가 550년대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당시 신라가 어디에서 인력을 동원하여 곳곳에 축성했는지 의문이다. 신점령지가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노동력 징발이 가져올 결과는 자명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신라가 산성을 신축할 필요는 없었던 것 같다. 이미 백제가 축조한 산성이 있었다. 이를 수축해서 활용하면 노동력을 최소한으로 동원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신라가 활용하였던 대부분 산성에서는 백제토기도 출토되었다. 이천 설봉산성, 설성산성, 안성망이산성, 죽주산성, 비봉산성, 평택 자미산성, 여주 파사산성 등 경기 남부 지역의 산성들에서 백제토기와 신라토기가 같이 출토되고 있다. 백제가 초축한 산성을 신라는 일부 수축하여 재활용하였다. 이 경우 신라는 친신라적인 지방세력의 협조만으로도 산성에 대한 수축이 가능하였을 것이다.

신라는 산성을 중심으로 일정 지역을 관할구역으로 획정하면서 지방세력을 편재하였던 것 같다. 이것은 한성시대 백제의 城村과 유사하였을 것이다. 광개토왕은 비문으로 보아 4세기 후반 이후 백제는 중요 거점을 중심으로 산성을 축조하고 이를 통해서 주변의 토착세력을 촌으로 편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⁴⁰⁾ 최근 백제유물이 출토되는 산성도

40) 포천 고모리산성과 자작리유적의 경우 백제가 성을 축조하고 주변의 자연촌락을 장악한 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다. 고모리산성은 3세기 경에 축조되었으나 자작리 백제토기는 이보다 약간 늦은

교통로를 따라서 분포하며 대체로 해당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다. 산성을 중심으로 각각의 지역이 분할되는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대체로 신라의 군현과 일치하고 있다. 따라서 신라는 한강유역에 진출한 직후 백제가 축조한 산성을 중심으로 거점지배를 실시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에 협조적인 지방 세력을 전면으로 내세워 이들을 매개로 간접지배를 추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법천리고분 축조집단과 같이 백제시대 유력한 지방세력은 오히려 배제되었던 것 같다. 신라 진출 후에는 지방세력 사이에 이전과 다른 새로운 계열화가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있다.

산성에 대한 수축과정에서 지방세력에 대한 계열화가 이루어지고 통제력도 확보됨으로서 신라가 군현제를 실시할 수 있는 토대로 마련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7세기에 들어서면서 점차 군현이 확대되면서 지방관도 파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국사기』 김유신전에는 그의 아버지 김서현이 만노군의 태수로 부임했던 기록이 있다.⁴¹⁾ 태수의 호칭은 후대에 사용된 것이지만 지방관이 파견되는 상황은 사실성이 있다. 이로 보아 6세기 말부터는 한강유역 郡縣에도 지방관이 파견되었음을 짐작할 수도 있다. 한강 유역 신라고분에서도 7세기 전반을 고비로 점차 지방 세력이 약화되었던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한강 유역에서 신라의 州郡制가 뿌리를 내리고 있었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설성산성, 죽주산성, 자미산성 등 경기남부 지역 신라 거점산성에서도 인화문토기 단계 유물이 공백기를 이루고 있다. 7세기 후반부터 8세기경까지 산성의 활용이 약화되었던 사정을 보여주고 있다. 오히려 9세기에는 출토 유물의 양이 증가하고 있다. 7세기 이후 신라의 북경이 북상하고 행정이 정비되어 군사력을 활용한 행정지배 기능이 약화되었다. 반면에 9세기 지방 세력이 득세하면서 다시 산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던 것이다.

VI. 맺는 말

이상에서 5세기 후반에서 6세기 후반까지 약 1세기 동안 신라의가 한강유역에 진출

시기부터 출현하고 있다. 백제가 진출하여 고모리산성을 중심으로 자작리 일대의 촌락을 편제한 후 백제토기가 자작리유적으로 확산되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41) 『삼국사기』 권 41 열전 1 김유신(상).

하고 영역지배를 실현해 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정리하여 맺는말로 대신하겠다.

신라는 한강 유역으로 진출 기반은 5세기 후반부터 조성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5세기 후반 삼척을 근거지로 정선-영월 방면으로 진출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 이 보다 약간 늦은 시기에 죽령을 지나 단양 방면으로 진출하여 적성산성 주변 지역을 확보하고 토착세력을 포섭하였던 것으로 파악된다. 이 같이 산맥을 등지고 성을 축조하는 것은 비슷한 시기에 보은 삼년산성에서도 동시에 추진되었다. 이미 5세기 후반부터 전방위에 걸쳐서 북진의 교두보를 확보하고 6세기 중엽부터 적극적으로 한강 유역을 향하여 북진을 단행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6세기 전반 한강하류에서는 고구려와 백제가 서로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475년 고구려가 한성을 점령하였지만 바로 철수하였다가 이후 다시 진출하여 몽촌토성에 군사를 주둔시키고 있었다. 하지만 다시 한강 이북으로 철수 하여 보루를 축조하고 한강을 놓고 백제와 대치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백제는 동성왕대 다시 한성까지 진출하였으나 군사적 관할에 머물렀다. 따라서 6세기 중엽까지 어느 나라도 한강 유역을 영역으로 지배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태에서 551년 신라와 백제가 연합하여 고구려를 공격하였는데 이때 백제는 고구려의 저항으로 현재의 서울 지역에서 묶였지만 신라는 북한강 상류까지 진출할 수 있었다. 553년에는 다시 신라가 백제를 공격하여 한강 하류지역을 빼앗고 554년 관산성 승리로 백제가 힘을 약화시킨 후 적극적으로 한강 유역을 영역화하기 시작하였다.

신라가 한강유역을 경영하는데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었던 것은 국원소경이었다. 국원소경의 인적구성을 살펴보면 신라의 국원소경 설치 배경과 경영에 대하여 이해할 수 있다. 국원소경은 사민된 사람들로 이루어진 도시였다. 여기에 사민된 사람들은 왕경 귀족, 가야, 고구려인 등 다양한 출신성분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비생산계층에 속한다. 왕경에서 사민된 귀족들의 국원소경을 이끌어가는 지휘부를 형성하였다. 그 아래 육부 호민총과 가야계 이주민이 신점령지의 행정 및 군사 업무를 지원하는 실무자로 봉사하였다. 또한, 상인, 장인, 예술가, 승려 등 경제와 문화 및 종교를 담당하는 계층도 있었다. 이 같은 주민구성으로 보아 국원소경은 신라가 한강 유역 영역화하는데 필요한 행정지원 및 전방에 대한 군사 지원을 목적으로 설치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불어 경제를 통합하기 위한 상인층 신라문화를 전파하기 위한 장인, 승려, 예술가 등이 배치되어 신점령지를 신라화하는데 기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신라는 한강 유역에 대한 영역지배를 관철하기 위하여 유력한 지방세력을 포섭하여

이들을 전면에 내세우고 해당지역을 장악해 나갔다. 그러한 양상은 한강 유역에서 발굴된 고분이나 산성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이를 시기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540년대부터 557년까지는 준비기이다. 국원소경 설치와 행정 인력을 사민하여 지방 지배체제의 정비를 준비하는 시기라 하겠다.

557년에서 6세기 말까지는 진행기라고 할 수 있다. 한강 이남 지역을 중심으로 육로와 수로를 따라서 거점에 축성하여 주변 지역을 장악하기 위한 거점을 육성하였다. 이 때 유력한 토착집단을 포섭하여 인력동원과 축성 사업의 진행을 담당하게 하였다. 그 과정에서 이들은 중심으로 신라의 율령과 생활양식이 주변 지역으로 파급되었다.

6세기 말이후는 완성기에 해당된다. 지방세력에 대한 통제를 확보하여 점차 이들을 해체하고 지방관도 파견하기 시작하였다. 한강 유역에 주군제를 실시하면서 직접지배체제로 전환하였던 시기였다.

2005 박물관 회보

2005. 01. 15 경기도 파주 가산면 풍양조씨 묘역 발굴
2005. 02. 28 『名選 中』발간
2005. 02. 28 ~ 03. 20 파주시 조리읍 공장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3. 01 금중숙 일반조교(행정) 발령
2005. 03. 01 박수경 일반조교(행정) 발령
2005. 03. 23 ~ 04. 11 오산시 오산제2하수종말처리장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4. 05 브레타 뿌르테 디자이너 박물관 단체 관람
2005. 04. 10 경운박물관 “옛 어린이 옷
— 그 소중한 어여쁨” 특별전에 유물 3점 대여
2005. 04. 10 ~ 05. 20 평택 현촌 택지개발 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4. 14 ~ 04. 16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1회 춘계학술발표회 및
제11회 학예연구원회 정기총회 참석
장 소 : 경희대학교 수원캠퍼스 혜정박물관
참석자 : 기수연
2005. 04. 26 고려대학교박물관 “한국 고대의 global pride, 고구려”
특별전에 중원고구려비 탐영 2점 대여
2005. 04. 30 “한국복식” 제23호 발간
2005. 05. 01 ~ 06. 05 고색사거리~수원시계간 도로개설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5. 02 개관 24주년 기념 제23회 학술세미나 개최(민속복식 분야)
발표자 및 논제
—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연구원)
“契會圖의 복식연구 자료와 성격”
— 고부자(단국대학교 대학원 전통의상학과 교수)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大虎, 1541~1624) 유물 연구”
— 금중숙(본 박물관 조교)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바느질 연구”

— 김주영(사회교육원 조교), 김은정(본 대학 전통의상학과 석사과정)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유물의 피륙 연구”

2005. 05. 02 ~ 05. 18 제24회 특별전 개최(민속복식 분야)
 장 소 : 본 박물관 제 1전시실, 중앙홀
 전시유물 : 경기도 파주 출토 晋州姜氏 掌隸院 判決使 河陰公(大
 虎, 1541~1624)墓 服飾類 30여 점
2005. 05. 03 한양대학교박물관 “이성과 풍납 - 한강의 백제와 신라문화”
 특별전에 유물 6점 대여
2005. 05. 20 한국고대학회 2005년 춘계 학술회의 발표(복기대)
2005. 05. 27 중국 항주 실크박물관 관장, 부관장 내관
2005. 06. 01 ~ 06. 20 이천 어석리 택지개발지구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6. 03 서울경기고고학회 2005년 춘계학술발표대회 주제발표(복기대)
2005. 06. 03 ~ 06. 04 박물관 소독(바이오미스트)
 소독장소 : 전시실, 유물수장고, 사무실, 학예연구실 등
2005. 06. 10 의정부 진주 강씨 분묘 출토복식 발굴
2005. 06. 13 ~ 06. 18 국립문화재연구소 제14기 보존과학 기초연수 교육 참가(금종숙)
 장 소 : 전북 무주군 무주리조트
2005. 06. 14 국학원 주최 “고조선과 고조선 연계성 연구에 대하여”
 학술회의 토론(기수연)
2005. 06. 15 중국 중산대 4명 박물관 견학
2005. 06. 25 ~ 06. 26 강원도 양양 진전사 점안식, 낙성식, 정대불사 참석
 장 소 : 강원도 양양 진전사
 참석자 : 정영호, 윤응구, 복기대, 기수연, 이지영, 박수경 등 43명
2005. 07. 15 경기도 문산 봉서리 출토 연안 도호 부사 閔公 분묘 출토복식 발굴
2005. 07. 20 ~ 08. 15 일산대교 건설공사 토취장 개발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8. 01 윤응구 주임 대외협력실로 발령
2005. 08. 01 문득수 주임 발령
2005. 08. 01 ~ 08. 05 몽골학회 세미나 참석 및 답사(정영호)
2005. 08. 05 ~ 08. 06 복권기금 지원사업 대학박물관 연합특별전 학예연구원
 워크샵 참석(금종숙)

2005. 08. 23 ~ 09. 22 초성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8. 31 정영란 일반조교(행정) 사직

2005. 09. 01 김태연 일반조교(행정) 발령

2005. 09. 01 토지박물관 “생명의 땅, 역사의 땅 - 개발과 문화유산의 보존” 특별전에 고양 일산 지역 출토 석기사진 2점 대여

2005. 09. 01 ~ 09. 30 군관사 BTL 사업 아파트 건설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9. 08 ~ 10. 08 강촌권역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

2005. 09. 13 국립김해박물관 “농경사회의 서막” 특별전에 고배형토기 1점 대여

2005. 09. 14 용인시 기흥읍 영덕리 무연고 발굴

2005. 10. 1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대학박물관 연합특별전”에 유물 53점 대여

2005. 10. 12 민속복식분야 사무실 바닥 타일 공사, 세미나실 입구 강화유리문 교체 공사

2005. 10. 13 ~ 10. 14 한국대학박물관협회 제53회 추계학술발표회 및 제54회 정기총회 참석

장 소 : 숙명여자대학교 박물관

참석자 : 기수연, 금종숙

2005. 10. 23 ~ 10. 30 EBS창사특집 “잊혀진 한민족, 그 역사 복원을 위하여” 프로그램 제작 참여(복기대)

장 소 : 중국 심양, 베이징

2005. 11. 01 ~ 11. 30 평택 후사리 공단 조성지역 문화재 지표조사

2005. 11. 14 ~ 11. 29 대치유수지 테마체육공원 조성 문화재 지표조사

2005. 11. 15 경기도박물관 “고구려 특별전”에 중원고구려비 탑영 등 유물 3점 대여

2005. 11. 18 제20회 정기연구발표회 개최(고고역사 분야)

발표자 및 논제

- 신형식(상명대학교 초빙교수)
“5~6세기 고구려의 남진과 국원성 관계”
토 론 : 심광주(토지박물관 학예연구실장)
- 양기석(충북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5~6세기 백제의 북계”

토 론 : 김주성(전주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 서영일(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연구교수)

“5~6세기 신라의 한강유역 경영고찰”

토 론 : 김기섭(서울역사박물관 전임연구원)

— 종합토론 진행 : 정운용(고려대학교 고고미술사학과 교수)

2005. 11. 23 원주시립박물관 “남한강유역의 신석기 문화” 특별전에 빗살무늬
토기편 40점 대여

2005. 11. 29 ~ 12. 05 조선일보사 “일본 속의 한민족사 탐방” 참석 및 강연(정영호)

2005. 12. 01 ~ 12. 30 용설리 초지 조성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

2005. 12. 02 ~ 12. 30 풍덕천동 유료노인복지주택 신축공사 문화재 지표조사

구입 및 기증받은 도서목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286	자료로 보는 한국교원대학교 20년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9287	2003연보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9288	한국상고사학보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9289	활 -동서양의 만남-	영집공시박물관	기증
9290	경기민속지 -7. 구비전승-	경기도박물관	기증
9291	경주 인왕동 유적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9292	경주 조양동유적2 -본문-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9293	경주 조양동유적2 -사진-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9294	고고와 민속(C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295	대전 신대동유적(C1)	한남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296	강원고고학의 발자취	국립춘천박물관	기증
9297	운보미술관 소장품	운보미술관	기증
9298	화성 하가동리유적(C1, C2)	해군본부	기증
9299	보은 적암리 분청사기 가마터(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0	보은 상장리유적(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1	상주 모대동유적 -본문-(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2	상주 모대동유적 -사진-(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3	국도 35호선 확 · 포장공사 구간내 유적발굴조사보고서(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4	포항 기계지구 농촌용수개발사업 예정 지구내유적 시 · 발굴조사보고서(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5	경주 구정동 255-1번지 단독주택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6	경주인동리 유적(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7	보은 부수리 고분군(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8	동래 낙인동 패총(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09	경주 성건동 454-1번지 유적발굴조사보고서(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310	지산리·신봉리·거동동유적(C1, C2)	중앙문화재연구소	기증
9311	지심귀명례-한국의 불복장-(C1)	수덕사 근역성보관	기증
9312	영원한 삶, 저승 뱀(C1, C2)	단국대사회교육원 전통복식과정 9기	기증
9313	광고, 그리고 일상	부산근대역사관	기증
9314	지구촌문화(상)	지구촌민속박물관	기증
9315	지구촌문화(하)	지구촌민속박물관	기증
9316	서울 생활문화 영상민속지 <서울시장의 소리>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317	경기민속지(7)-구비전승편-	경기도박물관	기증
9318	20세기전반 충북지역 인구통계	충북개발연구원 부설	기증
9319	근·현대 생활사 박물관의 현황과 과제	서울시립대학교 박물관	기증
9320	100년전 충북의 옛 모습 -진천군편-	충북학연구소	기증
9321	충북학	충청북도	기증
9322	영동 애국지사 이견석 자료집	충북학연구소	기증
9323	원주 근대건축을 찾아서	도서출판 서우	기증
9324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성군-(C1, C2, C3)	동아대학교 박물관	기증
9325	수원문화예술사 -공연예술편-	(사)화성연구회	기증
9326	동원학술회 문집	한국고고미술 연구소	기증
9327	고고학지 -제13집-	한국고고미술 연구소	기증
9328	나주 우산리요지(C1)	나주관광개발 호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29	나주 용호 구석기유적(C1)	호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30	익산 원수리유적(C1)	호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31	해남 백야리 요지(C1)	호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32	광주 향등유적(C1)	호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33	보성 황성산성	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334	장흥군의 성곽	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335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장흥군-	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336	문화유적분포지도 -전남강진군-	남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337	박물관 기요(1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338	조선 지방사기의 흔적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9339	해남 용일리 용운고분	국립광주박물관	기증
9340	전북인의 마음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9341	문화재보존연구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342	한국사연구회보 제127호(C1, C2)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9343	목아박물관 소장유물	목아박물관	기증
9344	오색빛을 찾아서	웅기민속 박물관	기증
9345	충북 100년연표 -1896~2002-	충북학연구소	기증
9346	한반도와 바다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347	목가구의 수종 식별과 연륜연대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348	조선의 과학문화재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349	도성 대지도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350	문화유적분포지도 -곡성군-(C1)	전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351	함평 ऐ역리 만가촌 고분군(C1)	전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352	곡성군 문화유적 학술조사	전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353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9354	발굴유적과 유물도록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기증
9355	민족문화논총 -제30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9356	조선시대의 도검	육군박물관	기증
9357	학예지 제11집 -조선의 도검특집-	육군박물관	기증
9358	경기도 고양시 군사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육군박물관	기증
9359	문화유적분포지도 -광주광역시-(C1)	전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360	신옥진 기증문화재	부산박물관	기증
9361	제천 장락사지 시굴조사보고서	충청대학박물관	기증
9362	박물관지 -제12호-	충청대학박물관	기증
9363	신석기시대의 토기문화	동삼동 패총전시관	기증
9364	미술사연구	미술사연구회	기증
9365	선현들이 남기신 묵향	고휴서랑	기증
9366	만화로보는 제주교육박물관체험	제주교육박물관	기증
9367	경기향토사학 -제9집-	문화원경기도지회	기증
9368	고문화(C1, C2)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369	고려도자로의 초대	해강도자 미술관	기증
9370	일제강점기 광주문헌집(C1)	광주시립민속박물관	기증
9371	씻대	씻대박물관	기증
9372	한국학연구 제13집	한국학연구소	기증
9373	동명기념과 소장품 도록	동명문화연구원	기증
9374	한국은행 화폐금융박물관	한국은행	기증
9375	고문서 -국왕·왕실문서·관청문서-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376	보존과학연구 25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377	국토종단 스케치여행(2) 경기도편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기증
9378	영남고고학	영남고고학회	기증
9379	제주돌의 멋1	북제주군	기증
9380	제주돌의 멋2	북제주군	기증
9381	박물관 기요17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9382	두 하늘을 덮어쓰고 산 사람들	문경시	기증
9383	김천댐 기본계획 수립조사용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기증
9384	원불교 역사박물관	원불교역사박물관	기증
9385	소장명품선(C1)	대전대학교박물관	기증
9386	과기고고연구 제10호(C1)	아주대학교 박물관	기증
9387	거창 상동유적1	한국토지공사	기증
9388	거창 상동유적2	한국토지공사	기증
9389	진해 석동유적	대한주택공사	기증
9390	진해 안골동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91	함안 요사리 윗장명 토기가마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92	김해 농소리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93	고성 교사리 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94	고성 신전리 민묘군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95	통영성지내 서포루 일원 지표조사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396	문화유적분포지도 -당진군-(C1)	충청남도역사문화원	기증
9397	사진으로 본 서울송실 50년	송실대학교	기증
9398	국토와 지명3 땅은 이름으로 말한다	한국토지공사 토지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399	정신문화연구 -제27권 제4호-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기증
9400	동산문화재의 보존과 관리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401	문화유적분포지도 -포천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기증
9402	문화유적분포지도 -연기군-	공주대학교 박물관	기증
9403	포천 반월산성 종합보고서(2)(C1)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기증
9404	생활문화체험전	안동민속박물관	기증
9405	안동의무속	안동민속박물관	기증
9406	전라우수영 망해루지 및 복문지	명지대부설 한국건축문화연구소	기증
9407	한성 인문학 -제3집-	인문과학연구소	기증
9408	연보 -제7호-(C1)	경기도박물관	기증
9409	인문과학 -제35집-	성균관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증
9410	평택서부관방산성 시·발굴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기증
9411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보고서 -본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기증
9412	이천 설성산성 2·3차 발굴조사보고서 -사진도면·답본-	단국대학교 매장문화재연구소	기증
9413	국도 32호선 (언양~인보간)확·포장공사 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증
9414	연안김씨 묘 출토 복식	경기도박물관	기증
9415	박물관연보 제2호	경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416	마사박물관지	마사박물관	기증
9417	경기도 논맴소리 -자료총서 제111권-(C1)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기증
9418	경기도의 민속예술3(C1)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기증
9419	성곽 길라잡이(C1)	전국문화원연합회 경기도지회	기증
9420	문화사학 -창간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1	문화사학 -제2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2	문화사학 -제3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3	문화사학 -제4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4	문화사학 -제5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5	문화사학 -제6·7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6	문화사학 -제8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427	문화사학 -제9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8	문화사학 -제10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29	문화사학 -제14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0	문화사학 -제15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1	문화사학 -제16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2	문화사학 -제17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3	문화사학 -제18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4	문화사학 -제19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5	문화사학 -제20호-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436	한국학연구	고려대학교 한국학연구소	기증
9437	오산시 청호동(오산 청호동 LG자이 아파트 신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38	오산시 원동 그린파크빌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39	통진향교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0	하남시 미사동 발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1	수원 고색동 유물 산포지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2	이천 백암 비스타 C.C사업예정지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3	하남 도미나루 유적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4	하남 춘궁동 궁안 노인복지회관 건립부지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5	이천시 두마리 석축유구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6	가평군 봉수리 석곽토광묘 문화유적 시굴조사보고서	경기대학교 박물관	기증
9447	예성문화 -제24호-	예성문화연구회	기증
9448	허적·정호	예성문화연구회	기증
9449	아시아문화 제19호	아시아문화연구소	기증
9450	아시아문화 제20호	아시아문화연구소	기증
9451	진천 석장리 철생산유적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9452	고인쇄문화 -제11집-(C1)	청주고인쇄박물관	기증
9453	송암 김면의 생애와 의병활동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9454	울산 병영성 진해루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455	울산 호간동 죽전곡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456	울산 연암동 산성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457	울산 약사동 861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458	울산 고동리 456유적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459	문화유적 분포지도 -창녕군-	동아대학교 박물관	기증
9460	한국상고사학보 -제47호-(C1)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9461	상경일기	부산근대역사관	기증
9462	가야문화 -제17호-(C1)	가야문화연구원	기증
9463	진주 월평유적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464	진주 장흥리 와요지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465	문경새재 -지표조사보고서-(C1, C2)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9466	울진 덕신리유적 -본문-(C1, C2)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9467	울진 덕신리유적 -사진-(C1, C2)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9468	안동리 산성(성황당 · 신석 · 선성산성 지표조사보고서)(C1, C2)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9469	안동문화관광단지 예정지역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C1, C2)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9470	예천 동본동 공동주택건설 예정지역내 (시굴조사보고서)	안동대학교 박물관	기증
9476	파주 문산 LCD 지방산업단지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증
9477	의왕 국도 1호선 확 · 포장공사 오전-청계동 간 도로개설공사 ICD진입로 개설공사 부지 지표조사보고서	의왕시 고려문화재연구원	기증
9478	평택 오성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 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증
9479	화성 수촌 지방산업단지 조성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증
9480	화성 북양-자안간 도로 확 · 포장 공사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고려문화재연구원 한국종합기술개발공사	기증
9481	경주사학 제23집	경주사학회	기증
9482	미술사학연구	한국미술사학회	기증
9483	21세기 박물관의 역할과 발전방향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484	서울역사박물관 연구논문집 도시역사문화 제3호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485	마하리 고분군	숭실대학교 박물관 서울대학교 박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증
9486	화성 당하리2 유적	숭실대학교 박물관 한신대학교 박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증
9487	화성 왕림리유적	숭실대학교 박물관 한국철도도시공단	기증
9488	Bulletin of the National museum of Japanese history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궁지정인	기증
9489	한국미술 2005	월간미술	기증
9490	인문과학논총 제42집	건국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기증
9491	한국사 연구 회보 제128호(C1)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9492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1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493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2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494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3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495	서울특별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종합보고서4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496	건국대학교 역사자료집(3)	건국대학교 박물관	기증
9497	정신문화연구 제98호(C1)	한국학 중앙연구원	기증
9498	박물관지 제11호(C1)	경원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499	경기도 박물관 명품선 Masterpieces from the collections of the Gyeonggi provincial museum(C1)	경기도박물관	기증
9500	실로 찾는 꿈 -황홀한 우리자수-(C1)	경기도박물관	기증
9501	경기도박물관협의회연합전 -미술관 옆 박물관-(C1)	경기도박물관	기증
9502	망운재장 석파도인 유란도 전10권 -주택, 해설-	백선문화사	기증
9503	망운재장 석파도인 유란도 전10권	백선문화사	기증
9504	달성 대견사지 -시굴조사보고서-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05	구미 봉산리1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506	고령 지산동 고분군1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07	대구 가천동 유적<본문>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08	대구 가천동 유적<사진>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09	경산 중산동 건물지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10	영남문화재 연구원17 -개원10주년 기념논집-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11	흑백사진으로 본 경희의 역사1	경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512	<특별전>전북의 옛 절터 출토유물	전라북도 익산지구 문화유적 지관리사무소 미륵사지 유물전시관	기증
9513	<탐라문화>제26호	제주대학교 탐라문화연구소	기증
9514	<충청학과 충청문화> 제3집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기증
9515	금산 아인리유적(C1)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기증
9516	아산 갈산리유적(C1, C2)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기증
9517	당진 읍내리유적(C1, C2)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기증
9518	금산 백령산성 -지표 · 시굴조사보고서-(C1, C2)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기증
9519	천안 불당동유적(C1, C2)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천안시 경영*개발사업소	기증
9520	부여 능산리유적(C1, C2)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충청남도 종합건설사무소	기증
9521	부여 나복리유적(C1, C2)	충청남도 역사문화원	기증
9522	아시아문화연구 제9집 글로벌시대에 있어서의 지역과 대학	한국 경원대학교 아시아문화 연구소 중국중앙민족대학 한국문화연구소	기증
9523	민속연보 제12호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524	충북대학교 박물관 소장기지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225	제9회 국제학술회의 -수양개와 그 이웃들-	명치대학박물관 명치대학 고고학연구실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526	한국 스야쓰게유적と일본 의1日석기시대	수양개와 그 이웃들	기증
9527	청원 남성곡 고구려유적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528	청주 봉명동유적(1)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529	청주 봉명동유적(2) -4지구 조사보고1:본문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530	청주 봉명동유적(2) -4지구 조사보고1:사진편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531	청주 봉명동유적(3) -4지구 조사보고2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532	도서문화 제23집	목포대학교 도서관문화연구소	기증
9533	한국민족문화 -25권-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증
9534	국도 24호선(울산·연양)확·포장구간내유적	울산대학교 박물관	기증
9535	울산 천소유적	울산대학교 박물관 울산문화재연구소	기증
9536	고성 문암리유적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537	조선중기 역사의 진실 -이익태 목사가 남긴 기록-	국립제주박물관	기증
9538	문화유적분포지도 -예천군-	예천군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9539	부산 반여동 유적	부산광역시 동의대학교 박물관	기증
9540	백산학보 -제71호-	백산학회	기증
9541	고구려 유적의 보고 -경기도-(C1)	경기도박물관	기증
9542	여주 중암리 고려백자요지(C1)	경기도박물관 여주군	기증
9543	고양 먹절산 유적	경기도박물관	기증
9544	대구 불로동 고분군 발굴조사보고서 -91·93호분-(C1, C2, C3)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기증
9545	강화우체국~강화중학교간 도시계획 도로개 설공사 예정구간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강화군	기증
9546	영동 유전리 고분군 -발굴조사 및 정밀지표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영동군	기증
9547	성남 여수지구 국민임대단지 예정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한주택공사	기증
9548	평택시사(C1)	나눔정보통신 평택시	기증
9549	문화유적분포지도 -사천시-	사천시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550	문화유적분포지도 -경북·예천군-	예천군 대구대학교 박물관	기증
9551	수원의 역사와 문화	수원시	기증
9552	울진 덕신리유적 -본문·사진-(C1, C2)	안동대학교 박물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553	경남대학교 박물관 사내문고 소장 -고간첩-	경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554	청양 장승리 고분군	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9555	금강고고 -제2집-	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9556	대전 자운동·추목동유적	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9557	Japan 포럼	삶과 꿈	기증
9558	혜춘 김학수 화백기증 성화전	송실대학교 한국기독교박물관	기증
9559	간송문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기증
9560	박물관지 -제13호-(C1)	충청대학박물관	기증
9561	제천 장락사지 시굴조사보고서(C1)	충청대학박물관 제천시	기증
9562	학예연구(C1)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9563	울산 구영리유적 -무문토기시대 주거지·삼국시대 분묘-	경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564	부산 연산동유적(C1, C2 ,C3, C4)	북천박물관	기증
9565	동래 수안동유적 -수안동 533·534번지- (C1, C2, C3, C4)	북천박물관	기증
9566	동래 수안동 231-2번지유적(C1, C2, C3, C4)	북천박물관	기증
9567	북천동 고분군 제7차조사보고(C1, C2, C3, C4)	북천박물관	기증
9568	동래 수안동 231-2번지유적(C1, C2, C3, C4)	북천박물관	기증
9569	동래 온천동유적(C1, C2, C3, C4)	북천박물관	기증
9570	성남 판교지구 광역도로구간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증
9571	구리문화	구리문화원	기증
9572	미술연구 제386호	동경문화재연구소	기증
9573	국립민속박물관 유물수집10년(1995~2004)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574	한국상고사학보 제48호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9575	한국 원형 점토대토기문화 자료집	국립김해박물관	기증
9576	조선시대 피륙의 무늬(C1)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기증
9577	경기전과 태조 이성계 -왕의 초상-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9578	목향의 나눔 -대오 석종섭 기증 서화전-	홍익대학교 박물관	기증
9579	국제학논총 제9집(C1)	계명대학교 국제학연구소	기증
9580	문화유적분포지도 -칠곡군-(C1, C2)	칠곡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581	문화유적분포지도 -울진군-(C1, C2)	울진군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기증
9582	동아고고논단	충청문화재연구원	기증
9583	문화재연감	문화재청	기증
9584	하양~와촌~대구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문화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하양 대학리·와촌 동강리 유적-	경상북도 문화재연구원	기증
9585	서울 청계천 복원구간내 청계천유적	서울특별시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9586	감문국 -유적정비를 위한 정밀지표조사-	경북대학교 박물관 김천시	기증
9587	한국사연구회보 제129호(C1)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9588	한국역사 정보통합시스템(C1)	한국역사분야 종합정보센터	기증
9589	문화사학 제23호(C1)	한국문화사학회	기증
9590	민족문화논총 제31집	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기증
9591	동해선 철도 건설사업(포항~원덕간)구간내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위덕대학교 박물관 대구대학교 박물관 안동대학교 박물관 한국철도시설공단	기증
9592	불교고고학 제4호	위덕대학교 박물관	기증
9593	도의국사와 진전사(C1)	학연문화사	기증
9594	대전 괴정고등학교 신축부지내 유적 발굴조 사보고서(C1)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광역시교육청	기증
9595	안동 일직골프장 건설부지내 안동 조탑리고분(C1)	중앙문화재연구원 안동개발주식회사	기증
9596	진천 삼덕리고분(C1)	중앙문화재연구원 진천군	기증
9597	국도 35호선 (언양~인포간)확·포장공사구간 내 유적 발굴조사보고서(C1)	중앙문화재연구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598	대청호 접안지역내 대전 하추·성피유적(C1)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광역시	기증
9599	김천시 관내국도대체우회도로(농소~어모) 건설구간내 김천 용전리·초곡리유적(C1)	중앙문화재연구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600	충주 구룡지구 농업용수 개발상정지내 충주 구룡리 백자요지(C1)	중앙문화재연구원 농업기반공사	기증
9601	한국의 문자도	삼척시립박물관	기증
9602	근대문화유산 목록화사업	충청남도	기증
9603	역사의 실제 매장문화재(C1)	문화재청 매장문화재과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604	영남고고학 36	영남고고학회	기증
9605	고문화 제65집(C1)	한국대학박물관협회	기증
9606	동학농민혁명의 어제와 오늘	전라북도 동학농민혁명기념관	기증
9607	달성 설화리 고분군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08	대구 노변동 고분군1 -목곽묘-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09	대구 남성로 33번지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0	경주 봉길리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1	대구 신당동 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2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구간내 청도 진라리 유적 -본문-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3	대구-부산간 고속도로 공사구간내 청도 진라리 유적 -사진-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4	대구 노변동 사직단유적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5	경부고속철도 건설공사구간내 경산 현내리2유적 -부·대구 대현동 목관묘-	영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16	문화유적분포지도 -의성군-	의성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617	문화유적분포지도 -경북·의성군-	의성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618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3 -광주광역시·전라남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증
9619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4 -전라북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증
9620	한국전쟁과 불교문화재2 -제주도편-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증
9621	성보 -제6호-	대한불교조계종 성보보존위원회	기증
9622	유리원판 불교문화재 도록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기증
9623	옛 어린이 옷	경운박물관	기증
9624	울산 산하동 산음유적(C1)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625	울산 옥동 유적(C1)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626	울산 병영성(C1)	울산문화재연구원	기증
9627	석산 진기홍 선생 기증 통신사료 특별전시회	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박물관	기증
9628	기전고고 제4호	기전문화재연구원	기증
9629	하남 교산동 건물지 발굴조사 종합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 재연구원 하남시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630	용인 죽전 택지개발사업지구내 완장이골 건물지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기증
9631	홀곶 패총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안산시	기증
9632	시흥 거모동 건물지	경기문화재단 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한국도로공사 중부지역본부	기증
9633	수원 이의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 문화유적 지표조사보고서	기전문화재연구원 고려문화재연구원 경기지방공사	기증
9634	수원 울전동 유적	기전문화재연구원 대한주택공사	기증
9635	연천 학곡리 적석총 -연천 학곡제 개수공사 지역 내 발굴조사보고서-	경기문화재단부설 기전문화재연구원 서울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636	별전 -기원을 담은 돈-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637	연보 -제16집-	인천광역시립박물관	기증
9638	전주 평화동 유적(C1)	전주대학교 박물관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639	서해안 고속도로(군산-고창)구간 내 문화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고창 예지리, 우평리-(C1)	전주대학교 박물관 한국도로공사	기증
9640	전주 송천동 유적(C1)	전주대학교 박물관 전주시	기증
9641	문화유적분포지도 -기장군-	부산광역시 박물관 북천박물관	기증
9642	진주 가좌2 택지개발 사업지구내 진주 가좌동 유적(C1)	대한주택공사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43	남해 대국산성[남문지 및 연지]	남해군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44	김해 안양리 고분군(C1)	대구-부산간 고속도로(주)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45	진주 진성~이반성간 도로 확 · 포장공사 구간내 진주 가산리 유적(C1)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경남문화재연구원	기증
9646	정신문화연구 제99호(C1)	한국학중앙연구원	기증
9647	조사보고 제42책 인천 제2연육교 접속도로 건설공사 기본설계 T/K중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주)한국해외기술공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648	대곡동 지식묘 -인천 대곡동 지식묘 정밀지표조사-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49	동춘 1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가칭)동춘 1지구 도시개발 사업조합	기증
9650	굴현 도시개발구역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1	대곡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하대학교 박물관 엠엔건설(주)	기증
9652	인천 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효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3	검암 근린공원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서구청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4	인천 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가칭)백석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5	성남~여주 복선전철 제8공구 건설공사 TK-1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주)신성엔지니어링 (주)유신코퍼레이션 (주)태조엔지니어링 (주)한국철도기술공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6	용마루 주거환경 개선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주)선진엔지니어링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7	운북 복합레저단지 조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인천광역시 도시개발공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8	강화 소도읍 육성사업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국토지공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59	영종도 제2연육교 건설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코다 개발 주식회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주)한국해양 과학기술	기증
9660	대부도 10·14 토취장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한국수자원공사 인하대학교 박물관	기증
9661	해방공간의 도서들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9662	울진 백암산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울진군	기증
9663	청도읍성 정밀지표조사보고서(C1)	청도군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664	칠곡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목곽묘 외(본문)-(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665	칠곡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2지구-(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666	칠곡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석곽묘 외(사진)-(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667	칠곡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목곽묘 외(사진)-(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668	칠곡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석곽묘 외(본문1)-(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669	칠곡 경부고속철도 건설구간 칠곡 심천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 -석곽묘 외(본문2)-(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670	문화유적분포지도 -삼척시-	문화재청 강원도 삼척시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1	문화유적분포지도 -평창군-	문화재청 강원도 평창군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2	문화유적분포지도 -영월군-	문화재청 강원도 영월군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3	문화유적분포지도 -속초시-	문화재청 강원도 속초시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4	문화유적분포지도 -고성군-	문화재청 강원도 고성군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5	문화유적분포지도 -춘천시-	문화재청 강원도 춘천시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6	문화유적분포지도 -양양군-	문화재청 강원도 · 양양군 강원문화재연구소	기증
9677	한반도와 바다	국립민속박물관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9678	해상왕 장보고 -유적 · 유물도록- 국립역사민속박물관 연구보고 -124집-	(재)해상왕장보고기념사업회	기증
9680	교육만이 희망이있네	한국교원대학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681	문화유적분포지도 -중·남·동·북구-	울산광역시	기증
9682	북한문화재해설집Ⅳ 북한의 주요박물관 소장품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683	실로 찾는 꿈 -황홀한 우리자수-	경기도박물관	기증
9684	경기도박물관 명품선	경기도박물관	기증
9685	꿈꾸는 우리문화 -익살과 재치-	경기도박물관	기증
9686	패불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687	미국 보스턴미술관 소장 한국문화재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688	일본 경도 국립 박물관 조선 석물 조사보고서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689	서천-공주간 고속도로 건설구간(6-3지역)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서천 봉성리·태성리 유적	충남대학교 백제연구소 한국도로공사	기증
9690	조선사람의 바램, 그 이야기	홍익대학교 박물관	기증
9691	연보 2004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9692	사비도성 유적지도 지리정보시스템	국립부여문화재연구소	기증
9693	중정남한지(원본)	하남역사박물관	기증
9694	중정남한지(번역본)	하남역사박물관	기증
9695	빛 2005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696	서울대학교 박물관 연보 16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9697	춘곡 고회동 40주기 특별전	서울대학교박물관	기증
9698	고창 암치리 유적(C1)	전북대학교박물관 농업기반공사고창지부	기증
9699	완주 봉동읍 배수지 시설부지내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배매산-	전북대학교박물관 완주군	기증
9700	전주 송천동 유적 -B지구-(C1)	전북대학교박물관 전주시	기증
9701	비응도·가도·오식도 패총(C1)	전북대학교박물관 목포대학교박물관 한국토지공사	기증
9702	전주 송천동 2가 유적(C1)	전북대학교박물관 대한주택공사	기증
9703	여의곡·안치동 지석묘 이전복원(C1)	전북대학교박물관 진안군·한국수자원공사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704	남원 대곡리 유적(C1)	전북대학교박물관 남원시	기증
9705	남원 문화유적분포지도 1:10,000(C1)	남원시 전북대학교박물관	기증
9706	국립고궁박물관	눌와	기증
9707	백자 달항라리	국립고궁박물관	기증
9708	흙으로 빛은 우리역사	용인대학교박물관	기증
9709	광복60주년 기념 순회교육자료전 식민지교육의 풍경	서원대학교 한국교육자료박물관	기증
9710	문화재 관계법령집	문화재청	기증
9711	조선왕조실록을 통해본 제주목사	제주시	기증
9712	진천~진천 IC간 도로 확·포장공사구간내 송두리 유적 발굴조사보고서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713	고려청자에 나타난 국화·모란문양 연구	경기대학교 전통예술대학원 고미술감정학과 고미술감정전공	기증
9714	2004년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자료 편람집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15	고조선·단군·부여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16	다시보는 고구려사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17	중국인이 쓴 고구려사 上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18	중국인이 쓴 고구려사 下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19	중국의 국경·영토인식 20세기 중국의 변강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0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1	고조선·고구려·발해 발표논문집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2	고구려 문명기행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3	고구려 연구논저 목록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4	러시아 연해주 크라스키노 발해사원지 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5	2004년도 러시아 연해주 발해유적발굴보고서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6	한중관계사 연구논저 목록(중세)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7	Journal of Inner and East Asian Studies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8	중국의 고구려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29	중국의 발해사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730	중국의 동북변강 연구 -동향분석-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1	북한의 최근 고구려사 연구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2	북방사논총 -창간호-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3	북방사논총 -2호-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4	북방사논총 -3호-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5	북방사논총 -4호-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6	북방사논총 -5호-	고구려연구재단	기증
9737	한국상고사학보 제49호	한국상고사학회	기증
9738	전통문화논총 3호	한국전통문화학교	기증
9739	한국고고학 전문사전 -청동기시대편-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740	문화재 제37호	국립문화재연구소	기증
9741	한국 미술품 경매전		기증
9742	옥천 옥영수 생가지 1차 발굴조사 보고서	충청대학박물관 옥천군	기증
9743	충주 탄금대주변 근린생활시설부지 시굴조사 보고서	충청대학박물관	기증
9744	영동 늘머니과일랜드 유물산포지 발굴조사보고서	충청대학박물관 영동군	기증
9745	충주 연수동 I PARK 신축공사부지 내 유적 시굴조사보고서	충청대학박물관 현대산업개발(주)	기증
9746	상주 신상리 구석기 유적 -2003년도 시굴조사-(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747	경주 청령-현곡간 도로 확·포장 공사구간 내 경주 오류리유적 발굴조사보고서(C1)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748	김대환 기증유물 특별전 천년을 이어온 우리공예 이야기 -삼국에서 조선까지-(C1, C2)	상명대학교박물관	기증
9749	시흥 목감중학교 건립사업 예정부지내 시흥 목감동 유적	경기도 안산교육청 한국문화재보호재단	기증
9750	연보 2004년도	국립진주박물관	기증
9751	옛 웅기, 그리고 지금은...	웅기민속박물관	기증
9752	한국사연구회보 제130호	국사편찬위원회	기증
9753	충북대학교 박물관대학11년(1995~2005)	충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754	경주남산 -석조문화재 정밀실측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시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755	연보 -제14호-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9756	경주남산 -석탑발굴·복원정비 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시	기증
9757	학술연구총서 40 월성 -지표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기증
9758	춘양교지(일정교지, 사적 457호) 발굴조사보고서	국립경주문화재연구소 경주시	기증
9759	경주남산 -정밀학술조사보고서-	경주시	기증
9760	경기도 사람, 경기도 이야기	경기도박물관	기증
9761	우리나라 탈	공주민속극박물관	기증
9762	광복60주년 자료 특별전 8·15 광복에서 4·19혁명까지	삼성출판박물관	기증
9763	호남문화연구 제 36집	호남문화연구소	기증
9764	우리악기 보고듣기	경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765	문물연구 제 8호	재단법인 동아시아문물연구 학술재단	기증
9766	青木 繁《海の辛》	동경문화재연구소 석향재단석향미술관	기증
9767	고령군 다산면 송곡리 마을지	경북대학교 박물관	기증
9768	덕성여자대학교박물관	덕성여자대학교 박물관	기증
9769	달성 문산리 고분군 I 지구 -대형봉토분 1·2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770	달성 문산리 고분군 I 지구 -대형봉토분 3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771	달성 문산리 고분군 I 지구 -대형봉토분 4호-	경상북도문화재연구원	기증
9772	감로 上	통도사 정보박물관	기증
9773	감로 下	통도사 정보박물관	기증
9774	안동 선비음식의 전통과 향기	안동소주박물관	기증
9775	전주 문화유적분포지도(C1)	전주시 전주역사박물관	기증
9776	MOT : The beauty and style of korean women	the Amore museum	기증
9777	운남 민족문화전	경기도박물관	기증
9778	역사문화도시의 보존과 복원	경주시 동국대학교 국사학과	기증
9779	생명의 땅, 역사의 땅	한국토지공사 토지 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780	미술연구 -제387호-	동경문화재연구소	기증
9781	간송문화	한국민족미술연구소	기증
9782	Origin of Namdo Paintings	남도 미술관	기증
9783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두바인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84	조선의 행정문서 오백년전 관청이야기	국민대학교 박물관	기증
9785	한국-일본 오키나와의 조개제품을 통한 선사시대 문화의 재발견	국립제주박물관	기증
9786	중앙아시아의 유목민 두바인의 삶과 문화	국립민속박물관	기증
9787	2005 일반동산 문화재 다량 소장터 실태조사	경상북도 예천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788	조흥금융박물관	조흥금융박물관	기증
9789	삼송 김건호 기증유물 및 성서관련유물 특별전	삼육대학교 박물관	기증
9790	은일의 수려한 꿈 신라 와당	영남대학교 박물관	기증
9791	한국민족문화 26	부산대학교 한국민족문화연구소	기증
9792	즐거운 역사체험 어린이박물관(C1)	국립중앙박물관	기증
9793	남양만의 역사와 문화	한신대학교 박물관	기증
9794	연보	국립전주박물관	기증
9795	허준 박물관	허준 박물관	기증
9796	강원도 삼척시 도계읍 탄관촌 사람들의 삶과 문화	삼척시립박물관	기증
9797	도갑사의 문화재	도갑사 정보박물관	기증
9798	원형과 깨달음	영암군 월출산 도갑사 도선국사연구소	기증
9799	마포구 생활안내도	마포구	기증
9800	녹천 송영홍 선생가 기증유물(I)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기증
9801	녹천 송영홍 선생가 기증유물(II)	대전광역시 향토사료관	기증
9802	연보	부여군 정림사지전시관	기증
9803	풍수	성신여자대학교박물관	기증
9804	고려시대 금석문 탁본전(본문)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기증
9805	고려시대 금석문 탁본전(도록)	성균관대학교박물관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806	화석의 세계 2 -중생대-	경보화석박물관	기증
9807	용인 창리 · 공세리 · 문촌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9808	진천 신월리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대전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809	경주 노곡리 · 용장리 · 배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기증
9810	송파 장지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SH공사 · ㈜인본건설	기증
9811	대전 대정동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고려개발(주)	기증
9812	천안 매성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9813	평택 칠괴동 · 토건리 유적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9814	고양 삼송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기증
9815	남양주 별내지구 택지개발사업부지내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9816	불교미술사학 제3집	통도사 성보박물관 불교미술사학회	기증
9817	대학박물관 새로운 역사의 발견자	(사)한국대학 박물관협회	기증
9818	경주 나정, 신회에서 역사로	중앙문화재연구원	기증
9819	영남 문화의 첫 관문, 김천	국립대구박물관	기증
9820	옛 종가를 찾아서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821	기증유물도록 3	서울역사박물관	기증
9822	문화유적분포지도 -경북 · 의성군-	의성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823	포천	경기도 박물관	기증
9824	평택시사	평택시 문화홍보과	기증
9825	문화유적분포지도 -경북 · 예천군-	예천군 대구대학교 중앙박물관	기증
9826	티베트 불화, 삶과 죽음을 넘어서	한국불교미술박물관	기증
9827	전통의 시선과 인식	한국문화재보호재단 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미술공예학과	기증

번호	책 이 름	퍼 낸 곳	비고
9828	안성시 골프장 건설 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 경기도 안성시 고삼·양성면 소재 친원 C.C부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주)원앤원컨설팅	기증
9829	군관사 BTL 사업부지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육군종합행정학교	기증
9830	2005 만화의 힘展	청강만화역사박물관	기증
9831	선화기독교미술관 소장품도록	선화기독교미술관	기증
9832	2005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교수·대학원생 작품전	단국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원우회	기증
9833	국립경주박물관 연보 2004	국립경주박물관	기증
9834	제1회 전국어린이 공예 비엔날레	국립청주박물관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 조직위원회	기증
9835	연보 2004년도	국립청주박물관	기증
9836	창조의 흔적 - 문인 시·서·화집	영인문학관	기증

알림

<박물관 기요>에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투고요령을 알려 드립니다.

1. 투고원고는 역사학 일반, 고고학, 미술사 등에 관한 내용으로 다른 학술지나 논문집에 실린 바 없는 고유한 연구물이어야 합니다.
2. 투고원고의 매수 제한은 없으며, 편집의 편의를 위하여 되도록 디스켓을 동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3. 투고원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우리 박물관에서 개최하는 ‘박물관 정기 연구 발표회’를 통해 발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투고량이 많을 경우 편집진의 심사를 거쳐 선정하게 됩니다.
4. 그 밖에 투고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709-2185~6
709-2935, 2268

〈박물관기요〉 20

2005년 12월 12일 인쇄
2005년 12월 20일 발행

발행 단국대학교 출판부
등록 1968年 2月 27日 NO. 3-95
편집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로 147
(02) 709-2185~6, 709-2935, 2268
편집 新 陽 社 (02) 2275-0834, 4585

